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

제6회

기초보호학문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학술대회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

2023. 01. 13. (금)

ZOOM (935 3481 1815) 및 인문대학 2호관 210호 인문공간

주최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BK21 교육연구단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강원대학교



목 차(Table of Contents)

1 부

- 인문치료를 통한 무의식과의 대면 -50대 여성내담자를 중심으로- 3
정윤진(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25
유희수(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시행 연구 43
양송이·이소정(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학부생 발표]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60
고한빈(강원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2 부

- 인문케어 기반 학업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수용 사례 연구 81
고혜진(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한 난민의 생애경험에 나타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95
권미영(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 영화 '어거스트 러쉬' 속 음악적 치유에 대한 분석 115
이정하(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학부생 발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예술치료 탐구 127
고민경(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심리학전공)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1984년 미국의 뉴베리 명예상을 수상한 신시아 보이트(Cynthia Voigt)의 아동문학작품인 『제프의 섬』(원제: A solitary Blue)을 매개로 내담자의 내면의 힘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여기에 50대의 여성내담자를 대상으로 내담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의식을 대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인문치료적 매개물인 본 작품의 원제목은 “A solitary Blue”이며 이를 번역가 김옥수가 ‘제프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프에게 섬은 치유의 장소이며, 자신을 숨기지도 않고 께잡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¹⁾ 원제에서 의미하는 “A solitary Blue”가 상징하는 것은 제프의 섬에서 삶을 살아가는 ‘파란 왜가리’를 의미한다. 이에 제프는 파란 왜가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내면의 방인 ‘제프의 섬’에서 행복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프의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대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 제프의 섬을 확장하여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연결로 이어볼 수도 있다. 제프는 강제적이고 급작스럽게 어머니를 상실하게 되면서 자연스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받게 되는 상처는 아버지와 감정적 동일시를 형성하게 되지만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아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고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라캉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개념에 충실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제프는 어머니의 세계인 상상계에서도 철저히 어머니의 욕망에 따른 삶을 살았다. 그러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상실을 겪게 되고 이제 아버지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제프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제프가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절망감은 곧이어 아버지와의 감정적 동일시를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계 안에서의 제프의 위치 역시 아버지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지속된 상실과 결핍을 갖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제프는 아버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며 마치 아버지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등장하는 섬은 제프가 두려움 속에서도 안락함을 느끼는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제프는 그 섬에 홀로 사는 파란 왜가리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인간은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드물다. 비록 현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알 수 없는 결핍과 상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본 논문은 평범한 50대 여성 내담자를 사례로 작품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문치료적 상담을 진행하

1) Voigt, Cynthia, 『제프의 섬』, 와이즈아이, 2008, 192쪽

였다. 상담을 통해 현재의 삶에 어떠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것을 버티어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담자 역시 주인공 소년 제프가 자신만의 섬을 발견해 가면서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려 하였다. 고통과 두려운 삶 속에서도 내담자 자신을 버티게 해 주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갖고자 하였다. 작품 속 주인공은 자신의 섬을 탐험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갖는다. 자신의 섬 안에 또 무엇이 존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또 다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곧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행복할 수만은 없다. 그 무의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 라캉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자신이 처한 마음의 문제나 결핍의 이유를 알고 조금씩 극복해 나갈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내담자의 내면을 살펴보고 무의식의 대면에 조력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캉의 이론을 가지고 치유적 적용을 한 김서영은 「사랑의 방식들: 두 종류의 실재적 사랑」이라는 그의 논문을 통해 라캉의 실재계의 개념으로 텍스트를 연구하였다. 김서영은 실재계를 말할 수 없으며, 알 수 없으며 온전히 인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인가 기괴하고 낯설며 두려운 영역이라 설명하고 있다.²⁾ 김서영이 다루고자 했던 라캉의 실재계는 두 영화 속에 나타나는 두 여주인공들의 ‘사랑’ 그 자체이다. 두 영화에 나타나는 실재계를 다루면서 과잉이자 지나침이지만 결코 두렵지는 않으며, 상징계를 전복시키지만 이를 재건하고, 외상적이지만 동시에 치유적인 입장에서 실재계를 정의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젝의 실재계와 라캉의 실재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서영의 논문은 영화 <파도를 가르며>에 나타난 사랑에 반(反)하여 <마부>가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을 언급하여 실재적 사랑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실재계라는 개념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였다.³⁾ 라캉의 실재계를 이어받은 슬라보예 지젝은 무엇인가 기괴하고 낯설며 두려운 영역으로의 실재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영화 <파도를 가르며>의 여주인공을 통해 그 실재계를 발현시키고자 하였다. <파도를 가르며>의 여주인공 베스는 사지마비가 된 남편의 요구에 의해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고 남편을 구원해 줄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베스는 죽음을 맞게 되고 남편은 회복되어 걷게 된다. 영화에서는 베스를 성스런 희생양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는 베스의 잘못된 선택이며 비극적 결과에 다름 아니다. 베스에게 실재계는 파괴적 사랑이 되고, 이는 알 수 없고 두려운 실재계를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에 반해 영화 <마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을 통해 실재계의 중심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서사는 하늘의 법이며 거듭 강조하는 최고선이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수원 덕과 마부의 사랑을 그린 1961년 작 <마부>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 ‘마땅한 것’, ‘적절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너무나 정적인 본 영화는 두 사람이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들려주면서 <파도를 가르며>의 조급하고 불안한 베스의 사랑과 대비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마부>에서의 수원 덕에게도 베스와 마찬가지로 사

2) 김서영, 「사랑의 방식들: 두 종류의 실재적 사랑」, 동국대학교, 한국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08, p14

3) 위의 논문, p15

량이 그녀의 실재계이다. 그러나 수원 맥은 베스가 선택한 파괴적 사랑 대신 마부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파괴적으로 이끌지 않는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김서영은 실재계를 말할 수 없으며 알 수 없으며 온전히 인식될 수 없는 세계이기에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희망적이고 따뜻한 공간일 수 있음에 좀 더 기울어 있는 듯하다. 달리 말해 인간이 각자의 실재계(무의식)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캉의 언급처럼 실재계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다. 위의 논문에서처럼 자신의 실재계를 마주하여 파괴적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긍정적이고 희망적 실재계를 마주하여 발전된 삶으로 나갈 수도 있다.

라캉의 실재계를 언급한 또 다른 논문으로는 「주체의 '빈곤'에서 주체의 '충만'으로 -라캉과 지젝의 관점에서 살펴본 영화 <퍼스트 리폼드>에 나타난 주체 문제」가 있다. 여기서 저자인 이 철은 영화 <퍼스트 리폼드>의 주인공 톨러 목사의 실재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영화는 상징계의 추종자였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아들의 입대와 전사)의 도래로 인해 좌절과 실패를 겪은 후 공백을 대면하게 된(주체의 '빈곤') 톨러 목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애국 전통' 가정에서 성장하며 타자(가족)로부터 무엇을 욕망해야 인정과 사랑을 받는지 배운 톨러 목사는 철저히 그러한 상징성을 선택하며 살아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전통에 따라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다. 그러나 톨러 목사의 아내와 아들은 군 입대를 반대했었다. 결국 아들은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입대 6개월 만에 전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톨러는 이전의 상징계로, 기표로, 욕망의 대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에 직면한 톨러는 그로 인해 발생한 공허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원인은 알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인 이 철은 여주인공 마리아와의 환상여행이 톨러 목사의 실재계의 대면이라 이야기한다. 이 신비한 매직여행을 통해 톨러는 또 다시 상징계로 진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논자는 영화에서 실현되었던 짧은 시간의 환상여행이 톨러 목사의 실재계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철은 톨러 목사의 실재계의 개입으로 톨러 목사가 빈곤에서 충만으로 전환된 계기를 만들어 내고 타자의 욕망을 쫓던 목사 자신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자는 톨러 목사가 대면하게 된 그의 실재계는 자살한 마이클이 남긴 그의 소명 의식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영화에서 톨러 목사가 그의 상징계로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상실감에 더해진 그의 죄의식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상실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며 상실대상에 있던 리비도를 다른 대상에게 옮겨야 상실감을 극복하고 애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 라캉 역시 누군가 상실했을 때 실재계에 구멍이 생겨 그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징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고 우울증을 만드는 요인으로 상실감과 함께 겪게 되는 죄의식을 언급한 바 있다.⁵⁾ 이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리비도가 자신을 향하면 우울증을 겪게 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상통하다. 따라서 본 영화의 톨러 목사는 상실감과 그에 따른 죄의식으로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 때 목격한 마이클의 죽음은 유족이 된 마이클의 임신한 와이프를 지켜야겠다는 소명의식과 마이클이 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환경오염 범죄자들을 향한 자살폭탄 테러의 감행을 실재계로 인식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재계 존재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톨러 목사 자신의 실재계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던 목사의 삶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4) Freud, Sigmund,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4, p246

5) 장선영, 「『햄릿』의 애도와 우울증 분석」, 한국세익스피어학회, 2008, 세익스피어비평, Vol.44 No.3 p522

자살한 마이클을 대신하여 자살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교회행사에서 실행하려 했던 톨러 목사의 행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실재계가 두렵고 끔찍하게 실현될 상황이었으나 결국 마리아의 등장으로 그는 그 계획을 철회한다. 영화는 열린 결말로 톨러의 확실한 결정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마리아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은 그의 실재계가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재계(무의식)를 대면함으로써 겪을 수도 있을 두려움과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용기 있는 대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라캉이 이야기하는 실재계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영역, 자신들도 알지 못한 채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영역으로서의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하며 만들어가는 영역으로 실재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며, 이렇게 정의된 실재계의 중심에서 말을 넘어서는 신비와 신화의 세계를 이해하는 주제, 그 자체가 에로스인 행복한 주체가 서게 된다는 것이다.⁶⁾ 이는 두렵고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다가가고자 했던 제프 자신의 실재계의 탐험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는 곧 내담자 자신들이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 실재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프 역시 자신의 실재계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막연히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는 것이다.

2. 작품분석

2.1. 『제프의 섬』에 대한 전반적 이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작품은 신시아 보이트의 아동문학작품인 『제프의 섬 (Solitary Blue)』⁷⁾이다. 주인공 소년 '제프'는 세상에 태어나서 7년 6개월이 지난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가출을 경험한다.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위에서 엄마가 써 놓은 편지를 읽게 된다. 엄마는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며 떠난다는 쪽지만을 남기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떠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프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엄마가 자기 자신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유도 또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이유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인 아버지는 무척 냉철한 인물이다. 엄마의 가출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했던 것처럼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제프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엄마의 가출로 인한 슬픔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만 표출이 되고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에는 감정표현을 싫어하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다. 어린 시절 제프의 엄마는 무척 바쁜 사람이었다. 엄마는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뛰어다니느라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 제프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고 모든 일이 엄마를 중심으로 엄마만을 생각하며 지냈다. 제프는 완벽한 연애대상이어야 하는 엄마의 잦은 부재로 그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엄마로부터의 애정을 충족하기 위해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또래 아이들보다 조숙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엄마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인문치료의 매개물로서의 문학작품의 선정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마음의 치유가 가능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문치료의 매개물이 우리 인간사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보통의 사람들이 겪었

6) 김서영, 「사랑의 방식들: 두 종류의 실재적 사랑」, 동국대학교, 한국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정기학술 세미나, 2008 p15

7) Voigh. Cynthia, 『제프의 섬』, 김옥수 옮김, 김상인 그림, 와이즈아이, 2008.

음직한 사건들을 다루어 동일시와 감정이입을 용이하게 하여 마음의 치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작품은 아동문학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량 안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심리표현이 뛰어난 작품이며 비교적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운 작품이다. 주된 이야기는 주인공 소년 제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야기 그리고 주인공 친구들의 이야기, 그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삶에 있어 그러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공간적 배경이 미국이라는 것이 현 한국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프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곧 우리네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이 작품을 인문치료에 적용하고자 이유가 되었다. 미국 즉, 서구사회의 사람들은 외향적이며 자기표현에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그로 인한 미숙함으로 관계 형성이 힘든 사람들에게 작품 속 인물들 또한 여타의 인간 삶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가진 사람들, 혹은 서로 관심이 없고 별 다른 관계나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성장해 가는 제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본 작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프 아버지의 변화에 있다. 제프의 아버지는 자신만의 언어를 이용하여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도를 한다.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자신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들이 받았을 상처에 공감한다. 그런 아버지를 통해 제프는 아버지의 애정을 느끼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신뢰감은 아버지와의 감정적 동일시로 이어지고 이것이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된다. 제프 자신 역시 아버지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고 오해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제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한다. 본 작품을 인문치료에 적용할 때에 내담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해 보고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혹시 있을 수도 있을 상처를 보듬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부모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물인 것이다. 이 때에 프로이트나 라캉의 이론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인공 제프의 입장에 동일시하여 내담자 자신의 상실감과 원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300쪽 이상의 장편을 택한 것은 이야기의 진행에서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변화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이야기 초반에 가졌던 생각과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변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함께 읽으면서 진행되는 다음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상담을 지속할 수 있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인문치료적 매개물을 선택하여 긴 호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당한 매체인 것이다.

2.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적용한 『제프의 섬』

본 작품은 주인공 소년 ‘제프’를 통해 어린 시절 엄마와의 이별을 통한 상실감, 그리고 그러한 상실감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콤플렉스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됨으로써 관계회복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의 욕망과 적대적 욕망의

총체이다.⁸⁾ 김상환과 홍준기가 엮은 『라깡의 재탄생』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근친상간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쟁자인 동성의 부모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으로, 근친상간의 대상인 이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성적 욕망으로 나타난다”라고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의식에 맞지 않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성적욕망이라는 파렴치한 개념이라고 비난받으며 오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오곤 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적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위, 성적결합이라는 좁은 의미의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접촉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양육행위, 관심과 애정의 표현도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 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⁹⁾ 여기에는 젖을 빠는 행위나 시선과 목소리의 교환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지식’은 성인들의 애정 어린 양육과 돌봄을 통해 아이의 무의식과 육체 속에 각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간 보편적인 발달 단계에 대입되어 대략 만 세 살에서 만 여섯 살 사이의 아이들이 한쪽 부모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껴 그 부모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한편, 다른 쪽 부모에게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성향을 말한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면, 인간은 도덕성, 달리 말하면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며 비로소 아이들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회 문화적 관습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¹⁰⁾ 그러나 작품 속 주인공인 소년 제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될 수 있는 적절한 나이에 엄마의 가출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엄마로부터 박탈감을 느끼고 결핍의 대상을 바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차단당하게 되는 것이다. 제프에게는 오로지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기억과 아버지 때문에 항상 슬퍼하던 엄마만을 기억하며 원망과 두려움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이다.

근대 철학의 시작이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면, 프로이트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이성과 그 ‘의식’의 세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인간 자신을 지배하고 운용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신분석학을 태동시켰다.¹¹⁾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는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서 비롯 되었다. 프로이트는 희곡

『오이디푸스 왕』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관중들을 사로잡은 것은 오이디푸스 같은 부친 살해 욕망과 모자지간의 근친상간 욕망은 곧 무의식에 숨어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 무의식에 숨어 있는 그 강렬한 소망은 두려움 때문에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살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가장 잘 조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라 강조한다.¹²⁾

프로이트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읽고 자기분석을 통한 자신의 정신분석적 현상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인간 발달론적으로 대략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는 남근기(phallic stage)를 거치면서 동성의 부모를 배척하고 이성의 부모를 끌어안으려는 현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단계를 거치기 이전의 아이는 성정체성이 없는 불투명한 존재로 묘사된

8) 김상환·홍준기, 『라깡의 재탄생』, 창비, 2015, p45, 14행

9) 같은 책, p46

10) 박지영, 『좌절된 동성 연대와 모성의 소거 - 탈식민 이후 한국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불)가능성(1960-1970년대) -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2018, p151-152

11) 심재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북대학교,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7, p178

12) 노병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학적 재현 -소설 「은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95, 2018, p192

다. 오직 어머니와

아이의 공생애적 결합관계로 이루어져 자아와 타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나르시시즘적 2자 관계이다. 여기에 아버지가 출현함으로써 나르시시즘적 2자 관계는 아이, 어머니, 아버지로 재편되는 3자 관계가 확립되는 것이다. 남아가 엄마에 대해 가지는 근친상간적 욕망은 그것을 금지하는 아버지의 법을 인식함으로써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 금지법을 위반하는 데 대한 벌은 '거세(castration)'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차이와 구분의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근친상간적 결합관계를 극복한 성정체성을 지닌 주체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¹³⁾ 여기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아이가 받아들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유아는 도착된 유아기의 상태를 고수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게 된다. 거세 위협에 의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면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욕망은 제지되고 아이는 아버지의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초자아를 발달시켜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엄마에게 집중되었던 제프의 삶은 교수인 아버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바쁜 와중에도 제프에게 어느 정도의 애정표현을 했었기에 제프는 엄마에게는 그다지 감정표현을 숨기지 않았었다. 그러나 빈번했던 엄마의 부재로 인해 어린 제프에게 엄마의 사랑이 충분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프는 엄마의 가출 후에도 엄마의 사랑에 집착하고 갈망하는 아이로 남게 된다. 더욱이 아버지는 감정표현이 풍부하거나 어린 제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엄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프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부모의 불화가 엄마를 항상 슬프고 외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제프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저 자신을 보호해 줄 하나의 어른으로 생각했다. 엄마 자신이 제프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더욱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없는 방해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잠복기 동안에 아버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서 해소될 수 있는 콤플렉스의 해소를 막아버림으로써 제프가 엄마의 가출 이후에도 엄마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부정적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따르면 제프가 엄마의 가출을 경험하게 되는 7살 6개월의 나이는 남근기가 종료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잠복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남아들은 어머니를 향한 욕정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심리 성적 발달 시기를 거쳐 일반적인 이성애적 사랑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프는 그 시기를 거치기 전에 강제적으로 어머니와의 이별을 경험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적충동이 남아있는 8살에서 12살의 기간을 엄마의 부재로 실생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아버지와 부정적 관계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세 식구가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와 부모의 불화는 제프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만을 남겨 두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만을 갖게 했다. 그로 인해 제프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다. 그런데 아이의 요구와는 달리 어머니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지 않다. “어머니가 사라진다. 그녀가 다시 온다. 그녀는 없다.

13) 심재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7, p181

14) 정승화, 『근대 남성 주체와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서사와 멜랑콜리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p15-16

마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래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법칙에 따르기라도 하듯 어머니의 부재와 현존의 교대라는 기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¹⁵⁾ 아이는 어머니의 끊임 없는 ‘오고감’, ‘현존과 부재’의 교체를 경험한다. 그리하여 아이는 박탈감 속에서 스스로 묻는다. 왜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는 것일까? 나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엄마는 왜 항상 곁에 있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엄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¹⁶⁾ 라캉은 이를 팔루스(Phallus)로 설명한다. 팔루스(Phallus)란, 주체의 결여·공허감을 채워준다고 가정되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궁극적으로 팔루스는 결여를 채워주는 것의 상징이 아니라 결여자체의 상징이다) 어머니가 원하는 팔루스가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와의 상상적인 이자(二者)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어머니가 욕망하는 팔루스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어머니 역시 아이를 자신의 팔루스라고 생각한다면 아이와 어머니는 상상적 이자관계-근친상간 관계-에 빠져든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제프의 경우 이러한 어머니의 현존과 부재를 교체로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팔루스가 아버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빠져 나와야 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경험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느껴야 할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로 어머니를 남겨 두어야 하고 그것은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 회복에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2.3.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관점으로 본 『제프의 섬』

라캉(Jacques Lacan)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계승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해석함과 더불어 자신만의 이론을 덧붙여 발전시킨 정신분석학자이다.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이 프로이트의 그것과 구분되는 점은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철저히 구조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라캉의 이론은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버지를 내면화해 사랑하고 찬미함으로써 생겨난다. 프로이트의 과학적 신화는 바로 이 점에서 라캉의 구조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해석과 연결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작용하고 있는 아버지는 살아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후에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아버지이다. 현실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으로 존재하는 아버지, 상징적 의미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이다. 그렇다면 오이디푸스 드라마를 통해 주체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는 실제적인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 혹은 인격체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순수한 기능의 구현체로서의 아버지, 요컨대 은유 혹은 기표로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것은 근친상간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일상용어로 말하면 아이로 하여금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하며, 역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아버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아버지도 자신의 아내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근친상간적인, 상상적인 관계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도 근친상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엄마에 대한 지독한 분노와 실망감으로 자신의 내면의 방으로 도망쳐 버린 제프는 일상

15) 김상환·홍준기,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15, p53

16) 위의 책, p53

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제프는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함으로써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싸움은 제프의 일탈로 이어졌다. 학교를 가지 않고 낙제점수를 받은 성적표에 교수님의 사인을 위조해 넣었고 놀이공원에서 혼자 놀다 교수님과 토마스 수사님에게 잡혀간다. 방황하는 제프에게 교수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엄마 멜로디가 자신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제프에게도 제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밝혔고 제프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 이야기 했다. 그 때 제프는 아버지인 교수님에게 자신의 섬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신의 가슴 속이라 이야기했고 교수는 과거 멜로디에게 받았던 끔찍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제프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같은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제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프에게 어떻게 알려줄지 그 방법을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 때서야 제프는 항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엄마의 가출 이후 결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었음을 알았다.

라캉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상상계·상징계·실재계의 구분이다. 상상계는 언어로 편입되거나 매개되기 이전의 주관적 착각과 오인의 질서이고, 상징계는 객관적 언어 혹은 법칙의 질서이며, 실재는 언어적 기록 뒤에 남은 잉여이다. 1930년대 라캉이 거울단계로 지칭되는 상상계의 발견자라면, 1950-60년대의 라캉에게는 상징계가, 1970년대의 라캉에게는 실재가 이론구성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상상계·상징계·실재는 ‘말하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때 반드시 가정해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말 혹은 언어(상징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말해지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즉 무언가가 존재(실재)해야 한다. 셋째, 말해지는 내용 혹은 대상에 고정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상상계).¹⁷⁾ 특히, 상징계는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설명하는 아버지와의 동일시, 곧 아버지의 세계이며 라캉에게는 언어의 세계이며 규범의 세계이고 법의 세계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아버지의 세계와 동일시를 이루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처럼 인간이 아버지의 세계인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세계인 상상계에 머물러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라캉은 상징계를 언어의 세계이면서 법의 세계, 규범의 세계로 규정함으로써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 하였다. 인간의 욕망은 빈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욕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타자의 욕망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을 통해 실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언어의 개입으로 인해 의식의 영역에서 분리해서 구성되는 어떠한 장소인 듯 보인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 온 어린아이의 경우 상징계에서 주체로서 거듭나지만 이는 타자의 욕망으로 가장된 주체이고 아이가 상징계에서 발화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언어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는 이러한 주체적 활동처럼 나타나고, 아이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말하는 것 속에서 말한다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한다.¹⁹⁾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마찬가지로 라캉 또한 정신병에 고유한 메

17) 위의 책, p66,67

18) 위의 책, p126,127

19) 김승철, 「라캉의 무의식과 언어」, Journal of Lacan & Contemporary Psychoanalysis, Vol.9

커니즘을 ‘아버지의 배척’, ‘아버지 이름’의 배척(Verwerfung, forclusion)이라고 부른다. 상징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배척하고 어머니 곁에 남음으로써 그것이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배척한다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정신병리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라캉으로 옮겨지면 아버지의 세계인 상징계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어머니의 세계인 상상계에 머문다는 의미이고 이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같은 부분이다. 이에 덧붙여 라캉은 원초적 억압을 상징적 질서 자체의 성립, 상징적 질서에 대한 절대적 긍정으로 재해석한다. 상징적 질서 속에는 표현될 수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라캉에게서 원초적 억압이란 발생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적 의미의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질서라는 구조 자체이다. 억압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억압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주체의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억압된다는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 질서는 표현될 수 없음, 부재의 조건 아래에서 혹은 부정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이다. 상징계는 순수한 부재나 현존이 아니다. 그것은 부재/부정의 기반위에서 형성된 현존/긍정의 구조이다.²⁰⁾

라캉은 그의 저서 『에크리』에서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제로 프로이트가 이 의미에서 억압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억압은 원초적 상징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드러났어야 했다고 이야기한다.²¹⁾ 라캉이 이야기한 어머니의 세계인 상상계, 아버지의 세계인 상징계에 정작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계와 상징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 있는 ‘나’ 또는 ‘세계’는 하나의 이해방식이고 표현방식이지 그것이 실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²²⁾ 그러나 라캉은 실재에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라캉 후기 구조화된 언어로 이루어진 무의식에 대한 연구 이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무의식에 대한 이해에 따른 개념이 ‘실재’라는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²³⁾ 인간이 언어의 세계인 상징계로 진입할 때 그것은 타자의 욕망이라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실재에서 찾고자 하였고 그 실재가 결국 무의식인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언어화된 공간이 아닌 잉여의 공간이므로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기 위해서 실재를 언어화하여 상징계로 올려줘야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애도이론을 살펴보면 대상의 상실 이후 대체할 리비도가 없이 그 리비도가 자신을 향해 동일시하면 우울증과 같은 병리현상을 보일 수 있고 애도작업을 완성 할 수 없다²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캉의 실재에서 언어화되어 표현될 수 있으면 내면의 무의식을 대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실재에 계속해서 남아 억압의 형태로 남아있으면 정신병적 병리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내담자의 무의식의 대면, 즉 내담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발화들이 곧 무의식의 대면이고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라캉은 그의 저서 『에크리』에서 ‘주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다. 그것은 발화주체 즉, 내담자를 이야기하고 내담자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발화주체가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는 것을 진리를 대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²⁵⁾ 라캉은

No.1 Summer 2007, p305

20) 김상환·홍준기, 『라캉의 재탄생』, (주)창비, 2015, p121

21) Lacan, Jacques, 『에크리』, 홍준기 외 3인 옮김, 새물결, 2021, p38

22) altazor, 「기적수업」, 2020. 2. 18. Naver blog

23) 박찬부, 「무의식과 라캉의 실재 개념」,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5권 1호, 2013, p117

24) Freud, Sigmund,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4, p245

25) <https://youtu.be/9LCdleT7au8> 참조

세미나 17의 3강에서 “무의식은 일인칭으로 발화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큰 사물이 말한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에서 큰 사물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에서 실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른 곳에서 나는 이렇게 언명한 바 있는데요... 진리는, ” 내가 말한다“ : ”나 진리는, 나는 말 한다.”²⁶⁾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진리에 의해 소환된 주체를 말한다. 그것은 의식적 현실에서의 연속성과 관계없는 단절의 ‘나’, 주체다. 이처럼 진리가 일인칭의 주체로서 발화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아주 오래전 일이다. 이러한 진리개념은 니체의 관점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니체는 관점주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통 형이상학이 지닌 본질주의에 반기를 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고전적 원근법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보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리 개념에 반대하였다.²⁷⁾ 이는 라캉의 진리주체와 마찬가지로 진리란 하나의 형이상학적이고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진리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의식의 대면 혹은 진리 주체로서의 진리와의 만남이 언어로 표현되어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담자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실체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했던 상황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 실체에 다가서면 그것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석가나 상담가의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답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고 진리를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인문치료에서도 추구하는 방법이고 이에 인문상담사와 인문치료의 매개물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4. 제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해소의 계기

엄마의 가출 이후 제프의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인다. 어린 제프가 집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제프를 돌보기 위해 대학원생을 고용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엄마의 가출 4년 후, 해마다 집안일을 돌봐 주는 대학원생들이 바뀌고 마지막에 토마스 수사님이 제프를 돌보게 되는데 어느 날 제프는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며 아프게 된다. 그러나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앓고 있는 제프를 토마스 수사가 발견하게 되고 교수인 아버지에게 제프의 주치위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프의 주치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결국 그 일로 엄마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제프는 엄마를 보기 위해 찰스턴을 방문하게 된다. 제프는 총 세 번에 걸쳐 찰스턴의 엄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교수인 아버지가 왕복 비행기 티켓 값과 찰스턴에서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제프는 수속을 다 마친 후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동안 배웅 나온 아버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 엄마가 가출한 날 아버지는 제프에게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했고 제프도 그 의견에 동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것이 제프의 마음을 대변한 것은 아

26)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VII』, Translated by Cormac Gallagher from unedited french manuscripts with an eye to the official publish version, Wednesday 17 December 1969, <https://youtu.be/9LCdleT7au8> 재인용

27) 김선희 외, 『인문치료의 이론과 원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산책, 2011, p85

니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언제나 슬퍼했던 것 등이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자신은 엄마에게 속해있다는 마음은 제프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엄마를 처음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존재는 제프에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엄마와의 첫 만남은 제프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자기중심적이며 겉으로만 사랑한다는 표현에 익숙한 엄마는 제프의 결핍을 결코 채워줄 수 없었다. 엄마와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볼티모어로 돌아오는 길에 제프는 자신이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고 두 지역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엄마와 아빠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택할 대상을 또렷이 떠올렸고 엄마의 이름을 마지막이 부르면서 여전히 엄마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아버지와 토마스 수사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유머러스한 뉘앙스를 느끼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의 변화에 엄마가 있음을 감지했다. 엄마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박탈감을 경험하고 온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엄마와의 첫 만남 이후 제프는 엄마만을 생각하느라 성적도 더 떨어지게 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와의 첫 만남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것은 엄마를 더욱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편지나 카드도 자주 보내고 기타를 치던 엄마 모습을 떠올리며 교수님과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엄마에게서는 어떠한 답장도 없었고 제프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엄마를 다시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즈음 교수님은 제프에게 제프가 그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하고 힘들어 하는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제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던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변화였다. 그리곤 제프가 원하는 기타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하게 된다. 제프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아버지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기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제프의 뜻뜻미지근한 반응에 제프가 그 선물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노라 하였다. 이에 제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둘은 어색한 공감을 표하게 된다. 이것은 엄마와의 만남 이후 제프와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제프 또한 자신을 돌봐주는 한 어른으로써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교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엄마를 방문하게 되는 제프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중을 나온 엄마를 만나게 되고 세 사람의 점심 값을 제프가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제프를 홀로 둔 채 엄마는 한 달 가량의 여행을 떠난다. 증조 외할머니와 다른 두 이모할머니와의 생활에서 제프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엄마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한 달여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다시 5주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프가 있어서 할머니들을 돌보아 줘서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에 제프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점차 엄마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를 잃은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된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던 제프는 버스여행을 하게 되고 어떤 섬이 보이는 곳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곤 그 곳에서 충동적으로 작은 보트를 구입하게 된다. 제프는 그 보트의 노를 저어 늪지 속에 있는 작은 섬을 둘러본다.

“제프가 보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밀려드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낯선 풍경 때문

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들을 정도로 멀리 나왔기 때문에 드는 두려움이었다. 수영을 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제프는 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외부에서 파고드는 두려움에 빠져들면 내면에 들어박힌 두려움을 분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면의 두려움은 시시각각으로 제프를 집어삼켜서 산산조각으로 만들려고 위협하는 중이었다.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서 보트를 몰고 멀리 나가는 것밖에 없었다.”²⁸⁾

제프는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엄마로부터 완벽히 버려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상실감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프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후 제프는 엄마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숨겨왔던 감정을 마음껏 드러냈다. 엄마는 다시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제프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제프는 사랑한다면 곁에 있어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엄마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 반박한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냈으니 더 이상 화날 일도 없을 것 같았지만 엄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음을 제프는 알고 있었다. 제프에게 있어 보트를 타고 탐험했던 그 자그마한 섬은 내면의 방이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외로운 모래사장, 드넓은 평화의 공간이 높은 방 안에 펼쳐졌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다. 내면의 방이 없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내면의 방이 없다면 자신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다. 제프한테는 내면의 방을 지키는 게 유일한 목표였다.”²⁹⁾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히 그 주체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프로이트는 애정과 열정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는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려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억압하지 않고 전부 제거하고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콤플렉스를 억압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더 이상 무의식에 남겨 두지 않고 없애버린다면 성인기에 성적인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지만 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³⁰⁾ 현대 정신분석학자 오토 쾨버그는 자신의 내담자 중에 “오이디푸스적인 요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환자를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³¹⁾고 단언한다. 그 정도로 오이디푸스에 의해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저서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에 잘 드러나 있다. 임상심리학자 마이클 칸 박사 또한 이성 부모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긍정적으로 해소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유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딸의 여성적 매력을 사랑스럽게 인정해 줘야 하고 어머니 역시 아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 줘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들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딸은 어머니보다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더 매력적이고 관심을 끄는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³²⁾ 따라서 본 작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프의 아버지가 냉철하고 지극히 이성적

28) Voigt Cynthia, 『제프의 섬』, 김옥수 옮김, 김상인 그림, 와이즈 아이, 2008, p175

29) 같은 책, p195-196

30) Kahn Michael, 『21세기 다시 읽는 프로이트 심리학』, 안창일, 학지사, 2008, 103쪽 재인용

31) Kernberg Otto F,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이재훈,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32) 같은 책, 102쪽 재인용

이어서 감성적으로 상대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알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제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본 작품에서 제프의 부모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로 등장한다. 그러나 엄마인 멜로디의 경우 마지막까지 그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경험하는 제프에게 아버지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한다. 즉, 아버지의 위력에 대해 가졌던 남자아이의 콤플렉스는 자신이 아버지와 유사해짐으로써 해소된다. 이러한 동일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의미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위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범의 담지자이며, 이러한 규범은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남자아이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기 때문이다.³³⁾ 아버지와 오랜 대화 끝에 제프는 교수님을 믿어도 된다고 확신하게 된다. 제프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한 교수님은 제프에게 학교를 쉬게 하고 이사를 결정한다. 제프가 보트를 타고 갔던 섬과 비슷한 조용한 환경의 집이었다. 그 곳은 제프가 섬에서 보았던 파란왜가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고 교수님은 제프에게 그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을 알았다. 교수님은 제프의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고 생각한 그 섬과 비슷한 외지고 평화로운 섬 같은 곳에 정착을 결정한 것이다. 지극히 폭력적인 형태의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제프와 아버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주고 있었다. 제프는 점차 자신의 제대로 된 인생을 찾아가고 있고 친구도 사귀면서 안정감을 찾아 가고 있었다. 마지막 엄마와의 재회가 가장 끔찍한 기억을 갖게 만들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와 더불어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가족으로 소개함으로써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작품이 끝날 때까지 제프는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라캉이 이야기한 실재계의 언어화는 실제로 발화되는 의미라기보다는 제프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언어를 상징화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미 제프의 결핍은 어느 정도 실재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거기에 아버지와 동일시 및 신뢰가 깔려있는 것이다.

제프의 아버지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신이 전처인 멜로디에게서 받았던 커다란 상처를 아들인 제프가 똑같이 겪었다는 부분이었다. 그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프를 지켜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복하고 제프로 하여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제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는 그 과정에 있으며 세 번의 엄마와의 만남은 엄마와의 완벽한 단절을 가져왔으나 이제부터 전적인 신뢰의 관계에 들어서게 된 아버지와 관계는 점차 그 내실을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 다소 폭력적인 경험을 한 제프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3. 『제프의 섬』을 활용한 인문치료 사례연구

3.1. 내담자 정보

내담자는 50대 초반의 기혼여성으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지내는 전업주부이다. 4년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단기알바를 병행하며 생활

33) Freud, Sigmund.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20, p428

하고 있다.

3.2. 내담자의 주 호소사항

내담자는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인관계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항상 부족하며 머리도 나쁘고 무슨 일을 시작해서 끝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간단한 요구사항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한심스런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한다.

3.3. 『제프의 섬』의 상담 방법

상담은 주 1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내담자의 요구로 구글의 MEET라는 영상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내담자의 선택이었고 대면하여 책을 직접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두 시간씩 할 것인지 미리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한 시간의 상담시간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여 내담자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의 집 소파나 침실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상담에 임하였다.

3.4. 인문치료 매개물

신시아 보이트의 『제프의 섬』과 Jean Clandinin의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³⁴⁾을 활용하였다.

3.5. 상담 프로그램

<표 1> 내면의 방을 찾아가는 여정

회 차	내 용	발 문	내담자 이야기	분 석
사전만남	서약서 작성, 작품전달	상호 소개하기	인문치료 소개, 상담방법 소개, 간단한 자기 소개	
1	『제프의 섬』 Chapter 1, 2	책 표지에 대한 느낌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내용 중 가장 불편한 부분은? 등 등	아이를 버리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이해되지 않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내담자
2	Chapter 3, 4	현재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매일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등 등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감정 이야기 하기	내담자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서 느꼈던 상담사의 호기심
3	Chapter 5, 6	과거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등 등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자신의 감정 표현	내담자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
4	Chapter 7, 8	특히 맘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등 등	제프의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제프의 섬에 대한 느낌	자신의 내면의 힘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내담자

34) Clandinin, Jean,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엄지숙·강현석·박세원·조덕주·조인숙 공역, 교육과학사, 2015

5	Chapter 9, 10	제프의 친구관계는 어떻게 보이세요? 제프 아버지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등 등	제프가 마음 속에 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부러웠다 말하는 내담자	등장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조력자들을 추려내는 내담자
6	Chapter 11,12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책을 읽으며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신의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지은 내담자	내담자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조금씩 세상을 향해 자신을 보이는 내담자

3.6. 상담 내용

① 자기소개 및 작품 속 섬에 대한 이해

회기가 시작되기 전 사전만남에서 내담자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자기소개는 1회기에 있었다. 첫 전문대에서 요리를 전공했던 이야기, 요리학과를 나오면 바로 요리사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일이 너무 힘들어 포기한 이야기를 하며 후에 마을금고에 들어가 일을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 셋을 출산하고 방송대 편입한 이야기, 그렇게 10 여 년간 공부를 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첨가하였다. 후에 거주지 근처의 대학 철학과에 편입하여 4년 만에 졸업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였다. 그 오랜 시간 공부하시고 살림하시고 아이들 키우는 일 등이 대단하시다는 상담사의 말에 “그게 뭐 대단해요? 한심하지. 내가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역시나 천성인가? 가서 앉아서 맨날 뒤에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지? 어영부영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후회!! 후회를 막 그러다보면 나를 막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5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부분에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결국 현재에도 공부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냉혹한 평가는 본 상담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늘 자신감이 없었고 존재감도 없었으며 공부도 못했고 친구도 없었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 자녀들에 대한 감정도 드러내었다. “내가 너무 기가 죽고 자신감도 없고 애들도 나 닮아서 나처럼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지?”하는 감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보였다.

『제프의 섬』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은 “제목이 제프의 섬이잖아요. 전 제가 섬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지를 못하고 섬처럼 떨어져서있는 혹은 큰 대문을 열고 막 가야하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 하면요. 나만의 철옹성 같은 두꺼운 벽을 천지사방에 해 놓고 쪼그만 창을 하나 만들어놓고 사람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라고 친구가 그랬거든요.”라는 이야기를 통해 작품과 자신의 입장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면서 자신이 무슨 일든 시작을 해도 끝을 본 게 없었으나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끝을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 이야기 하였다. 이는 처음에 친구도 없었다고 이야기한 부분과 상충되는 이야기로 작품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 자신의 기억들을 소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회기는 『제프의 섬』 2장에서 제프의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간 후의 첫 만남에서 제프에게 식사비를 내게 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커다란 혐오감과 함께 제프의 인생이 말 그대로 섬 같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주도 같은 섬도 아니고 독도 같은 섬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담자 자신이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일을 시작하고 끝을 보지 못한다는 자기분석과

함께 부담감이 컸던 상담을 한 번 받아 본 후 부담감이 완화되고 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기쁨을 드러내며 회기를 마쳤다.

② 아이들과의 외출과 작품 속 '파리'에 대한 동일시

2회기에서는 지난주의 안부 인사를 간단히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였다. 내담자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한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그 이유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신의 가정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와 닿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2회기에서는 아이들과 경험한 ‘체험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었고 막내가 5살 무렵부터 아이 셋을 데리고 전국의 체험활동을 많이 다녔다고 이야기하였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그 순간만을 기다렸으며 무언가를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남편과 남편의 밥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내담자가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밥이라는 남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이들과의 외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말의 외출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불가능했던 내담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 집에서 아이들에게 걷기 운동까지 시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상을 받기도 하고 매주 반복되다보니 현재는 가끔 남편이 차를 이용하여 도와주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였다. 결혼 전에도 이런 여행을 좋아했었느냐는 상담사의 질문에 내담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에 알게 된 지인과의 여행을 통해 여행과 등산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와 평소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어서 응모하게 된 각종 경품행사를 통한 사은품의 취득 등이 생활의 활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여행에서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부부를 통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꿈을 갖게 되었으나 남편의 호응이 없었으므로 내담자 혼자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다.

본 회기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무슨 일이든 그냥 받아들였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러한 내담자의 성격은 자라서까지 지속되었고 어떠한 부당한 대우에도 그저 아무런 반응 없이 지냈음을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본문에 나오는 ‘파리’³⁵⁾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애들이 제프를 귀찮아하는 존재였다고, 애들이 축구 같은 것도 시켜주지 않고 자기는 파리 같은 파리에다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와 닿는 거예요. 어떻게 파리에 비유할 수 있지? 파리가 오면 쫓아야하고 그래서 나도 파리 같은 존재가 이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담자 자신이 제프의 입장에 동일시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환경이 그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님의 다툼과 그 안에서 방치되었던 자신이 파리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모님 중 누구도 어린 자신의 감정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담자 자신도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보다’하며 체념한 부분도 있었음을 드러내었다. 10년 이상 등산을 같이 한 지인에 이야기가 계속 되었고 어느 날 그 지인의 부당함에 맞선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결혼 이후의 이야기이고 편지를 통해 지인에게 부당함을 어필했던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화났을 때 글을 쓰면 비수가 꽂히도록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편지를 내가 쓴대요 ㅎㅎ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분노가 폭발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상담사로 하여금 내담자의 내면의 방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였고 차후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내면의 방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35) Voigt, Cynthia, 『제프의 섬』, 김옥수 옮김, 와이즈아이, 2009, p132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③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내담자

3회기에서는 제프의 엄마가 이상하다는 내담자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엄마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리고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원래 딸을 낳고 싶었다고. 이미 생긴 애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자기한테는 막 치장하면서 아이한테는 뭘 자꾸 요구하고요. 이기적인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자연스럽게 내담자 주변의 다른 엄마들과 내담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내담자는 자신의 친구 중에 제프 엄마보다 더 심한 엄마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는 이렇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항상 화만 내던 엄마였지만 돈 문제에서만큼은 그저 주려고만 했던 엄마였다는 것이다. 엄마의 자라온 환경이 엄마의 우울감을 더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준 것일 뿐 그렇게 나쁜 엄마는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엄마의 태도가 형제들에게 다 그랬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큰 언니와 자신을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표정이 달랐던 것을 인지했다고 하였다. 엄마의 얼굴이 해바라기 같다고 느낀 때가 처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 자신은 엄마에게 어떠한 노여움이나 분노는 없었으며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순한 성격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내담자의 천성이 주변인들이나 내담자 자신에게도 분노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결혼 후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과는 다르게 키우고 싶었으나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에서 화만 내던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알콜 의존증이 높았던 아버지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었던 엄마의 모습이 현재의 삶이 어려운 내담자에게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결혼 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친정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알콜 의존증이 심했으며 친정아버지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폭력성향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내담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결혼 초반에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주사가 사업실패로 인해 시작되면서 내담자의 삶은 더욱 힘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상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의문을 표했던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④ 작품 내용을 통한 동일시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내담자

4회기에서 내담자는 『제프의 섬』을 통해 점차 제프 아버지의 심리적 변화를 인지하였다. “좀 최고는 아니지만 밑에 잔잔하게 아들을 사랑하는 느낌이 남달랐고 지난번에 섬에 갔을 때 엄마와의 대화내용과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제프도 엄마한테는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아빠한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은 자기 마음속에 섬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딱 잠가놓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문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져버린 느낌 그런 거를 좀 받았어요.” 본 회기에서 내담자는 제프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대단한 거 같아요.”라는 자신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의 일환으로 내담자의 모든 발화를 필사하여 제시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믿고 강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힘으로 생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상담 초기에 상담사가 가졌던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무언가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자 거기에 대항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친정엄마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그냥 가!”라는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해 내고 그때의 상황이 친정엄마가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욕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능력하고 항상 술에 취해있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욕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 것이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드러낸 것이다. 자신은 아이들 앞이 아니었다면 엄마와 함께 남편 흉을 보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함께 산에 다니던 지인에게 모진 편지를 쓰게 된 것도 결혼 이후의 일이었으며 시가 식구들에게는 4-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의 자신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바란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자신의 노력에 따른 반항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내가 대단한 거 같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현재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문치료(독서치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무의식과 그것을 인지해 가는 과정을 통해 치유의 과정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내담자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읽었던 『제프의 섬』 7장 부분을 언급하며 상담이 시작되었다. “7장에서 제프가 마음속에 자기 나뭇의 섬을 만들어 놓고 잠가놓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나 수사님이 말을 걸때도 마음 속 문을 딱 잠가놓으면 심리적 안정으로 느끼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이 사라진다고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가고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써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문을 보면서 시적인 영감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우리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은 버리지 않고 열심히 키우셨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남편은 풀 보기 싫어도 애들은 예쁘잖아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 인생에서 제프 아버지 같은 분이 있었느냐 질문을 했다.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몇 명하고 오래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한창 신랑하고 힘들 때 둘째 언니가 새벽이고 뭐고 전화하면 받아주니까 언니한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언니들이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그랬던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내담자 스스로 어려서부터 별 감정적 영향 없이 조용히 지냈다고 하였지만 내담자의 무의식에서는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 제프의 마음속에 있던 섬을 자신도 만들었어야 했다는 의미는 아주 어렸을 때는 형제들도 서로 돕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살피주는 존재의 의미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 내담자는 특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를 못하는데 그것을 해봤다면 자신을 대견해 하는 모습도 보였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소소히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요구를 했고 흔쾌히 그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것이었다. 상담 도중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동안은 그게 힘들었을까요?”하면 상담사에게 되물었다. 이에 상담사는 “원래 선생님 내면에 힘을 가지고 계셨던 거 같은데 잘 모르셨나봐요.”라고 대답해 주었다. 또한 사사로운 작은 요구들이 수용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있던 광기어린 반응은 점차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 대답해 주었다. 이에 내담자는 인문치료를 통해 조금씩 용기를 얻고 있는 것 같으며 즐거워하였다. 다른 어떠한 해결책보다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내담자 스스로 용기를 얻고 자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였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내면의 방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⑥ 자신이 주저했던 이야기를 드러낸 내담자

마지막 회기에서 내담자는 그 동안 이야기 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시간도 없고 굳이 말하기가 뭐하다는 표현으로 저항을 느끼던 부분에서도 많은 발화가 있었다. 이는 상담사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경험한 편안함을 이유로 꼽았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이야기를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불안감을 내비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다는 부분에서 인문치료의 치유과정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음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었다. 상담 초반에서부터 보였던 부담감과 작품에 대한 집중도의 부족으로 책 내용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작품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감정이입도 훨씬 많아졌다. 『제프의 섬』의 마지막 부분인 Chapter 11과 12는 앞의 부분보다 상당부분 짧은 분량임에도 제프 부모의 이혼과 마지막까지 제프에게 상처를 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마음과 다른 아이들의 태도나 행동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가족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의지를 피력했고 그 동안 인문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했던 가정폭력상담사로서의 공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 공부과정에서 함께 한 인문치료는 자신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경험을 나누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애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던 업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 동기로 인문치료를 언급하였다. 이는 콘텐츠가 주는 효용성과 더불어 상담사와의 상담에서 내담자 스스로 자아성찰을 이루어 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 활용된 『제프의 섬』을 통해 50대 중년여성의 내면의 힘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라강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에서 실재계인 언어화되지 못한 무의식 안에서 내담자의 힘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타자의 욕망으로 인한 알 수 없는 주체의 결핍을 실재계 안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평소 자신감 없고 무엇 하나 끝을 내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젖어있는 50대 여성 내담자는 『제프의 섬』이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가감 없이 모두 드러낼 수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내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에 의문을 가졌던 상담사는 내담자의 내면에서 ‘내 자신이 대단한 거 같다’고 이야기 한 내담자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담자의 생을 이끌어 가는 커다란 힘이며 의식하지 못한 내면의 힘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애정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의 분노표출의 원인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의식하지 못했던 긍정의 힘과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내담자의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으면서 내담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담자가 이야기한 섬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방에서

스스로 그 힘을 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힘은 일상생활에도 이어져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 이는 결국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가정폭력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따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고 향후 대학원 수업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내담자 스스로 진단하였다.

상담사는 보다 내실 있는 무의식으로서의 접근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에서 적용하는 글쓰기 부분을 활용하였다. Jean Clandinin은 그의 저서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에서 내담자의 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하면서 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상담시의 감정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방식을 취했다.³⁶⁾ 이는 내담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상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사된 자료를 내담자에게 다시 읽게 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의식에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상담에서는 내담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다. 첫 두 회기의 녹음파일을 요구하여 보내주었고 이후의 전사된 자료는 상담사가 확인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4회기의 '내 자신이 대단한 거 같다.'라는 발화를 확인하여 전달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이 그러한 발화를 하였다는 부분에서 놀라며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이 어떠한가를 체감할 수 있는 커다란 성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라깡이 이야기한 내담자 자신의 발화자체가 치유의 작용을 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자신이 어떤 발화를 하였는지 의식할 수 있다면 그 치유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활용한 인문치료와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내담자의 발화를 확인시켜 주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인문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 안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대면 상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상태에서 상담을 지속하다 보니 콘텐츠 내용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변화를 살피며 내담자의 심리변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편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십분 발휘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했다. 이는 차후에 있을 상담은 가급적 대면으로 만나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콘텐츠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더욱 충분한 상담효과를 올릴 것을 기대해 본다.

36) Jean Clandinin,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염지숙·강현석·박세원·조덕주·조인숙 공역, 교육과학사, 2013, p154

참고문헌

- 김상환·홍준기,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15
- 김서영, 「사랑의 방식들: 두 종류의 실제적 사랑」, 동국대학교, 한국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학회 정기학술 세미나, 2008
- 김선희 외, 『인문치료의 이론과 원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산책, 2011
- 김승철, 「라캉의 무의식과 언어」, Journal of Lacan & Contemporary Psychoanalysis vol.9, No.1, Summer, 2007
- 노병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학적 재현 -소설 「은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2018
- 박지영, 『좌절된 동성 연대와 모성의 소거-탈식민 이후 한국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불)가능성(1960-1970년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8
- 박찬부, 「무의식과 라캉의 실제 개념」,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5권, 1호, 2013
- 신정숙,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학적 변형과 위장』, 국제어문, 2015
- 심재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한철학회, 2017
- 장선영, 「『햄릿』의 애도와 우울증 분석」, 한국세익스피어학회, 2008, 세익스피어 비평, vol.44, No.3
- 정승학, 『근대 남성 주체와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서사와 멜랑콜리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2
- Clandinin. J.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염지숙·강현석·박세원·조덕주·조인숙 공역, 교육과학사, 2013
- Freud. S.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20
- Kahn. M. 『21세기 다시 읽는 프로이트 심리학』, 안창일, 학지사, 2008
- Kernberg, Otto F.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이재훈,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 Lacan, Jacques, 『에크리』, 홍준기 외 3인 옮김, 새물결, 2021
-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VII』, Translated by Cormac Gallagher from unedited french manuscripts with an eye to the official publish version, Wednesday 17 December 1969 Voigt. C. 『제프의 섬』, 와이즈아이, 2009
- 『A solitary blue』, Atheneum, 2012
- 블로그
- altazor, 「기적수업」, 2020. 2. 18. Naver blog
<http://youtu.be/9LCdleT7au8>

1. 서론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으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정의정, 2012).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노년기에는 죽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인생의 남은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이전 세대의 노인들보다 건강과 경제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년기를 편안하고 질병 없이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노년기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할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안경숙, 2005).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인식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좋은 죽음(well-dying)’을 위한 삶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임송자 외, 2012) ‘좋은 죽음’ 곧 ‘well-dying’을 준비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년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임효남, 2019).

Erikson(1998)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를 통한 과정으로 생물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해당하는 발달 과업은 자아통합(ego-integrity)의 단계라고 하였다. 자아통합에 이른다 것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와 그 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다(양정훈, 2015). Erikson(1997)은 기대수명이 길어진 현대의 노년기에 죽음을 잘 수용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9단계의 발달 과업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를 ‘노년의 초월(gerotranscendence)’의 단계로 제안하였다(Erikson & Erikson, 1998). 이 시기에는 시공간을 넘어 신체와 마음, 영혼이 통합되는 자기통합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장민희, 2019). 다시 말해, ‘노년초월’의 단계에서 말하는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의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와도 맞닿아 있다(양정훈, 2015).

죽음에 관한 초기 연구는 의학이나 종교학 분야에서 노인대상이나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나 인식 연구들(김태현, 손양숙, 1984; Swenson, 1961)이 주로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 삶과 죽음의 성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지만, 어떻게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노년의 질 높은 삶의 추구는 노년층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정희, 한종숙, 2002; 오진숙, 2007)는 연구결과가 노인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건강지향 행동이 웰다잉에 관계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년기의 좋은 죽음(well-dying)은 단순히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전의 노년기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웰다잉에 관한 국내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웰다잉의 개념 및 의미연구 주제가 전체 연구의 32.4%에 해당하여 웰다잉이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김건양 외, 2020). ‘좋은 죽음’에 대한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분석(민들레·조은희, 201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명숙·김윤정, 2013) 연구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는 방식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여, 최근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well-dying)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년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과 향후 노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노인

노인은 일반적으로 연령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퇴화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 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활동이 감소되고, 질병으로 인한 신진대사 능력과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신체적 노화와 함께 인지기능의 감퇴와 심리적 무력감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허진강, 2005). 노인들은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퇴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된다.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노년기의 삶 자체가 불안해 지고 불만족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안황란, 1999).

의과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202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게 되는 기간이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하여(통계청, 2022)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한국의 노인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극복과 성공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김정미, 2022).

2. 좋은 죽음(well-dying)

Erikson(1997)은 기대수명이 길어진 현대의 노년기에 죽음을 잘 수용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9단계의 발달 과업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시공간을 넘어 신체와 마음, 영혼이 통합되는 자기통합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장민희, 2019). 이 시기를 Erikson &

Erikson(1997)은 ‘노년의 초월(gerotranscendence)’의 단계로 제안하였다. 일생을 통해 축적된 자아의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견해로 죽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심리적 안녕의 상태를 ‘노년 초월’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임현숙, 유재순, 2020; 박명신, 2019).

‘노년초월’은 스웨덴의 노년학자인 Tornstam(1994)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Erikson이 기존의 8단계였던 심리발달 이론에서 제9단계를 추가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Erikson & Erikson이 말하는 노년초월은 노년기의 현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Tornstam의 노년초월 이론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Erikson and Erikson, 1997). Tornstam(2005)에 따르면 노년초월은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발적인 자기초월의 과정으로 사회적인 개념의 자기(self)에게 의존하는 것이 덜해지게 되고,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새로운 인생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ornstam에 의하면 노년초월은 중년기를 걸쳐 노년후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나타나며, 노년기를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고 죽음불안(Death Anxiety)이 낮아지는 시기로 보고 있다(윤민석, 2012).

좋은 죽음(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인생의 정리를 통해 죽음을 수용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김수진, 2016), 미래에 다가올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진, 2016). 이러한 과정은 Erikson & Erikson(1997)과 Tornstam(1994)의 이론인 ‘노년초월’의 단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의 유한한 삶을 자각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곧 ‘좋은 죽음(well-dying)’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혜경, 2017).

최근 들어 죽음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주제에서 ‘well-dying’ 또는 ‘좋은 죽음’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건강한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전환과 더불어 ‘좋은 죽음’은 노인들의 소망 중의 하나가 되었다(이명숙·김윤정, 2013). ‘좋은 죽음’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안정성과 통제력 상실에 따른 두려움이 적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김현정, 2019). 죽음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하는 것이 ‘노년초월’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초월’의 삶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건, 2013).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미래에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진, 2016). 이 과정은 에릭슨&에릭슨(1997)과 토르스탐(1994)의 이론인 ‘제로 초월’의 단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삶의 유한한 삶을 자각하면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웰다잉’(이혜경, 2017)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웰다잉’이나 ‘착한 죽음’이라는 말과 함께 죽음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담스러운 주제에서 ‘웰다잉’ 또는 ‘착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바뀌면서 건강한 죽음과 선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노년기 죽음으로의 긍정적 전환과 함께 ‘좋은 죽음’은 노인들의 소망 중 하나가 되었다(이명숙, 김윤정, 2013). ‘착한 죽음’이란 신체적·심리적 안정과 통제력 상실로 두려움이 적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김현정, 2019). 이렇게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초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 노년'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건, 2013).(상단의 내용을 영문수정하여 번역한 단락)

III. 연구방법

1. 질적 메타분석

질적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환기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질적연구는 사회 참여적이며, 대안적 지향점을 추구한다(김영순 외, 2018). 그러나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것은 어렵다(이승호, 2016). 질적 메타분석은 비슷한 주제의 여러 개별 질적 연구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나장함, 2008) 일반화가 어려운 질적 연구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질적 메타분석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통 요소와 개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러한 요소를 다시 개념화하는 작업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최수안 외, 2021). 질적 메타분석은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질적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와 관련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와 연구 방향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이승호, 박대권, 2016).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노블릿과 헤어(Noblit & Hare, 1988)가 7단계를 고안한 이후 연구자들이 절차를 변형하여 사용해왔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절차는 연구문제 설정, 연구물 선정, 연구물 비교 분석, 종합 및 해석, 결과물 표현 등이다(이정숙, 2017: 388). 나장함(2008)은 질적 메타분석의 방법과 절차에는 유연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질적 메타분석 절차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하였다. 전반부는 질적 메타분석 관련 방법론들이 보편적으로 유사한 과정으로 수행이 되고, 후반부에서 개별 방법론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 이때 전반부는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물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하고, 후반부는 연구대상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자료 분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봉, 2020). 본 연구는 최수안 외(2021)과 나장함(2008), 김민채 외(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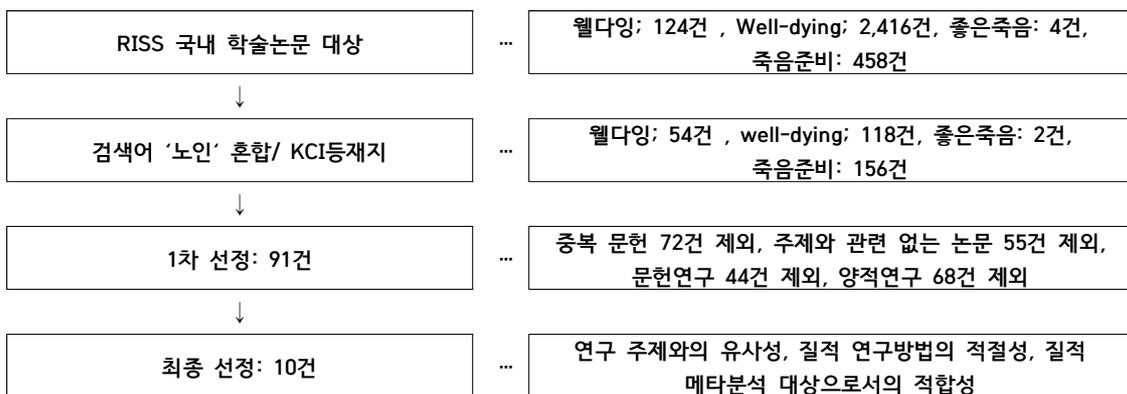
질적 메타분석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관심 영역을 적절한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연구의 초점 범위를 너무 넓거나 좁게 설정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될 경우에는 연구물들을 피상적으로 다루게 되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연구가 타당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특정 연구 주제와 영역을 다루는 질적 연구물들과 개별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관계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해석을 통한 이론 생성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시작단계부터 적절한 연구 범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Walsh and Kowne, 2004). 질적 메타분석에서 연구물의 질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나장함, 2008) 본 연구에서는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문헌으로

만 한정하여 연구물의 질적 평가를 대체하였다. ④-⑥은 자료분석의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개별 연구물에 대한 분석을 1차로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물의 해체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⑤의미단위를 추출하여 개별 연구물의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⑥ 연구 결과 종합 및 해석에서는 실행과정 5단계에서 도출된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한 해석내용을 분석틀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최수안·김영순, 2021). 포함과 배제의 준거는 우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인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포함된 연구인지를 확인한 후 면담과 현장 관찰 사례가 포함되지 않고 문헌연구로 수행되어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정혜영, 2021)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 Noblit과 Hare(1988), Walsh & Downe(2005)가 제시하고 나장함(2008)이 정리한 질적 메타분석의 실행 단계를 참조하여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단계별 메타분석 실행과정은 <표 1>과 같다(전현정 외, 2021).

<표 1> 질적 메타분석 실행과정

단계	구분	내용
1	연구문제 및 주제 설정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 인식)”
2	관련 연구물 수집 및 선정	RISS 국내 학술지 대상 문헌 검색
3	포함 및 배제기준 적용	연구주제 및 방법의 적합성 확인
4	개별 연구물의 해체와 분석	범주화 및 분석
5	개별 연구물 분석틀 도출	의미 단위 추출 및 감수
6	연구 결과 종합 및 해석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 인식의 재구성

<표 1>에 의거하여 단계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연구물 수집 및 선정을 위한 문헌 검색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헌 검색 흐름도

본 연구에서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의 선정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는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학술정보연구원(RISS)를 통해 2022년 7월27일까지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한 직질 연구물 검색을 실시하였다. 1차 검색에서는 연구물

의 발표 연도 설정 없이 ‘웰다잉’, ‘well-dying’, ‘좋은 죽음’, ‘죽음 준비’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국내 KCI등재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웰다잉’ 124건, ‘well-dying’ 2,416건, ‘좋은죽음’ 4건, ‘죽음준비’ 458건이 도출되었다. 1차 검색 결과를 대상으로 ‘노인’을 결과 내 키워드 검색을 하였다. 검색결과 웰다잉 54건, well-dying 118건, 좋은죽음 2건, 죽음준비 156건이 도출되었으며, 2차로 도출되어진 검색 결과 중 중복문헌 72건, 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 55건, 문헌 연구 44건, 양적 연구 68건을 제외한 연구물 91건을 1차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최종 선정을 위해 연구 주제와의 유사성과 질적 연구방법의 적절성, 질적 메타분석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적용하여 각각의 문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 연구물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편이 선정되었으며, 연구물 목록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최종 분석대상 연구물 목록

연번	연구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1	김미혜,권금주, 임연옥	2004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2	장경은	2010	빈곤여성노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3	김성은	2013	노년기 기독교 여성의 죽음인식 경험과 목회신학적 돌봄
4	최미혜	2014	노년기에 사별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5	이동옥	2015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6	유용식	2017	사별한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7	강준혁,김진숙, 김미정	2017	노인 자살관념 생성과 극복에 관한 사례연구
8	이준우,이현아, 박현정	2019	도시, 농촌, 재미 이민사회에 거주하는 한국노인의 노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9	임효남,김광환	2019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노인을 대상으로
10	김정현,오혜인	2020	초고령 노인의 죽음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대상 기본정보

연도	연구자	기본정보	
1	김미혜 외 (2004)	목적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한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 이해
		대상	총 40명(남성 15명, 여성 25명) 연령: 65세 이상
		방법	현상학 연구, 심층면담
		결과	노인이 바라보는 '좋은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노인 개인의 바람직한 죽음 준비 차원의 너머,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 입안 및 실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인의 남은 삶을 성공적 노후로 영위를 위한 함의.
2	장경은 (2010)	목적	노인 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 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탐색
		대상	총 10명(여성) 연령: 65세 이상
		방법	사례연구, 심층면담
		결과	빈곤여성노인은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한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삶에 대한 별 다른 기대가 없어서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며,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유교의 강한 남녀차별적인 규범 하에서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음.
3	김성은 (2013)	목적	노년기 기독교 여성의 죽음인식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목회신학적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
		대상	총 10명(여성) 연령: 65세~75세
		방법	현상학 연구, 심층면담
		결과	노년기 기독교 여성의 죽음인식 경험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여성들의 돌봄 방법 탐색과 교회공동체의 상황적 돌봄 모델의 실천
4	최미혜 (2014)	목적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들의 홀로서기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느끼고 경험한 삶의 내용에 대한 의미연구
		대상	총 8명(여성) 연령: 65세~80세
		방법	현상학 연구, 심층면담
		결과	여성 노인 스스로가 사별 이후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적응이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원, 기회, 잠재력을 사용하여 어려움 극복의 방안 모색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의 개념으로 죽을 권리를 논의하면서 노인여성의 위치에서
5	이동옥 (2015)	목적	죽음 결정을 고찰
		대상	총 12명(여자) 연령: 70세~78세
		방법	사례연구, 심층면담
		결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개념하에서 죽을 권리를 논의하면서 노인여성의 연명으로 결정을 살펴보고, 노인여성의 입장에서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고찰
6	유용식 (2017)	목적	사별한 노인이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차원을 넘어, 남은 삶의 성공적인 영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대상	총 14명(남자 7명, 여자 7명) 연령: 65세 이상
		방법	현상학, 심층면담
		결과	사별한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새롭게 시도하여 사별한 노인들의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와 성공적 노후를 위한 풍부한 맥락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7	강준혁 외 (2017)	목적	노인들이 자살관념 극복에 관한 연구
		대상	총 6명(남자 3명, 여자 3명) 연령: 67세~76세
		방법	사례연구, 심층면담
		결과	사례자들은 질적 만남, 고통을 잊기 위한 여가활동, 삶의 의미 재발견을 통해 생성된 자살관념을 극복
8	이준우 외 (2019)	목적	전통적, 현대적인 문화가치의 변화가 한국노인-도시, 농촌, 재미 한인노인의 노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 탐색
		대상	총 30명(남성 14명, 여성 16명) 연령: 60세~89세(평균연령 : 74세) 결혼상태: 기혼(배우자와 동거) 20명, 사별 8명, 이혼 2명
		방법	사례연구, 심층면담
		결과	노년기로 갈수록 신체적(Physical)인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노년기에 접어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높게 나타남
9	임효남 (2019)	목적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인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을 위한 준비의 의미에 대한 탐색
		대상	총 10명(남자 5명, 여자 5명) 연령: 70세~80세(기혼 6명, 사별 4명)
		방법	사례연구, 심층면담
		결과	노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준비 영역 4개 차원에서 웰다잉을 준비하고 있었고, 각 차원에서 총 8개의 주제가 도출됨
10	김정현 외 (2020)	목적	초고령 노인들이 죽음에 관해 갖는 태도를 탐색하고 그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대응 방안 모색
		대상	총 11명(남자 4명, 여자 7명)
		방법	혼합연구, 개인면담
		결과	초고령노인들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특정 행동들을 이행하고 있음을 도출함

분석 대상 연구물들은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관련한 연구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물들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출간된 학술논문 10편이며, 분석 대상 연구물들의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 5편, 현상학 연구 4편, 혼합연구 1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질적 분석 방법으로 심층면담 내용 등을 수집, 분석한 것으로 원 연구자의 해석, 연구참여자 전사록 등 원문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한국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하여 탐색한 질적 연구물들의 연구결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재해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의 의미는 ‘편안한 죽음’, ‘후회없는 죽음’, ‘의미있는 죽음’, ‘자기초월의 죽음’의 4가지의 영역으로 재해석 되었으며, 8개의 상위 범주와 2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종합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 4>과 같다.

〈표 4〉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한 연구물 분석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편안한 죽음	복(福) 있는 죽음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부모노릇을 다하고 맞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수용하는 죽음	-순리대로 살다 운명을 따르는 죽음 -노환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죽음을 수용하는 죽음
후회없는 죽음	건강하게 맞이하는 죽음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가는 죽음 -고통없는 죽음을 위한 건강관리 -병원 도움 없이 정신이 맑은 상태로 죽음
	준비하는 죽음	-유언 및 유산 등을 다 정리하고 죽음 -장례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를 준비하는 죽음
의미있는 죽음	열심히 살다가 가는 죽음	-시니어 관련 일자리를 구하여 활력을 되찾는 삶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인들과 교류하는 삶
	선행을 실천하는 죽음	-사후 자신의 신체 기증하는 삶 -그동안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양보와 배려를 하는 삶
자기초월의 죽음	종교에 귀의하는 죽음	-건강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기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삶을 승화하는 죽음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삶 -신에게 받은 은혜를 타인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삶

1. 편안한 죽음

노인에게 ‘좋은 죽음(well-dying)’은 죽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성숙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며 자녀의 건강과 행복 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는 삶과 죽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의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1.1. 복(福) 있는 죽음

노인들은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바란다. 특히, 자식을 앞세워 보내지 않는 죽음과 자녀가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눈을 감는 것,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福) 있는 죽음’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을 시켜야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 이라고 여기고, 자녀에게 부모 노릇을 다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한다.

내 자손이 있잖아. 자손들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내 앞에서 흥한 꼴 안보이고 다 살아서 있는게...그게 호상이라고 생각해.(김미혜 외, 2004)

내 앞에 거저(잘) 살아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내 앞에 나쁜 일만 안보고 잘만 살아주면...밥 세끼 먹고 건강하게 살아 주면...(김미혜 외, 2004)

1.2. 수용하는 죽음

노년기에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죽음의 이해와 수용을 통하여 인생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Klug & Sinha, 1987). 자신의 지나온 인생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되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낮아진다.

내가 그만 살고 수명이 고거다 잡자듯이 가는 거는 운명적이야(김미혜 외, 2004)

내가 당연히 가야한다는 길이라. 여기 더 살았으면 좋지만 능력도 안 되고 그 만큼 살았으면 가야한다는 뜻이라(참여자 2).(장경은, 2010)

2. 후회없는 죽음

노인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없는 삶을 살면서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나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생을 활기있게 살아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곧 좋은 죽음을 맞이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2.1. 건강하게 맞이하는 죽음

좋은 죽음(well-dying)을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죽음의 순간까지 정신이 맑은 상태로 죽은 것이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관리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여야 한다.

항상 여하튼 음식 잘 먹고 운동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나 여기 써놨잖아요.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존경하고 그래야한다는 말이야(사례자 6).(강준혁 외, 2017)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떻게든지 사는 동안 덜 아프고 고통이 없게끔 하려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죠. 가벼운 운동이라도 운동은 꼭 하려고 해요. 복지관에 와서 운동하고 노래하고 체조도하고. 자꾸 몸을 움직여야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살지.(임효남, 2019)

2.2. 준비하는 죽음

고령의 노인이 바라는 죽음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죽음 이후의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함으로써 조용하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설립추진단(2017)에 따르면, 좋은 죽음(well-dying)은 유언장 작성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유산 상속과 기부등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죽을 때 입을 옷 준비하고, 사진 준비하고,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갈 곳 준비해놓고, 그랬으

면 된 거지(연구참여자 F).(김정현 · 오혜인, 2020)

우리가 사는 집이 그것도 참 내가 생각하면 참 잘했어, 아들 명의로 해놓았어, 그러니까, 걱정이 없지요 상속세 이런 것 없어, 그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참 잘했던거 같아요(연구참여자 H).(김정현 · 오혜인, 2020)

3. 의미있는 죽음

좋은 죽음(well-dying)을 위한 노력으로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은 삶을 활기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인을 위한 기관 등을 찾아 가 친구들과 교류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기기도 하며 가치있는 삶을 위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선행을 실천하기도 한다.

3.1. 열심히 살다가는 죽음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노년기의 삶을 인정하고 죽음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노년기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친구들과의 교류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과 같은 배움의 장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활동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노인들은 공공기관등을 통한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의 활력을 찾기도 한다.

노인 대학 재미있어. 벌써 두 학기가 지나갔어. 여러 좋은 소리도 듣고. 요가도 하고. 지난번엔 발표회도 했지. 우리 손자가 꽃다발 사서 왔어. 기분 좋더라고. (참여자 1).(최미혜, 2014)

애들한테 용돈 받는 게 눈치도 보여. 놀면 뭐해. 하루에 다섯 시간 청소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시간이 짧으니깐 할 만해. (참여자 4).(최미혜, 2014)

3.2. 선행을 실천하는 죽음

노년기에는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준비 뿐만아니라 남은 생애를 의미있게 보내기위하여 그동안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평소에 좋은 언행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고자 노력한다. 의학발전을 위하여 사후에 자신의 신체를 기증하길 희망하면서 스스로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몸의 내부연구도 괜찮고, 나는 지금 쓸개가 없으니깐 병은 갑자기 오고 아마 누적되어 있겠지만쓸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잖아. 사회에 내 자신을 환원함으로써 의술이 발전하면 좋지 않겠나(참여자 3).(장경은, 2010)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몇 백 만원 며 천만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화장이고 내는 저 뭐야 내 시신을 기증해 냐거든.(김미혜 외, 2004)

4. 자기초월의 죽음

Erikson(1980)에 의하면 자아통합은 신체와 마음, 영혼이 통합되어 노년초월을 이루는 단계로 이 시기에 노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과 연적인 부분의 안정감을 지향하며 봉

사를 통해 남은 삶을 좀 더 가치있게 살아내려 노력한다. 가치있는 삶은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삶의 연장선으로서 '삶의 승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4.1. 종교에 귀의하는 죽음

노년기에 종교가 갖는 의미는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년기가 되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종교에 몰입하게 되고 종교가 없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종교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불교라서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드리면 부처님 앞에 갈 때는 안 아프고 자는 잠에 가도록 그렇게 기도드려요. 내 업장을 사멸하고 내가 부처님 앞에 갈 때는 내 업장을 사멸하고 자는 잠에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요.(참여자 2) (장경은, 2010)

교회 가면은 육체는 죽고 영은 살고, 영은 하늘나라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으로 만들었다고 하대요. [...] 나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깐 아무 데도 없으니깐 하나님뿐이긴 죽음 복 타고나서 그 사람 잘 죽었다고 해달라고 합니다.(참여자 6) (장경은, 2010)

4.2. 삶을 승화하는 죽음

노년기에는 좋은 죽음(well-dying)을 위한 준비로 종교적인 실천의 삶을 살기 위해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저는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해요.(임효남, 2019)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있을 때 베풀려고 해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성공하는 거였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야죠.(임효남, 2019)

Tornstam은 노년기에 '자기초월'의 성향이 나타나면서 물질주의적인 것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던 삶이 이타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초월'의 과정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Erikson &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단계에서 제시하는 '자아통합'을 이루게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초월'의 시기인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현실에 구속되지 않고 '자아초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여부와 생활만족도, 나이 등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조건이 '노년초월'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웰다잉 문화가 형성되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노인의 Well-being과 더불어 Well-dying을 위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키워드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다.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새롭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자아통합’을 이루는 시기인 노년기의 지혜일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한국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선정된 연구물의 해체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한 질적연구물 10편을 범주화 과정을 통하여 재해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은 ‘편안한 죽음’, ‘후회없는 죽음’, ‘의미있는 죽음’, ‘자기초월의 죽음’의 4개의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편안한 죽음’영역은 ‘복(福)있는 죽음과’, ‘수용하는 죽음’이 포함되고, ‘후회없는 죽음’의 상위범주는 ‘건강하게 맞이하는 죽음’, ‘준비하는 죽음’이며, ‘의미있는 죽음’영역은 ‘열심히 살다가 가는 죽음’, ‘선행을 실천하는 죽음’, ‘자기초월의 죽음’영역은 ‘종교에 귀의하는 죽음’, ‘삶을 승화하는 죽음’이 포함된다.

한국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의 의미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는 ‘편안한 죽음’과 ‘후회없는 죽음’이다. 이 두 영역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는 삶의 마무리를 잘 정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들은 죽음의 의미를 건강하지 못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삶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주제 속에서 건강한 삶, 활동적인 삶이 주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된다(이준우, 이현아, 박현정, 2019).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통합의 삶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있는 죽음’과 ‘자기초월의 죽음’은 Erikson &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9단계에 속하는 ‘노년의 초월’단계와 Tornstam의 노년초월의 의미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 두 영역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삶과 죽음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Tornstam(2005)의 노년초월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노년기의 자발적인 자기초월의 과정으로 사회적인 개념의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새로운 인생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총 10편의 분석 연구물 중 5편의 연구물에서 노년초월의 단계에 해당하는 의미단위가 나타나는데, 그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자기초월적 삶은 종교적인 측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well-dying)’의 의미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재미 한인 노인을 연구한 이준우 외(2019)에 의하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강한 반면, 재미 한인 노인은 개인 중심의 활동 방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있어서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삶

의 의미를 찾는 반면, 재미 한인 노인은 일과 삶을 구분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각의 나라와 문화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서의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죽음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죽음 준비교육은 노년기의 죽음 불안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적응력을 향상시킨다(김성희, 송양민, 2013). 그러한 죽음 준비교육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죽음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관한 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복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년층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좋은 죽음(well-dying)'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자기초월의 죽음이 도출된 원 연구물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삶이 죽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의 시사점은 반드시 종교만이 노년의 삶을 자기초월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Erikson의 과 Tornstam의 노년 초월의 이론을 노인 복지관련 프로그램이나 죽음 관련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교육한다면 노년층의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죽음(well-dying)'대한 국내 학술논문 10편을 질적 메타분석한 것으로 한국 노인의 '좋은 죽음(well-dying)'인식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노년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과 노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준혁,김진숙,김미정(2017). 노인 자살관념 생성과 극복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11(2): 31-62.
- 고홍락(2021). 교사 소진 경험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통합치유모델 연구. 서울불교대학원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 건 (2013). 영화를 통해 본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버킷리스트>, <내사랑 내결에>, <엔딩노트>, <아무르>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학회, 문학과 영상, 14(3), 641-664.
- 김건양(2020). 웰다잉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최근 5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12(1): 29-36.
- 김경오, 김상범. (2020). 성공적 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 : 웰빙과 웰다잉. 한국스포츠학회. 18(2): 309-317.
- 김미혜,권금주,임연옥(2004).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복(福) 있는 죽음’ -. 한국사회복지학회. 56(2): 195-213.
- 김민채(2020).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이슈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교사와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6): 59-77.
- 김민채,김영환(2020).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이슈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 교사와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교육문화연구 26(6): 59-77.
- 김성은(2013). 노년기 기독교여성의 죽음인식 경험과 목회신학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4(2): 9-34.
- 김성희, 송양민 (2013).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불안의 매개역할. 보건사회연구, 33(1): 190-219.
- 김수목(2021). 중·고령층의 사전연명의료이향서 작성의도가 좋은 죽음(ing)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진(2016).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웰다잉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분,이재모(2022). 웰다잉(Well-dying)인식과 태도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30(2): 103-126.
- 김신향,변성원(2014). 죽음준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12): 469-475.
-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경희,정소민,조진경,조현영,최승은,정지현,오세경,김창아,김민규,김기화,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아(2021). 노년기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자, 신유순, 정혜정(2016). 노인의 자기분화와 신체적 건강 및 성인자녀관계가 노년 초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3): 435-457.
- 김정미(2022). 한국노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오혜인(2020). 초고령 노인의 죽음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6): 1475-1495.
- 김정희,한중숙(2002). 지역사회 노인의 죽음태도 및 관련요인. 노인간호학회. 4(1):93-103.

- 김지현(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현,강연옥,유경,이주일(2009).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3(4):115-130.
- 김진숙(20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이 품위있는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정(2019). '좋은 죽음'에 관한 노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노년학, 39(3), 613-633.
- 김홍태(2016). 성공적 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 : 웰빙과 웰다잉. 한국스포츠학회, 8(1): 3-4.
- 나장함(2008).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8(2): 135-158.
- 남희선, 이영호(2013).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한국심리학회, 33(1): 263-283.
- 민들레,조은희(2017). 한국 사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분석. 노인간호학회 19(1): 28-38.
- 박명선 (2019). 노인의 죽음불안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미경, 현해진, 박선정, 최은영(2017)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한구산학기술학회, 18(10): 413-422.
- 신진이(2022). 노인 자세조절능력 검사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5(1): 1-19
- 안황란(1999).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 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신간호학회, 8(1): 44-68.
- 양정훈(2015).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의 자아통합감 연구 :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2): 23-48.
- 유용식(2017). 사별한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62): 1-31.
- 윤민석(2012).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0(56): 7-31.
- (2012). 노화에 대한 재해석. 한국노년학 32.2 (2012): 431-446.
- 이강옥 (2014).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문학치료연구, 32(0): 9-44.
- 이동옥(2015).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한국여성학회, 31(1): 123-159.
- 이명숙·김윤정(2013),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 13(6): 283-299
- 이미애, 박서령, 박현경(2013). '좋은사회' 담론을 통해 본 노인부양정책 패러다임 평가: '정의'로부터 '도덕'으로의 회귀. 한국행정사학회, 33: 241-256.
- 이승호, 박대권(2016).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3), 129-158.
- 이은봉(2020). 미술치료사의 역전이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아,김영순(2022).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문화교

- 류와 다문화교육 11(4): 49-78.
- 이준우,이현아,박현정(2019). 도시, 농촌, 재미 이민사회에 거주하는 한국노인의 노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노년학회. 39(3): 589-612.
- 이혜경(2017). 웰다잉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송자, 송선희(2012).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2(5). 243-255.
- 임현숙, 유재순 (2020). 노인 암 생존자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통감, 우울,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21(1): 197-207
- 임효남,김광환(2019).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학술진흥회 20(9): 432-439.
- 장민희(2019). 자기중심성과 자기초월성이 삶과 죽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확장적 개념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경은(2010). 빈곤여성노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사회복지학회 62(4): 325-347.
- 전현정, 박주연, 방지은, 민상지, 김태은(2021). 사별 극복을 위한 애도미술치료에 대한 질적메타합성. 한국미술치료학회. 28(6): 1479-1495.
- 정의정(2012).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7(2):189-194.
- 조현연,김정석(2016).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00: 11-48.
- 최미혜(2014). 노년기에 사별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0(66): 111-139.
- 최수안·김영순(2021).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31(1): 7-39.
- 조추용(2014). 노인의 죽음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30,203-227.
- 통계청(2022). 2022 고령자 통계.
- 허진강(2005). 만성 요통근로자의 흡추운동프로그램 효과.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12(2).
- 홍현숙(2022). 노인의 인문학습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석영(2022). 노인의 차별경험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Erikson, E. H., & Erikson, J. M.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Extendedversion. New York ; London: W.W.Norton & Co.
- Erikson EH(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ith new chapters on the ninth stage by Joan M. Erikson. New York: Norton.
- Klug, L. & Sinha, A.(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19(1), 229-235.
- Noblit, G. W. and Hare, R. D.(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C.A: Sage.
- Tornstam, L.(1994). “Gerotranscendence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 In Aging and the Religious Dimension, Edited by L. E. Thomas and S. A. Eisenhandler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5), Gerotranscendence–A Developmental Theory of Positive Aging. New York: Springer Ppublishihing company.

Walsh, D., & Downe, S.(2004). Meta-synthesis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0(2), 204-211.

Wong PTP, Recker GT, & Gresser G.(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Edited by RA Neumeyer. Washington DC : Taylor & Francis ;121-148.

03

section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시행 연구

양송이·이소정(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시행 연구

교육인문협력학과 석사과정 2학기 양송이
교육인문협력학과 석사과정 4학기 이소정

목차

01. 들어가는 말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 나라'
03.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결과
04. 결론 및 제언

0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일어난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수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밀도**는 15,650.1/km²로, 90.4/km²인 **강원도에 비하여 약 174배**에 달하고 있다.
-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된 **도시의 물리적 팽창**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 등의 도시기능이 침체·쇠퇴** 되어 있다.

1) 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

수목기간: 5년 1966 ~ 2021 / 자료경신일: 2022-07-29 / 주석정보

시원 | 중간/중간류 | 병렬전환 | 열고정해제

(단위: 명/km)

행정구역별	2019	2020	2021
전국	515.7	516.2	515.2
서울특별시	15,926.9	15,839.0	15,650.1
부산광역시	4,379.7	4,348.9	4,316.4
대구광역시	2,750.3	2,728.6	2,702.2
인천광역시	2,776.6	2,765.1	2,772.8
광주광역시	2,972.7	2,948.5	2,944.0
대전광역시	2,777.5	2,758.1	2,742.8
울산광역시	1,076.9	1,069.0	1,055.0
세종특별자치시	727.3	761.3	787.7
경기도	1,305.0	1,325.3	1,338.9
강원도	90.3	90.4	90.4
충청북도	220.0	220.3	219.4
충청남도	265.4	264.0	263.8
전라북도	224.0	223.4	221.4
전라남도	144.8	144.9	143.9
경상북도	140.2	138.9	138.4
경상남도	317.6	316.2	313.6
제주도	359.4	362.6	363.8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2022.12.27. 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
https://kosis.in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8024&conn_path=12

0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 상권의 발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창출, 문화·복지 환경의 개선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일희·이주형 2011: 102).
-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기에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의 사회·문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김영 외 2008: 81-95), 도시재생 영역·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있어 **사회·문화적 영역과 요인의 고려**가 물리적 환경의 개선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 외 2010: 247-267; 홍성우·장우진 2011: 183-206; 김경훈 2013: 1-86).

0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이에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의 목적을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두고 있다.
- 또한 ‘도시재생’의 정의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소**를 빼놓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0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재생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0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유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원행(2)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존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영커시설 구축 등 환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0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그러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사업유형에 **사회·문화적 요소의 측면이 약화**되어 있고, 물리적·환경적·경제적인 측면의 고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문화적 요소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도시재생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 나라'**를 기획·실행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창의력·집중력·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자기표현과 자기이해를 통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게끔 돕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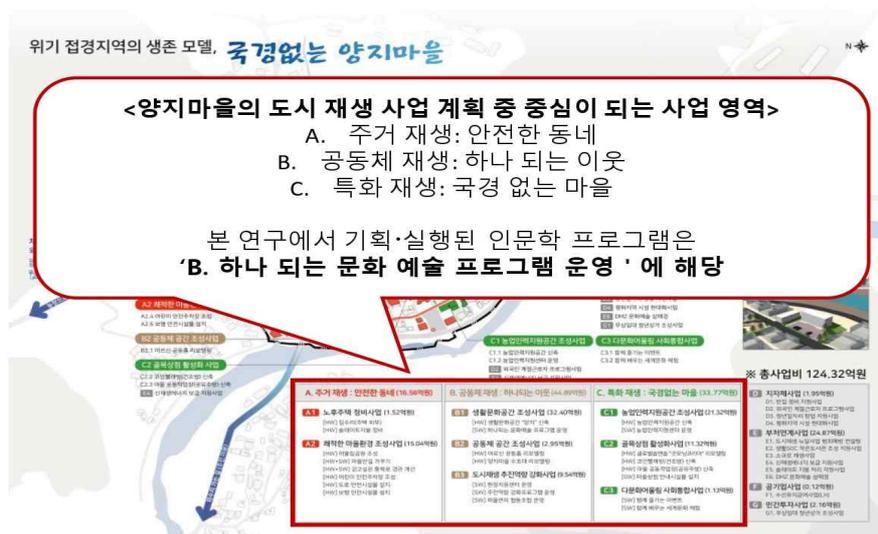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운영 기간	2022.10.28. ~ 2022.12.02.
장소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근남초등학교
대상	근남초등학교 저학년 13명
회기 시간	80분(1,2교시 40분씩, 쉬는 시간 10분)

<표 1>

- 프로그램은 양지마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MOU**(양지마을 주민협의체, 근남초등학교, 강원대학교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었다.
-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에 위치한 양지마을은 근남면의 상업 중심지였으나 **2005년 군부대 위수지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퇴한 지역으로,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국경 없는 양지마을'에 선정되었다.**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하나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 이유

- 인문학은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 능력, 즉 **세계에 대한 통합적 사유 능력을 발달**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사회성**을 길러주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확립**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정창우 외 2015: 25).
-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식을 발달시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치유성**을 가지며, 인문학을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과정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인문학: 인간의 삶에 빼 놓을 수 없는 중대한 가치”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하나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 이유

- 독서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미해결된 감정**들을 풀어내는 **치유**의 길을 열어준다.
- 독서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간접 경험**들은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며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다(유강하 2020: 86-88).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적 활동”



“자연스러운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 및 자기표현과 자기이해를 통한 ‘나’ 와 세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고려한 점

1. 저학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활동**으로 구성
2. 독서 후 책의 주제와 관련되는 연계 활동을 진행하여 **인문학의 가치 수용 및 내재화**
3. 독서 후 진행되는 연계 활동은 짧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협동 놀이 등 **다양한 체험적 활동**으로 구성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고려한 점

“ 인문학에 대한 수용적·표현적 방법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인문학이 갖는 긍정적 효과는 배가 된다. ”

(유강하 2020: 89-91)

- 글쓰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주로 포스트잇을 활용한 짧은 글쓰기로 진행 → **검열하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 강조**
- **미술은 이미지(imagery), 무의식 과정에 가까운 시각 언어**로서 규칙을 요구하는 언어 작업과 달리 **자유로운 표현 양식**이면서 **창조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를 유발**하여(이수진 2020: 334-336) 언어 사용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아동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
- **경쟁 요소가 제거된 협동 놀이 활동** → 아이들의 흥미와 집중을 환기시키고 공동체 내에서 **사회성 발달**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전체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프로그램명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 나라			
프로그램 목표	아동이 놀이를 포함한 인문학 활동을 통해 창의력 집중력 어휘력을 향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이해,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사회성을 발달하게끔 돕는다.			
대상자	근남초등학교 3학년 학생(저학년) 13명(8남 5여)			
활동 시간	총 5차시, 차시 당 1.2교시(80분)	활동 장소	학교 교실 및 도서실	
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1	나의 별칭, 너의 별칭	- 라포 형성 - 놀이를 통한 인문학 이해	- 프로그램 소개, 감사 소개, 규칙 정하기 - 별칭을 정하여 이름표 꾸미고 소개하기 - 준비뽑기 놀이 - 보물찾기, 동화 그림 카드 맞추기 놀이	교실 / 도서실
2	소리쳐, 내 감정	- 내면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기표현	- 영화 '인사이드 아웃' 예고편 시청하기 - 그림책 '감정을 숨기는 찬이' 읽기 - 감정 파이 만들기 - 나의 감정 파이 공유하기	교실
3	우리 우정 꽃 피우기	- 친구의 마음 이해하고 소통하기	- 그림책 '보이지 않는 아이' 읽기 - 조별 활동지 작성하기 - 감감 보물찾기 놀이	교실 / 도서실
4	내 마음 속 우산은 어떤 색일까?	- 긍정적 자아상 형성	- 몸으로 말해요 놀이 - 그림책 '깜장우산' 읽기 - 나만의 종이우산 만들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교실
5	장점 옮겨줘!	- 긍정적 자아상 형성 - 협동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 동화 스무고개 놀이 - 동화 빙고 놀이 - 그림책 '같이' 읽기 - 순바닥 협동화 그리고 꾸미기 - 설문조사 - 활동 소감 나누기	교실

<표 2>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1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나의 별칭, 너의 별칭	- 라포 형성 - 놀이를 통한 인문학 이해	- 프로그램 소개, 감사 소개, 규칙 정하기 - 별칭을 정하여 이름표 꾸미고 소개하기 - 준비뽑기 놀이 - 보물찾기, 동화 그림 카드 맞추기	교실/도서실

<표 3>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1차시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2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소리쳐, 내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인사이드 아웃' 예고편 시청하기 - 그림책 '감정을 숨기는 찬이' 읽기 - 감정 파이 만들기 - 나의 감정 파이 공유하기 	교실

<표 4>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2차시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3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우리 우정 꽃 피우기	- 친구의 마음 이해 하고 소통하기	- 그림책 '보이지 않는 아이' 읽기 - 조별 활동지 작성하기 - 깜깜 보물찾기 놀이	교실/도서실

<표 5>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3차시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4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내 마음속 우산은 어 떤 색일까?	- 긍정적 자아상 형성	- 몸으로 말해요 놀이 - 그림책 '깜장우산' 읽기 - 나만의 종이우산 만들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교실

<표 6>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4차시



02.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의 '놀이와 함께 하는 동화나라'

● 5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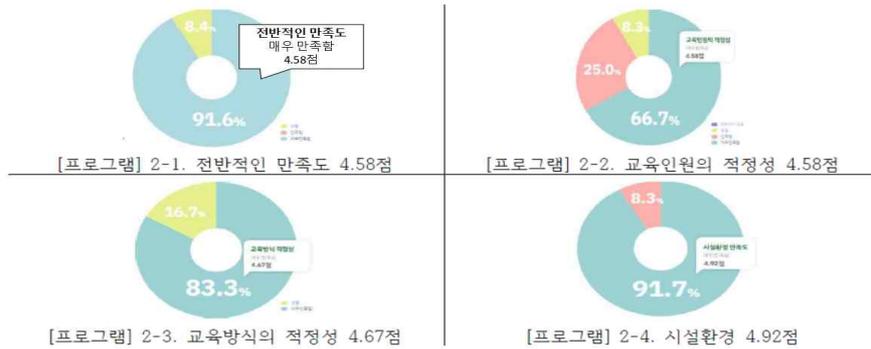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장점 움켜 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자아상 형성 - 협동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스무고개 놀이와 동화 빙고 놀이 - 그림책 '같이' 읽기 - 손바닥 협동화 그리고 꾸미기 - 설문조사 - 활동 소감 나누기 	교실

<표 7>

03.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결과

<프로그램 시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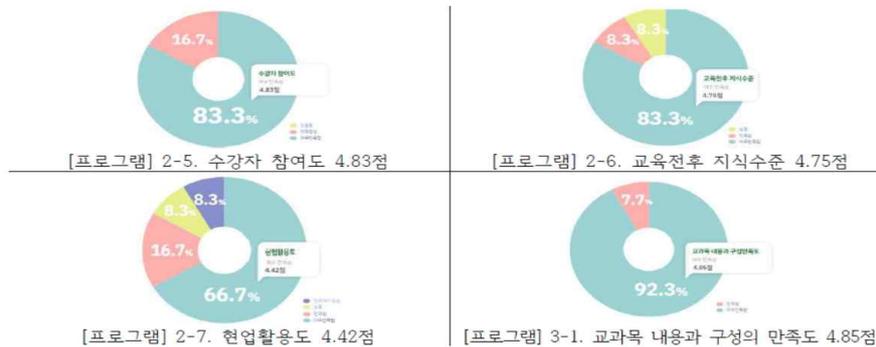
- 프로그램 마무리 후 설문조사 결과 (5점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 교과목 내용과 구성의 만족도 4.85점, 양승이 강사 만족도 4.85점, 이소정 강사 만족도 4.85점



03.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결과

<프로그램 시행 결과>

- 프로그램 마무리 후 설문조사 결과 (5점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 교과목 내용과 구성의 만족도 4.85점, 양승이 강사 만족도 4.85점, 이소정 강사 만족도 4.8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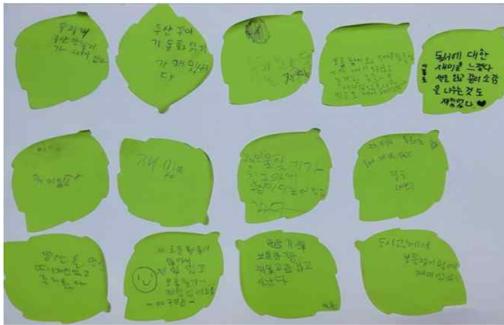


03.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결과

<프로그램 시행 결과>

●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이 남긴 소감의 키워드

- 재미있다. 책이 좋아졌다.
- 친절했다. 행복했다.



참여자1: 독서에 대한 재미를 느꼈다. 책을 읽고 같이 소감을 나누는 것도 재밌었다.

참여자2: 책 읽기라고 해서 재미없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졌다.

참여자3: 보물찾기를 통해 친구와 손잡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정이 깊어진 것 같았다.

04. 결론 및 제언

-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아이들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낯설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익숙지 않은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다양한 체험적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인문학 감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또한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중 '공동체 재생: 하나 되는 이웃' 영역의 '하나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어,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04. 결론 및 제언

- 다만 본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사업이며, 단기 진행(5회기)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인문학 감수성 향상의 지속성이 있는지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 그 한계이다.
- 또한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발달 특성상 긴 글쓰기 대신 짧은 글쓰기와 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깊은 분석이나 학술적 접근은 다소 어렵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차시를 늘려 글쓰기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사전/사후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경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창동예술촌 조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2013.
- 김 영·김기홍·박진호, 「마산시 도심쇠퇴현상분석과 도시재생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3권 제7호, 2008.
- 김 영·이정동·김경훈·천성봉, 「통합창원시 도시재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4호, 2010.
- 이일희·이주형,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6호, 2011.
- 정창우·손경원·박영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46호, 2015.
- 홍성우·장우진, 「도시재생 영역의 중요도 분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탐색」,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1
- 강신익 외, 『인문예술치료의 이해』, 한국문화사, 2020.

인터넷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2022.12.27, 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8024&conn_path=I2

04

section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고한빈(강원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고한빈
인문예술치료학과 4학년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주제의 배경

: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이유

사랑¹  ★★★

[명사]

1.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랑을 사랑이 아닌 것,
부담감/죄책감으로 받음



사랑을 사랑으로 받기

발표의 두 소주제

융의 '콤플렉스' 개념과 상징의 해석으로 알아본
소설 『그림자 도둑』 속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을 치유에 활용하는
글쓰기 활동 " 사랑과의 대화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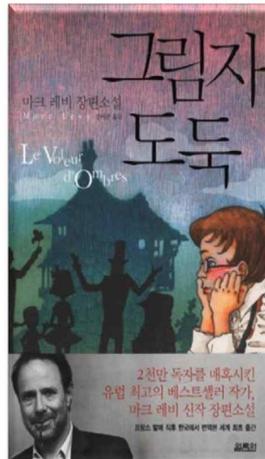
- ① 소설 『그림자 도둑』 속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 1) 등장인물 & 줄거리
 - 2) 내용 분석: 융의 '콤플렉스' 개념과 상징의 해석

- ② 글쓰기 활동 '사랑과의 대화'
 - 1) '대화' 기법 소개
 - 2) 시 & 활동지 예시

1

소설 『그림자 도둑』에서 발견한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 칼 융의 ‘콤플렉스’ 개념과 상징 해석을 바탕으로

- 작가: 마크 레비
- 장르: 소설
- 국가: 프랑스
- 출판연도: 2010년



등장인물

주인공

어린 소년.
1인칭 시점의 화자.
그림자와 대화하는
능력을 지님.

어머니

주인공과 사랑을 주고받음.
남편의 외도로 이혼.

이브 아저씨

초등학교 수위 아저씨.
주인공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

뤼크

초등학교 같은 반으로 만난 절친한 친구.
부모님께서 제빵사로 빵집을 운영.

클레아

주인공이 초등학교 시절 방문한
바닷가에서 만나 좋아한 소녀.
대학생이 되어 다시 재회함.
어릴 적 말을 하지 못했으나 자폐를 치료함.

줄거리

초반부: 슬프고 외로운 주인공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방학이 끝나고 시작된 새 학기,
주인공은 반에서 제일 왜소하고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아이.

내성적인 성격과 외로움,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와의 단절,
어머니를 향한 걱정과 사랑으로 쓸쓸한 어린시절

주인공이 묘사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내 어린 시절은 그곳, 바로 그 학교 운동장에 있었다. 나는 그걸 떨쳐버리고 어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작고 비좁기만 한 내 몸에 딱 붙어 떠날 줄을 몰랐다.” (11p)

“슬펐던 내 어린 시절은 거기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한 번만 나를 쳐다봐주길 고대하고 내가 어서 자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작은 지방 도시 그곳에.” (16p)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유?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아들 때문이라도 계속 살아야지 하는 생각 따위는 할 필요도 없이 형편없는 아들을 둔 아버지다.” (37p)

어머니를 사랑하는 주인공

“아빠와 토요일을 함께 보낼 수 있으니,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 뿐이었다. 엄마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빠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혹시 엄마가 심심해하지는 않을까 싶었고, 왠지 엄마를 내팽개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씩씩했던 것도 사실이다.” (81p)

“우리 엄마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두 눈 가득한 인자함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부모님이란 존재는 어느 일정한 순간까지만 나이를 먹어 우리 기억 속에 영영 그 모습으로 기억된다. 눈을 감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멈춰 있는 부모님을 볼 수 있다. 마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진 듯.” (146p)

중반부: 그림자와의 대화

마르케스의 그림자와 대화 후 마르케스를 이해하게 됨.
(부모님의 무관심에 외로운 마르케스)

그림자와 대면하는 주인공

“나는 정원으로 가서 그림자에 대한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아빠가 그랬다. 어른이 되려면 두려움에 맞설 줄 알아야 하며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54p)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바닥으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몇 번 기침을 하고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 나는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다. ‘넌 내 그림자가 아니야!’ ”

(56p)

“엄마는 나에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고 했었지. 나는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다락방에서 확인해보기로 했다. 다락방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중략) 어떤 상자 안에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중략) 어떻게 그 사랑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빠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중략) 어쨌든 부모님의 옛 물건들을 보니 새로운 세상, 내 몸에 맞는 그런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 집 속의 나의 세계, 바로 지붕 밑이다.”

(54-56p)

자신을 괴롭힌 마르케스를 용서하는 주인공

“라이벌임에는 틀림없지만 나는 그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케스네 가족의 무관심에 가슴이 먹먹했다.” (81p)

“나는 꿈속에서 마르케스의 집을 방문한 이후 이 아이에 대한 모진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를 놀리고 괴롭혀도 신경쓰지 않았다.” (81p)

중반부: 그림자와의 대화

마르케스의 그림자와 대화 후 마르케스를 이해하게 됨.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외로운 마르케스)

이브 아저씨의 그림자와 대화 후 아저씨의 상처를 위로함.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폭력으로 슬펐던 어린 시절)

아픔을 숨기는 이브 아저씨

“어머니가 그 편지에 뭐라고 쓰셨는데요? 비밀이 아니면 말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아저씨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지!’ (중략)
아저씨에게 있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바닥이 없는 우물과도 같았다. 결코 채울 수 없는 슬픔의 우물. 그래서 아저씨는 상상의 편지라는 뚜껑으로 그걸 감췄던 것이다.”

(97-98p)

주인공의 그림자가 주인공에게

“네가 누군가의 그림자를 뺏어올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한줄기 빛을 찾으려 해.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추억의 한 부분, 그걸 찾아달라는 거야.”

(103p)

그림자를 수용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주인공

“나는 그림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림자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도 알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엄마가 그랬듯, 상상력하면 또 나 아닌가.”

(105p)

중반부: 그림자와의 대화

마르케스의 그림자와 대화 후 마르케스를 이해하게 됨.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외로운 마르케스)

이브 아저씨의 그림자와 대화 후 아저씨의 상처를 위로함.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폭력으로 슬펐던 어린 시절)

의대생이 되어 식사를 거부하는 소녀의 슬픔을 위로함.
(아무도 모르는 소녀의 슬픔을 알아줌)

다락방에 찾아온 뤼크의 그림자와 대화 후 뤼크가 소망을 이루도록 도움.
(빵집을 이어받는 대신 의학 공부를 소망하던 뤼크)

주인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퀴크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준 사람이 너라는 것도 알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말해준 게 아니야. 엄마가 그러더라.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매일 너에게 고마웠어. (중략) 집에 내려오면 초콜릿 빵이랑 커피 에클레르를 만들어줄게. 그러면 예전처럼 함께 나눠 먹자.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가 미래에 그럴 것처럼 그렇게 빵을 나눠 먹자.” (295p)

후반부: 콤플렉스를 대면하고 해소하는 주인공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편지가 왔음을 알았고,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울음을 터뜨리자 뒤통수가 나를 부축했다.
플랫폼에서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기억한다. 어린 시절로부터 터져나온 그 외침을.” (303p)

다시 돌아간 다락방에서

“ 보름달이 밝은 밤,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중략)
상자를 열어보니 매해 크리스마스며 내 생일 때 아빠가 보내온
편지들로 가득했다. (중략)
다락방 바닥으로 내 그림자가 길게 보였다. 그 옆에 엄마의 그림자도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울고 있었다.
달이 조금씩 움직이자 엄마의 그림자도 사라지고 말았다.”

(311p)

다시 만난 이브 아저씨

“여기 올 줄 알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벤치에 앉은 이브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었다.” (313p)

“아저씨의 정체가 대체 뭐예요?’ 이브 아저씨에게 물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 네가 자유를 허락해준 학교 수위.
아니면 너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 네가 만들어낸 그림자.” (316p)

어머니의 편지

“내가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며,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엄마가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문장.
그걸 읽고 어린 시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317p)

소설을 분석하기

소설 속 중요한 상징 '그림자'
: 인물의 상처, 고민 등 숨겨진 내면의 아픔

?

융의 그림자 개념
: 자아의 가치체계에 어긋나 무의식에 억압한 것
그림자로 억누른 모습과 가치를
의식에 동화(통합)하면 창의성의 기반이 됨.
왠지 싫은 타인의 모습이 나의 그림자.

융의 콤플렉스 개념
: 무의식 내에서 어떤 감정으로 연결된 심적 내용의 집합
자립성을 가지고, 자아통제를 벗어남.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자아방어 기제

⋮

[콤플렉스의 해소]
“심리치료법은 ‘해소’보다 ‘고민과의 대결’이다.”
“개인이 대결해야 할 콤플렉스가 있으면 꼭 그 대결을 유발하는 외적 사건이 나타난다.”
콤플렉스가 자아에 통합되면 바람직한 활동성을 가짐.

주인공의 콤플렉스

- ‘나의 어린시절은 거기 있었다’ – 쓸쓸함과 슬픔의 **감정**.
부모님에 대한 커다란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긴 **기억**.
-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어머니의 편지에 자주 답장하지 않고,
고향에 오랫동안 내려가지 않는 모습.
= 상호보완적인 콤플렉스(우열감&열등감) 중 **억압되었던 한 쪽의 발현**.

콤플렉스의 해소

- 내면을 살피는 태도 + 타인의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행동
= 자신과 비슷한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이브 아저씨)에게도 도움을 주며
콤플렉스를 다루는 **실제적인 활동** 경험.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타인의 콤플렉스를 쉽게 눈치 채는 경향이 있음.
투사의 일종으로, 본인 콤플렉스의 위협을 받아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함.)
- 어린 시절부터 두려워한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랑을 느끼는 경험을 함. (아버지, 어머니의 편지 읽기)
= **콤플렉스와의 대결**
- 마르케스를 대상으로 ‘투사의 되돌림’을 경험.*

*마르케스에게 콤플렉스를 투사하고 '투사의 되돌림'을 경험한 주인공

“엄마에게는 아빠가 떠났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마르케스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평생의 짐이었다.” (45p)

주인공은 마르케스에게 자신의 슬픔과 혼란 등 콤플렉스를 투사하여

마르케스를 아주 심술궂은 아이로 여김.

하지만 숲에서 길을 잃은 주인공을 구해준 마르케스.

(이 때 그림자가 바뀌어 마르케스의 그림자를 얻고 마르케스를 이해하게 됨)

이후부터 주인공은 당당하게 마르케스에게 맞서 반장으로 선출됨.

주인공은 마르케스가 자신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님을 깨닫고,

그동안 두려워한 감정이 현실과 다름을 알게 되어 자신의 콤플렉스의 존재를 인지했을 것.

투사의 되돌림을 경험해 심적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주인공.

= 콤플렉스의 내용을 자아에 통합하는 과정

소설 『그림자 도둑』 속 상징들

1. 무의식에 귀기울이고 관찰하기

- 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한 주인공의 답 '밤에 익숙해지는 거요!'
- 달: 다락방에서 달빛을 받아 나타난 그림자와 대화함.
- 밤에 달빛에 의지해 창고에서 몸을 숙여 (땅) 클라라의 사인을 찾음.

2. 주인공의 여정을 도운 신비로운 존재

- 이브 아저씨: 새벽에 문득 어머니의 편지를 돌려주고 홀연히 사라짐.
- 할머니와 할아버지: 긴 세월과 기억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기억하여 연을 구해줌.

3. 주인공의 반공간(contre-escape), 다락방

: '우리 집 속의 나의 세계, 바로 지붕 밑이다.' (56p)

밤과 다락방을 무서워했던 주인공은 점차 부모님의 추억과 달빛, 그림자가 함께하는 다락방을 편안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여김.

소설 『그림자 도둑』에서 발견한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야 함을 이해하기

내가 가진 콤플렉스에 관심을 가지기
> ‘주변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콤플렉스가 나의 투사는 아닐까?’

나의 내면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살피고 현실적으로 느끼기

이전과 다른 내가 되어 사랑 받기

2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을 치유에 응용하기
: 글쓰기 치료의 ‘대화’ 기법을 활용한 <사랑과의 대화>

‘대화’ 기법이란

-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을 정해 대화문을 상상하여 적는 기법.
- 대상으로는 사람, 사물, 사회, 감정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또 다른 기법으로는 ‘보내지 않는 편지’ 등

→ 사랑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봄으로써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데 도움을 얻을 것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고한빈

사랑을 받는 법에는
선물을 받는 법 만큼이나
많은 방법이 있다

선물이 부담스러
열어보지도 않는 방법

어떻게 준비했을까 미안해서
눈물을 적시는 방법

너무 고마워 조바심을 내다
그만 잃어버리는 방법

보내진 마음대로
그대로 받아야 그 몫을 다 할건데

어찌지 하다가 내려다본 내 손에
슬프게 엉켜있는 것들

부지런히 씻어내고 돌아와

사랑을 붙잡아서
그 속의 바람을 훨훨 일으킨다

<사랑과의 대화> 예시: 청소년 (중학생) 대상

()의 사랑과의 대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랑과 대화한다고 상상하며 대화문을 완성해봅시다.

사랑: 안녕. 나는 사랑이야. 나를 느낄 때 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니?

나:

사랑: 네가 나를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

사랑: 나는 소원이 있어. 그건 어떤 소원일까?

나:

사랑: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나:

사랑:

<사랑과의 대화> 예시 : 청소년 (중학생) 대상

(**엄마**)의 사랑과의 대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랑과 대화한다고 상상하며 대화문을 완성해봅시다.

사랑: 안녕. 나는 사랑이야. 나를 느낄 때 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니?

나: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내가 어서 좋은 걸 드리고 싶어.

사랑: 네가 나를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 네가 정말 고마워서, 나도 큰 사랑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나봐.

사랑: 나는 소원이 있어. 그건 어떤 소원일까?

나: 내가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길 바라겠지.

사랑: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나: 내 두려움을 고민해볼게. 이렇게 두려워할 것인지.

사랑:

<사랑과의 대화> 예시 : 청소년 (중학생) 대상

()의 사랑과의 대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랑과 대화한다고 상상하며 대화문을 완성해봅시다.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나:

융의 '콤플렉스' 개념과 상징의 해석으로 알아본
소설 『그림자 도둑』 속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을 치유에 활용하는
글쓰기 활동 " 사랑과의 대화 "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법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점

- ❖ 누구보다 나에게 유익한 과정.
- ❖ 지식으로 분석하며 읽으니 더 재미있는 소설.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동기의 발견.
-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기.

참고 정보 및 문헌의 출처

[참고 정보]

사랑의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도서 『그림자 도둑』 표지 이미지: <https://bit.ly/3WOB142>

[문헌]

마크 레비, 강미란, 『그림자 도둑』, 열림원, 2010

가와이 하야오, 김지윤, 『카를 융, 인간의 이해』, 바다출판사, 2018

감사합니다.

I. 서론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은 가장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향후 취업이나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남상은·유기웅, 2017). 또한 학업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동기부여 등 개인적인 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의 학사경고나 학업부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남상은·유기웅, 2017). 이에 전국의 많은 대학들에서는 교수학습센터, 교육개발센터, 교육혁신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들의 학사경고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심효진·김정섭, 2021).

학업상담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고 생산해 내는 공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력하는 상담서비스이며, 상담의 한 영역이다(황매향, 2021). 현대에 이르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비롯한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학교 현장 및 학회 또는 상담센터에서 교사, 복지사, 상담사 등에 의해 학업상담이 실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상담 영역에서 별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분류하거나 연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 황매향(2021)은 학업상담은 어느 영역보다 상담이 기여한 부분이 크고 상담자가 개입했을 때의 성과가 남다르지만, 상담자들이 덜 주목하는 영역이며, 기존 상담관련 학회에서 학업관련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다루기는 하지만 학업상담 영역이 별도의 전문 분야로 분류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학업을 조력하는 여러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현장의 상황과, 학습지도, 학습코칭, 학습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황매향, 2021).

한편 학업상담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학사경고 원인 관련 요인 및 개념은 11가지(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불안, 스트레스 대처, 목표·동기, 흥미·적성, 시간관리, 대인관계, 학습방법·전략, 학습능력, 학사정보 부족)로 규정할 수 있다(남영옥·이대형, 2016). 그러나 이는 학사경고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규정에 해당할 뿐, 내담자 개인이 가진 문제들은 훨씬 다양하고 그 정도에는 측정조차 불가할 만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대학생 A의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사례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자기수용 과정과 그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인문치료 프로그램이 내담자의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와 미술을 매체로 활용한 인문치료는 대학생 내담자의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시와 미술을 매체로 활용한 인문치료는 학습 습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이론적 배경

1) 인문치료

인문치료란, 마음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문 정신과 인문학적 방법으로 관련 학문의 치료적 힘과 원리를 학제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치료에서 인문학(humanities)은 ‘인간이란?’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을 총칭하는 용어로, 인문학은 인간성(humanity) 또는 인간다움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다움의 속성과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치료는 문학·역사·철학·언어·예술 등의 학문적 통섭을 모색하는 새로운 학문 체제로서 인문학 각 분야 및 연계 학문들의 내용과 기능을 학제적으로 새롭게 통합하여 현재 우리 국가·사회적 문제, 개인의 정신적·정서적 문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개인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기존의 심리치료가 좀 더 근원적으로 반성해 보지 못한 사회문제, 가치문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논쟁점과 갈등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개인과 사회와의 소통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인문치료의 대상은 인문학적 의미의 인간, 즉 신체는 물론 정신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관계 속의 인간,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역사적 존재로서의 총체적 인간을 말한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이중 인문치료가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는 소통 장애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 인지적 문제, 사회 환경적 문제로, 소통 장애는 나와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남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본 연구에서는 인문치료가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 중 ‘소통 장애’에 집중하였다. 그중에서도 ‘나와의 소통 실패’로 인해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자신에 대한 이해 부재’로 인해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아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자기반성의 인식이 생긴다고 보았으며, 소크라테스의 내면의 소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각론 등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회고하는 대표적인 치료 구조로 볼 수 있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과 함께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면서 대화를 통하여 덕(德)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려 노력했던 인물로, 그는 스스로 산파의 역할에 머물며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대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성찰하게 하였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참된 자아를 찾기 원하기에 인문학에 기반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 또는 내담자 스스로가 인간다운 삶,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 삶의 자세를 미래의 삶 속에 투영해 보고, 미래의 인간다운 삶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유강하,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치료에 기반한 학업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자기수용

인간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 경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이나 사회가 주입한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양근성·김광수, 2021).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수용을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왔으며, 자기수용은 성숙한 인간의 특성 중 하나로 인간이 자기 통제력 밖의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안정적인 정서와 행동 및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양근성·김광수, 2021). 학자마다 자기수용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칼 로저스(Carl Rogers)에 의해 발전된 인간 중심 치료(PCT, Person-centered therapy)에서의 자기수용 개념을 따른다.

Rogers(1942, 1951, 1961)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와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치료자가 내담자를 조정하여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충분히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진솔한 분위기를 제공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중략) 어린아이는 나름대로의 욕구, 재능, 행동양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나 어른들은 아이의 선천적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기 기준에 맞추어 조건부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가치의 조건을 내면화한 자기개념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유기체적 경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개념에 따라 왜곡하게 된다(권석만, 2022).

Rogers는 내담자는 위 조건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치료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하였다.

치료자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세 가지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진솔함(genuineness)이다. 즉, 내담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며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해 주는 치료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동안 왜곡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개념과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 달리 말하면,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개념이 통합됨으로써 자신의 잠재 능력을 온전하게 발현하는 자기실현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권석만, 2022).

본 연구에서는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에서 상담사가 내담자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과 이해로 대하고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내재된 내면적 힘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내담자의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과정에서 자기수용에 이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A이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3점대 후반 - 4점대의 높은 성적을 유지하던 중, 2학년이 되면서 복수전공을 시작하며 2개 전공의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고,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학사경고 위험 수준의 성적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

기들에 비해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1학기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B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에 학습상담을 신청하였다. 본 연구자는 당시 인턴 학습상담사였고, 초기 상담 신청 시 내담자 A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A의 개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A의 개요

연령	만 21세 (여, 대학생)
가족관계	부모, 언니1, 오빠1
초기 호소 문제	- 갑작스럽게 하락한 성적을 올리고 싶음. -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음. - 시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음.
전반적 특성	- 우울과 불안이 높음. -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으로 인해 자신감이 하락한 상황이며, A 스스로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각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함. - 복수전공 및 대외활동 등 과도한 일정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음. -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속마음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2) 연구도구

(1) MLST- II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학습전략검사)

A의 학습과정에 있어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동혁(2008)이 개발한 한국가이던스 MLST- II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총 4개의 영역(성격 특성, 동기 특성, 정서 특성, 행동 특성)으로 나뉘며 17개의 하위 척도,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U&I 학습성격유형 검사

A의 학습 관련 성격 유형과 행동 유형 파악을 위해 연우심리연구소의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U&I 학습유형검사는 학습자의 성격을 측정하는 학습성격유형, 학습자의 학습행동 및 태도를 측정하는 학습행동유형, 학습자의 학습방법과 학습전략기술을 측정하는 학습기술능력 총 1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

A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사이트(Insight of psychology, INPSYT)에서 시행하는 문장완성검사를 활용하였다(이우경, 2021). 문장이나 단어를 제시한 후 내담자가 이를 완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담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4) 별-파도 그림검사(SWT: Star-Wave Test)

A의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별-파도그림검사(SWT: Star-Wave Test)를 실시하였다. 별-파도그림검사는 독일의 심리학자 Ursula Ave-Lallemant에 의해 창안·개발되어 1978년에 간행된 별과 파도 검사 도구로 주로 성격진단검사로 사용되고 있다(장경서·정영인, 2018). 그러나 검사 및 해석에 있어 별과 바다, 파도 등 어른의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 무의식적인 별-파도의 해석에 덧붙여 일상생활에서의 별-파도

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衫浦京子·金丸隆太,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되,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A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내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습상담 과정 중 자기 수용 및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5개월간 총 19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 학기당 6-7회기씩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회기에 걸친 상담을 초기단계(2021년 10월 - 12월), 중기단계(2022년 3월 - 7월), 후기단계(2022년 10월 - 2023년 1월), 총 3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3> 연구 절차와 기간

구분	주요 내용	기간
문헌 연구	- 자료 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2021년 8월 - 9월
프로그램 운영	- 학습상담 프로그램 설계 및 진행	2021년 10월 - 12월
		2022년 3월 - 7월
결과 정리	- U&I 학습성격유형 검사 - MLST-II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학습전략검사)	2022년 10월 - 2023년 1월
	-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 - 인물화 그림 검사(DAP: Draw a person) - 별-파도 그림검사(SWT: Star-Wave Test) - 학습성취도	

4) 인문치료 기반 학습상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학교 내 학습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상담이었으며, 당시 본 연구자가 인턴 학습상담사였기에 상담 횟수 및 상담 진행에 제약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학기당 상담은 5-6회기 씩 진행(회기 당 50분) 되었으며, 방학 기간 중에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19회기 중 2회기는 A와의 합의 후 별도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대학생 A의 인문치료 기반 학습상담 사례에서 나타난 A의 자기수용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인문치료 프로그램이 A의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학습상담과 인문치료(시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융합적 성격을 띠며,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는 A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 그리고 A의 학습성취도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초기에 설정한 연구 가설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A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이 A의 학습 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을 구성에서 유의하였던 점은 본 프로그램이 인문치료와 학습상담을 융합하는 성격을 띠지만 가장 큰 목표는 A의 학습성취도 향상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A가 심리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자기이해 및 자기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학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 A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작품, 연구자이자 상담사가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도서를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혜진 외, 『따뜻한 바람에도 가슴이 시리다』, 고혜진의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를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회기별 구성은 처음 10분간은 A와 상담사 간 라포 형성 및 지난 회기 상담 내용 및 진행상황 확인을 실시하였고, 25-30분간은 학업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10-15분간은 인문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매 회기에 있어 정확한 시간대로 진행하기보다는 A의 학업 진행 상황이나 당시 상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각 회기의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4>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프로그램

전체기간: 2021년 10월 - 2023년 1월			
초기단계(2021년 10월 - 12월)			
단계	회기	회기별 목표	주요활동 내용
신뢰 형성	1	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검사 해석	- 상담 구조화 -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소개 및 사전검사(MLST-II) 해석 - 상담 종료 후 변하고 싶은 나의 모습은? - 학습 시간 계획표 작성 및 가용시간 체크하기
	2	친밀감 형성 및 학습 습관 파악하기	- A의 학습 습관 진단하기 -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 중 일부를 활용하여 가볍게 자기 탐색하기
자기이 해 및 탐색	3	학습 패턴 파악 및 내 마음 들여다보기	- 학습 패턴 분석 및 다음 주 학습 계획 수립 - 시 감상과 나눔(내면의 고통 성찰에 관한 시)
	4	우선순위 설정 및 숨은 감정 찾기	- 학습 계획 점검 및 기말고사 전략 세우기 -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꺼내 놓기
수용	5	긍정적 경험 찾기 및 현재의 중요성 인식	- 학습 계획 점검 및 기말고사 전략 점검 - 시 감상과 나눔(현재의 중요성에 관한 시)
	6	삶의 긍정적 요소 확인 및 프로그램 마무리	- 시 감상과 나눔(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에 관한 시) - 프로그램 정리 및 인터뷰
중기단계(2022년 3월 - 7월)			
단계	회기	회기별 목표	주요활동 내용
신뢰 형성	7	프로그램 소개 및 MLST-II 검사 해석	- 상담 구조화 -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소개 및 MLST-II 해석 - 지난 학기와 현재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8	중간고사 성찰 및 학습성격유형 진단	- 중간고사 성찰 활동 - U&I 학습성격유형 검사 해석 -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
자기이 해 및 탐색	9	학습 습관 파악 및 자기 인식 점검하기	- 학습 습관 점검 및 우선순위 분류하기 - 나는 어떤 나무인가?(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10	시험 전략 수립 및 내 머릿속 들여다보기	- 학습 계획 점검 및 기말고사 대비 전략 세우기 - 내 머릿속 털어내기(클러스터 기법)
	11	시험 계획 점검 및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 학습 계획 점검 및 기말고사 대비 전략 수정 - 별-파도 그림검사(SWT: Star-Wave Test)
수용	12	시험 전략 점검 및 내가 보는 내 모습 확인	- 기말고사 전 시험 준비 상황 점검하기 - 인물화 그림 검사(DAP: Draw a person)
	13	프로그램 마무리	- 시 고쳐쓰기 및 나눔(긍정적 자기인식에 관한 시) - 프로그램 정리
후기단계(2022년 10월 - 2023년 1월)			
단계	회기	회기별 목표	주요활동 내용
신뢰 형성	14	프로그램 소개 및 라포 형성	- 상담 구조화 -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소개 및 방향 논의
	15	시험 전략 점검 및 내 머릿속 들여다보기	- 중간고사 대비 전략 점검 및 수정 - 피하고 싶은 것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클러스터 기법 변형)
자기이 해 및 탐색	16	중간고사 성찰 및 나의 모습 그대로 보기	- 중간고사 성찰 활동 -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17	기말고사 전략 수립 및	- 기말고사 대비 학습 전략 세우기

		우선순위 설정하기	-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클러스터 기법 변형)
수용	18	기말고사 성찰 및 변화한 나의 모습 들여다보기	- 기말고사 성찰 활동 - 문장완성검사(SCT) 및 해석
	19	프로그램 마무리	- 프로그램 정리 - 긍정적 미래관 확립

III. 연구결과

1. 회기별 변화

1) 초기단계: 2021년 10월 - 12월

1-2회기에서는 신뢰감 및 라포 형성을 위해 학업상담을 위한 상담 구조화 외에 현재의 느낌 표현하기, 상담 종료 후 변하고 싶은 내 모습 상상하기, 시에서 발췌한 문장 읽어주기를 진행하였다. A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자에게 교내 학습상담을 신청한 상황이었고, 본 연구자가 작가로 책을 출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문학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며 연구자가 읽어 준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A는 변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도전에 머뭇거리지 않는, 공부에 대해 부담을 덜 갖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2학년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으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A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배경이 동기들과 다른 것에 대해 고민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상담사를 배려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반해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학업적으로는 복수전공을 시작하여 두 가지 전공과목의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다고,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기 위해 촘촘하게 시간 계획을 세워서 이를 무리하게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자신이 세운 모두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A는 사전검사(2021년 10월 7일)로 진행된 MLST-II(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학습전략검사)에서 자신에 대해 결과기대가 높으나 성실성은 낮고, 학습 및 경쟁, 회피 동기가 모두 높으며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짜증이 높은 상황으로 심리적 불편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 A의 심리적 상황도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해석해 주었고, A는 결과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학습 및 경쟁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며, 현재 자신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높지만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는 시를 읽고 이에 대해 소감을 나눌 때 솔직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는데, 3회기에서 시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의 혹은 삶의 짐’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모습과 달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듯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오는 괴리감 또는 자격지심, 그리고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하였다. 이때 A는 처음으로 ‘자격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글 속 낙타가 자신의 혹은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 자격지심에 수치스러웠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로 인해 현재 낙타는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며 자책하느라 지친 듯 보인다고 표현하였다. 이후 상담 마무리 단계에서 아까 시를 읽고 작품 속 낙타에게 자신이 했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은 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고 하였다.

5회기에서 시를 읽고 작품 속에서 ‘분실물’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 A는 ‘즐거웠던 추억’이라고 답하며 이것이 자신에게는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 살면서 얻는

지혜'라고 답하였다. 작품 속 인물이 어렵게 되찾은 분실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이며, 자신이 '불안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어찌면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있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즐겁게 공부하던 좋은 추억까지 갉아먹었던 것 같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계속 대외활동에 매달렸던 것도 스스로의 자격지심을 잊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6회기에서 작품 속 새우가 웅크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A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 무기력해진 것 같다'고 표현하였고, 새우가 자신을 찾아와 준 '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스스로에 대해 돌아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와 줘서 고마워.'라고 답하였다.

A는 6회기 동안 학업상담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상담사와의 약속을 잘 지키려 노력하였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A는 자신의 우울감과 불안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시간관리 능력 향상'에서는 초기에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 일정 부분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들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무리하게 세운 계획을 모두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는 방학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하였고, 다음 학기에 만나기로 하고 초기단계 상담을 종결하였다.

2) 중기단계: 2022년 3월 - 7월

7회기에서는 지난 학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A의 변화 과정 점검을 위해 MLST-II 검사(2022년 4월 8일)를 한 번 더 실시하였고, 이전 학기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A는 성격 특성 중 성실성(다소 낮음-> 다소 높음), 회피 성향(높음-> 보통), 짜증(높음-> 다소 높음)으로 성격, 동기, 정서적 특성의 변화가 있었으며, 행동 특성 종합 평가(낮음-> 보통). 자기주도 학습지수(LQ, Learning Quotient)에서 (보통-> 다소 높음)으로 학습 행동 특성 전반에 걸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담사의 요청으로 실시된 U&I 학습성격유형 검사(2022년 5월 6일)에서도 확인되었다. A는 '행동- 탐구형'에 해당하며, 특성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으며, 활동적이고 독창적,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탐구 성향이 결합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흥미와 관심이 다양하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분석되었으며, A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초기 호소 문제였던 '성적 향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시간관리 능력 향상'에서 중기단계로 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는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A는 본 연구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이해받는 느낌에 위로를 많이 받았고, 자신의 성향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이 느꼈던 불안의 근원이 자신의 자격지심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어 2022년부터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중기단계의 프로그램 목표는 '성적 향상', '시간관리 능력 향상' 그리고 더욱 건강한 자기관을 확립하기

위해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회기에서는 A의 속마음을 탐색하기 위한 활동으로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자기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초기에서는 A의 사고방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위한 탐색의 일환이었다면, 이번 회기에서의 목적은 A가 회피하고 있던 부정적 감정들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었다.

<표 5> A의 문장완성검사 중 일부

연번	A의 응답
1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라는 느낌이다) .
2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다) .
3	남들이 잘 모르는 나의 단점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며, 고치고 싶다).
4	원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상황을 살펴본다).
5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이다).
6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남에게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7	내가 행복하려면(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A는 위 <표 5> 내용 중 1, 2, 3, 5, 6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인 관계’에 삶의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이를 표출했다가 혼자 남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이며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남에게 봉사하고, 그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평소 공감이 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성향이라고 말하였다.

유의미한 변화로 보이는 것은 4번 문항에서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상황을 살펴본다’고 응답한 것과 7번 문항에서 자신이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A는 작년까지는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해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차분히 살펴볼 용기가 생겼다고 답하였다. 또한 작년까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잘 살다가 빨리 죽고 싶었는데, 상담을 받은 후 ‘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고 싶어졌다’고 표현하였다.

9회기에서는 변화된 학습 습관을 점검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 ‘나는 어떤 나무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담은 나무 사진을 직접 검색하였는데, A는 건강한 아름드리나무 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을 ‘바오밥 나무’라고 표현하였고, 바오밥나무는 물을 저장했다가 주변 이웃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고, 더운 날은 사람들에게 그늘도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도 튼튼하고 내면도 단단한 나무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A는 더는 인간관계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품고 싶은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회기에서는 별-파도 그림검사를 진행하였다. A는 가운데 사람은 A 자신이며 그 옆에 있는 조개 2개, 불가사리 2개는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하였다. 좌측 상단에 크고 확실하게 표현된 별을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하게 해 주는 나의 꿈’이라고 응답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 A는 앞으로는 바람은 불어오겠지만, 조금 쉬면서 찬찬히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의 중심에 앉은 사람은 현재 좀 쉬고 싶은 상황이라 의자에 앉혀 주었고, 눈·코·입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감정을 어떻

게 표현해야 할지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은 것이 자신의 마음 같다고 하며, 쉬는 모습을 그렸지만, 여전히 책을 놓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공부를 좋아하지만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A와의 학업상담은 상담사와 함께 학습을 위한 시간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 일주일 간 이를 직접 실천한 후 다음 회기에 상담사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는 이전 학기에 진행된 초기상담부터 학습에 대해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단계 상담에서는 A의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파악되었는데, '불편한 것들을 계속 미루는', 회피하는 모습이였다. 이렇게 미루는 행동은 학습에서는 과제나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에 대한 시험 대비에서 나타났고,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참거나 자신이 포기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본 연구자가 이를 해석해 주자 A는 동의하였지만, 중기단계 상담이 진행되었던 학기에도 이전 학기와 마찬가지로 한 과목에서 '미루기 행동'으로 인해 낮은 성적이 예상되자 A가 스스로 한 과목의 성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2회기에서는 인물화 그림 검사를 진행하였다. A는 '얼굴 윤곽-머리카락-손-눈-코-입-몸-발-몸통-옷' 순서로 그렸으며, 이 사람은 A 자신이고, 나이는 20세, 천방지축의 이미지를 가진 여자이며, 현재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 행복한 척하지만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A는 손과 팔을 강조하여 누군가를 끌어안는 포즈를 그렸는데, 이것이 현재 자신의 모습 같다고 이야기하며, 그림 속 여성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는 활발하고 명랑한 것으로 굳어졌지만, 실제로는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13회기는 센터에서의 6회기 상담을 종결한 후, A의 요청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기단계의 상담을 마무리하며 시 고쳐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표 6> A의 시 고쳐쓰기 중 일부

제목: 가시나무의 외로움에서 피는 꽃

나는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되고 싶었어 / (단단한 내면)을 잘 가꾸고 싶었지
 정작 가시에 찢린 내 상처는 외면했어 / 그 상처가 곱아 터졌을 때 깨달았어 / 나는 행복한 (그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 깊숙이 박힌 가시들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고통)이 되었어
 그늘에서 쉬면서 궁금하면 찬찬히 봐 / 당신의 가시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언젠가 당신의 가슴이 다시 뛰면 / 그땐 용기를 내서(가슴에 따라서 대범하게 앞을 보고 달렸으면)해
 사실 그대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일지도) 모르니까

A는 제목을 '가시나무의 외로움에서 피는 꽃'이라고 정하였고, 이에 대해 나에게 존재하는 가시든 고통이든 그것들도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라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작품 속 두더지가 자꾸만 회피하고 감춰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조금은 맞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도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회피하기보다는 마주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중기단계 상담의 목표는 '성적 향상', '시간관리 능력 향상',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 이미 굳어져 버린 A의 패턴 중 불편한 것들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시간관리 능력'을 위한 학습계획과 이행에서는 이전 학기에 비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절대적 학습 시간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치료 프로그램에서

는 자신의 모습이나 내면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습관이나 그동안 외면했던 모습들도 모두 자신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3) 후기단계: 2022년 10월 - 2023년 1월

A는 후기단계 상담을 시작하며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전공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기존 전공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기에 휴학을 하고 싶지만, 졸업이 너무 늦어질 것이 걱정된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후기단계 상담에서는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과 성적 향상을 위한 '시간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후기단계에서는 A가 교내 특별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학습상담으로 신청하였기에 사전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5회기에 맞춰 상담 일을 함께 정하고 시작하였다. 6회기는 전체적인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을 마무리하기 위해 A와의 협의 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15회기에서 중간고사 대비 전략을 점검하던 중, 지난 초기, 중기단계에서 발견되었던 '미루기 행동'이 발견되었다. A는 학기 마다 가장 자신 없는 과목 공부를 제일 뒤로 미뤄 두다가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결과 낮은 학업성취도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A 자신도 어려운 것을 미루거나 외면하던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싶어 했지만, 3학기 째 같은 행동이 발견되자 스스로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회기에서는 상담 목표를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과 성적 향상을 위한 '시간관리 능력 향상'에서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과 '포기하고 싶은 과목 끝까지 해내기'로 변경하였다. 3학기 동안 반복되던 '미루기 행동'이 교정되면 A에게 긍정적 성공 사례가 되어 학업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였다.

위축된 A의 마음을 털어내고 정리하고자 '피하고 싶은 것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클러스터 기법 변형)' 활동을 실시하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토해내면 상담사가 이를 받아적고 이중 피하고 싶은 것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였는데, A는 '어려운 것을 미루거나 외면하던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싶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는 A가 반복되던 자신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수정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변화로 해석되었다.

16회기에서 본 상담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드러났다. A는 밝은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지난 회기에 포기하고 싶어했던 과목의 시험을 잘 봤다고 하였다. 이에 A에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게 하자, 미뤄 두었던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미리 공부했고, 걱정했던 것에 비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불편한 감정이나 번거로운 것들은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A의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은 후기단계에 이르러서였다. 불편한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해낸 후의 소감을 묻자 A는 '뿌듯하고, 아쉽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묻자, 진작 습관을 고쳤다면 더 잘할 수 있었기에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을 고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기쁘다고 하였다.

16회기에서는 중간고사 성찰 활동 후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를 이야기한 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A는 이 활동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A는 남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 욕심이 많다. 하나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표현하였고, 자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긴 한 것 같다'며 '뭔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후기단계 초기 상담 시 자신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고민했던 것을 스스로 언급하며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17회기에서는 기말고사 대비 학습 전략을 세우며, A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위해 클러스터 기법을 변형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활동을 진행하였다. A는 여전히 학과 학생회 활동과 대외활동,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학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전공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현재 복수전공 중인 2개 학과 수업을 모두 잘 해내고 싶고, 휴학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학과 공부’와 ‘대외 활동’, 가장 긴급한 일은 ‘학과 공부’를 선택하였다. 중요하면서 긴급한 것으로 선택된 ‘학과 공부’중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묻자, 지난 중간고사 때 미뤄두고 있던 과목을 이야기하였고, 이번에도 미뤄둘 것인지 묻자 자신이 설정했던 학습 전략을 수정하며 미뤄뒀던 과목을 앞으로 이동하였다.

18회기에서는 기말고사 성찰 활동을 진행하며 문장완성검사를 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장완성검사는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A는 자신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첫째는 포기하고 싶었던 과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0라는 성적을 얻은 것에 대한 뿌듯함과 만족감이었고, 둘째는 전체 과목의 성적에 대한 불만족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었다. 후기단계 상담 과정 동안 A는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불편한 것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습관을 수정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과목을 끝까지 해냈다는 점, 만족스럽지 못한 과목의 실패 요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로 분석된다.

<표 9> A의 문장완성검사 중 일부

연번	A의 응답
1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끼는 이들이 떠나가는 것과 불확실한 미래다).
2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예의가 없고 이기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3	남들이 잘 모르는 나의 단점은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게으르다는 것이다).
4	나에게 좋은 친구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편하게 안부 물을 수 있는 친구다).
5	나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먼저 떠나갈 준비를 할 사람, 그렇기에 너무 정들지 않게 벽을 세운 사람이다).

A는 문장완성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성격적 변화를 보였다.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감정을 표출하기를 꺼렸던 모습이 강했던 초기단계에 비해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출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초기에 비해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19회기에 걸친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을 마무리하며 A의 활동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누며 앞으로 이어질 미래에 대한 긍정적 자기 요소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A는 자신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 바뀌었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였다. 불편한 것들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조심스럽고 어려워서 배워보고 싶다고도 하였다. A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였지만,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시각에 대해서도 진

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기이해 및 탐색을 통한 자기수용의 결과로 판단되며, A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고백한 감정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A는 후기단계에서 목표했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과 ‘포기하고 싶은 과목 끝까지 해내기’를 끝까지 완수하였다. 계속 미뤄두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과목의 학습을 끝까지 해낸 후 얻게 된 좋은 성적이 앞으로도 노력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면서, 동시에 향후 취업 및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에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학사경고나 학업부진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대학생 A의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타난 A의 자기수용 과정과 그로 인한 유의미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와 미술, 사진, 이야기 치료 등을 활용한 인문치료 기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치료(시치료, 미술치료 등) 프로그램은 대학생 A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위한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주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 및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었던 A는 인문치료 프로그램 중 진행된 자기탐색 및 이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오랜 습관을 깨닫고 이를 수용하며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A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수용은 A의 학습 습관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초기-중기-후기단계로 구분된 총 19회기 과정 중 15회기(후기단계 중 2회기)에 이르러서야 A는 자신의 ‘미루기 습관(회피 행동)’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습관의 수정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고, A는 노력에 의한 긍정적인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문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이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내담자 마다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학업상담에 인문치료 프로그램을 융합한 것이므로 횡수 및 상담 시간, 장소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인문치료 프로그램만의 효과를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상담 환경과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11), 『인문치료의 이론과 원리』, 산책.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17), 『인문치료의 이해』, 한국문화사.
- 고혜진 외(2019), 『따뜻한 바람에도 가슴이 시리다』, 서울: 꿈공장.
- 고혜진(2020),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서울: 꿈공장.
- 권석만(202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학지사.
- 남상은·유기웅(2017),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교양교육연구』, 11(1): 281-311.
- 남영옥·이대형(2016), “학사경고 원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48(3): 131-15.
- 스기우라 교코(衫浦京子)·가네마류 류타(金丸隆太) 저, 이근매 역(2019), 『투사그림검사: 별-과도그림검사, 발테그림검사, 나무그림검사』, 서울: 학지사.
- 심효진·김정섭(2021), “학사경고자를 위한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요구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187-206.
- 양곤성·김광수(2021), “자기수용 개념 연구의 역사적 동향 탐색과 제언“, 『상담학연구』, 22(1): 1-17.
- 유강하(2010), “인문학, 인간다운 삶을 빛다“, 『중국어문학논집』, (65): 601-623.
- 이민용(2017), 『스토리텔링 치료』, 서울: 학지사.
- 장경서·정영인(2018), “대학생의 별-과도 그림검사에 나타난 분노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 19(1): 115-138.
- 황매향(2021), “국내 학업상담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상담학연구』, 22(6): 75-90.
- Rogers, C. R. (1944). The development of insight in a counseling relationship.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8(6), 331-341.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95-103.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Vol. 3 (pp. 184-256). New York: McGraw-Hill.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난민의 이미지는 대개는 부정적이다. 특히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입국 이후 양산된 ‘가짜 난민’ 담론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난민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온 사람’, 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하였다(이병하, 2018). 또한 정부의 정책이 난민을 ‘시혜의 대상’이거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는 담론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의 역할을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이유혁, 2007).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은 한국 시민사회의 난민에 대한 확장된 사유를 억제한다. 예컨대 한국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난민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능동성’,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성’,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을 차단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난민 담론에 대항하는 대안으로서 난민 개인 혹은 집단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인 주체로서 재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탐구하는 데 주목하였다. ‘주체화’는 “어떻게 예측의 상태에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권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쟁취하고, 실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서 “삶을 만드는 것(to make live)”(Johnson, 2016: 60)이며,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과정이고, ‘인정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이유혁, 2007). 나아가 자신들의 인권이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보편성을 재정의하고, 민주주의의 배타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김병곤·김민수, 2015) 가능성을 확장해 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난민이 외부자의 시선을 가지고 기존 사회의 법과 제도, 사회문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비판적인 동력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난민을 정치적 주체로 새롭게 본다는 것은 난민 자신에게는 자신이 속했던 집단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권리의 이름으로 공적 영역의 행위자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난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역할 가능성이 확장되어 사회 내에 다양한 타자들에 대한 개방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난민을 정치적 주체로서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있다(김철효, 2019; 류수경, 2017; 박상희, 2019; 이유혁, 2007; 이희영, 2010).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된 난민들이 겪는 배제 담론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철효(2019), 이유혁(2007)은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이주민 운동에서 이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화되는 ‘이주민 지원 운동’ 차원의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발적이고 주체적

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국 사회운동의 정치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이주민, 난민의 운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의미 있는 행위를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행위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부인의 인정투쟁으로만 바라보거나 혹은 단순히 적응 혹은 부적응의 문제로만 보던 기존의 소극적인 난민 담론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류수경(2017), 박상희(2019), 이희영(2010)은 당사자의 구술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며 사회의 저변을 확장해 온 난민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류수경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정치적 난민이 초국적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난민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변화를 가져온 의미를 탐구하였다. 박상희는 주로 아프리카 문화권 난민의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배제 경험을 인종주의에 기초한 열등성과 사회문제로 타자화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으로 난민의 능동적인 행위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을 다룬 이희영(2010)의 연구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가 적응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가치규범과 거리두기를 통해 새로운 비판적 동력으로 등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들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한 난민¹⁾의 생애 경험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 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동화, 타협, 거리두기, 저항, 비판, 탈예속과 같은 생애 경험이 개인의 경험으로 축소되지 않고,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생애 경험 말하기는 화자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의 궤적을 객관화하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는 데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가 한국에 정착한 혹은 정착하고 있는 난민 개인 혹은 난민공동체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난민의 생애 경험에 나타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조명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기여하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1) 한 난민의 생애 경험에서 정치적 주체로 나서는 과정은 어떠한가. 2) 한 난민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및 논의

난민은 “근거가 충분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며, 본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실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의존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국제난민협약 제1조). 이렇게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하는 난민이 2022년 현재 1억 명을 넘었고, 그중 절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표류하거나 피난처를 찾아 국제 사회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UNHCR, 2022). 2018년 한 해 동안만 이동하는 중에 실종 혹은 숨진 사람이 약 4천 500명에 달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 IOM, 2018년 자료).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자발적인 난민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연대·협력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체성 협상을 벌여나가는 난민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버마 민주화 운동가 경험을 가진 난민공동체를

1) 최영일(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에 대해 “전략과 연대의 활성화와 시민사회 포섭과 재한준머인연대의 투쟁과 지향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역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른 류수경(2017) 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소속된 난민공동체인 재한쑤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in Korea, JPNK, 이하 재한쑤머인연대)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재한쑤머인연대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10여 편 정도 발표되었다(로넬 차크마 나니·오경석, 2014; 박미숙·김영순, 2020; 박상희, 2010; 어경준, 2021; 오경석, 2011a, 2011b; 오흥미, 2019; 유승무 외, 2013; 이창호 외, 2026; 최영일, 2019). 재한쑤머인연대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인한 소수민족 탄압에 맞서 자치권을 요구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에 난민으로 이주한 쑤머인들(Jumma people, 이하 쑤머, 쑤머인)의 공동체이다. 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쑤머인들이 난민 신분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쑤머”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재한쑤머인연대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 전략에 대해 탐구하였다. 유승무 외(2013)의 연구는 최영일(2019)에서 제기한 몇 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난민화를 촉발시킨 전 - 국가 정체성(pre - nation - state identity)의 구성 요소들이 난민들의 적응전략과 보호국 지원단체의 성격에 따라 난민공동체 내부의 분화(실금)를 촉발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또한 이창호 외(2021)는 쑤머인들이 고국에서의 고통스런 탄압의 트라우마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고향의 상황으로 인한 죄책감, 고향과 거주국 문화 사이의 양가감정 등 복잡한 문화적 사별을 치유하는 기제로서 전통 축제인 보이사비(Boi-Sa-Bi)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최영일(2019)의 연구는 쑤머인들의 역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적응 전략을 다층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쑤머인들의 정착과 적응 전략을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성과를 이론적 배경,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을 이미 소개한 오경석(2011a), 로넬 차크마 나니·오경석(2014)의 연구는 본 연구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빠진 부분을 보완해주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다만 선행연구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대해 좀 더 집중하였다. 먼저 쑤머인들의 정치적인 주체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역할, 공동체 내의 개인 활동가의 역동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쑤머인들의 활동이 쑤머인 자신의 인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타자에 관하여 개방적인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낼 것이라는 기대는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쑤머인들을 대등한 관계로 보지 못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 것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해서 보고자 하였다.

2. 정치적 주체로서의 쑤머 난민

디아스포라 개념화를 시도했던 윌리엄 샤프란(William Safran, 1991)의 정의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는 다음의 몇 가지를 함축하는 의미이다. 1) 본래 살고 있던 “중심”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주변” 지역으로 이주, 2) 고국(고향)에 대한 집단적 기억, 환상 또는 신화 유지, 3) 수용국가 주민들이 자신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인식, 4) 고향을 때가 되면 언젠가 귀환해야 할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조국과의 관계를 유지, 5) 고향을 수호하고 되찾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 6) 고향의 존재가 집단의 민족정체성 및 결속력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Mrinal Kantl Chakma, 2017). 디아스포라 난민은 이렇게 국가 내부에 있지만 “국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고, 독재와 예측을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고향 땅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다. 재한줌머인연대 사람들 역시 정치적 소속은 방글라데시이지만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이하 CHT)의 선주민으로서 “벙골인이 되라”는 소수민족 동화 정책에 맞서 저항하다가 고향 땅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난민이다.²⁾

전 세계 난민 중 상당수는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인종과 종교적 갈등 경험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자신들의 원초적인 정체성(전-국민국가 정체성)을 부정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원초적인 정체성이 국민국가에서 강제하는 정체성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포섭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나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이 되었다는 것은 국적국의 정체성 강요를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전-국가 정체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이다(유승무 외, 2011:49). 방글라데시가 헌법에 ‘무슬림 벙갈리인들의 국가’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CHT 선주민들이 각자의 문화 정체성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예측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글라데시 정부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고 예측되지 않으려는 줌머인들의 저항운동은 불평등한 메커니즘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정치적 주체로서의 권리이다.

줌머³⁾는 CHT 구릉지의 환경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한 줌(Jum)이라 불리는 화전 농업 방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영토적 의미를 수반한다. 줌머는 적어도 11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가장 큰 소수민족인 Chakma와 Marma는 주로 불교도들로 구성되었고, Tripura는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또는 애니미즘과 같은 전통신앙을 믿는 소수민족들도 있다(Willem van Schendel, Wolfgang Mey and Aditya Kumar Dewan, 2001: 147). 즉 줌머는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나 문화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정체성 범주로서의 ‘줌머’는 벙골 무슬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단결을 강조하고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룹 간의 문화적 구분과 권력 관계를 흐리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적 개념(Eva gerharz, and Corinna Land, 2018: 1891)이다. 방글라데시 내에는 4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줌머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줌머’는 CHT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무력 투쟁에 참가한 선주민들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저항 공동체”(유승무 외, 2013)라고 할 수 있다.

CHT는 178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주민인 소수민족의 독립된 삶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영국식민정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받았다. 특히 파키스탄 시절인 1962-1964년에 CHT 선주민의 이

-
- 2) 최영일(2019)은 줌머인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대해 윌리엄 샤프란(William Safran, 1991)의 정의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① 고향을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찾아야 할 곳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귀환의 희망을 포기한 자들이 대부분이고, 자신들 뿐 아니라 후손들은 귀환이 불가능 것이라고 하는 귀환의 절대 절망의 관점이 상존한다는 점 ② 수용국을 정착할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립 보다는 동화 혹은 통합에 몰두한다는 점, ③ (국민의 지위로부터 배제 시킨 방글라데시를) 미화하거나 이상적 신화로서 모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과 시민권 배제와 폭력의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④ 피해자로서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족에 대한 기억과 절망에 기인하여 현지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인접국 혹은 해외로의 탈출을 지원하고 갈망한다는 점 등이다.
- 3) 본 연구에서는 ‘줌머’의 개념을 화전농업을 하는 선주민이라는 의미보다는 CHT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치공동체를 형성한 11개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주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CHT 랑가마티 지역의 카르나폴리강에 캅타이댐 건설을 강행하여 선주민의 25%인 1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CHT 선주민들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박탈했다. 특히 1971년 파키스탄 내전 후 방글라데시 국가 건설 후에는 모든 국민을 ‘벵갈족’으로 정의하고, 벵갈족 이외의 민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벵골 민족주의로 인해 CHT의 소수민족의 주변화와 경제적 궁핍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대한 CHT 선주민의 불만과 저항은 줌머민족정체성 형성을 가속화시켰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CHT의 요지에 벵골 군대를 배치시켰고, 1979년과 1984년 사이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비밀 이주정책에 의해 40만 명의 벵골인들을 CHT로 이주시켰다. 이주정책과 군사화 정책으로 CHT는 농토를 잃은 사람들, 강간을 포함한 폭력, 방화, 그리고 게릴라 진압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집단학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진행된 13회의 대규모 학살 사건을 학자들은 “서서히 진행되는 ‘집단 학살 (creeping genocide)’이자 ‘특정 민족집단의 문화 말살행위(ethnocide)’로 규정하였다 (Mark Levene, 1999 : Bhumitra Chakma, 2010). 1997년 12월 2일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어진 인권 유린 및 선주민 학살로 CHT 선주민들은 인도, 유럽,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피신하여 난민이 되었다.

1994년, 한국에 도착한 줌머인들은 미등록체류자 신분으로 귀환과 재입국을 반복하면서 재한줌머인연대를 조직하고 CHT 선주민 줌머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시민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CHT의 자치권 확보와 인권탄압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줌머인들의 저항과 비판의식은 때로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 시민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그 저항과 비판의식은 개방적이고 통합적이고 평등주의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푸코(Foucault)의 말을 빌리자면 줌머인들의 이런 저항과 비판은 “통치되지 않으려는 기예”이자 “자발적인 불복종”이고 “성찰적인 비순종의 기예”로서 “탈예속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가지는 것”이다(Foucault, 1978: 진태원, 2007: 191-195 참조).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예속이란 “행위자들의 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그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한정하는 것”을 뜻한다(진태원, 2007: 194).

Honneth(1992), Taylor(1995)에 의하면 정체성은 타협과 협상 등 인정투쟁의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혹은 재구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예속에 저항하고 줌머인으로 살고자 난민의 길을 선택했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배제와 타자화를 경험하고, 동화와 타협, 거리두기, 때로는 연대하며 정체성 협상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치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난민은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패러다임, 시민사회의 타자화 방식에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Benjamin Muller(2004)는 난민을 “[한편으로] 테러리스트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강화시킬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사이의 역설”(Muller, 2004: 50)로 표현하는데, 이는 난민의 정체성이 위로부터는 정치적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래로부터 도모되는 저항자의 생명정치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이유혁, 2007:203 재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 개인으로 보면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초국적 이주 경험, 혹은 특정 집단의 인정투쟁의 내용과 양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줌머 민족으로 통칭되는 개념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난민으로 이주하기 전·후의 개인의 특정 생애 경험, 이

주 후 적응과정에서 겪는 개인적인 갈등과 희망, 그리고 태도를 포함한다. 즉 개인의 역동적인 삶의 궤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의 경험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회와 위험, 그 외에 개인의 생애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정체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 난민이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적 주체로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구술을 통해 삶의 궤적, 전환점, 전이 과정, 상호작용, 느낌, 감성 등 삶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고, 개인의 특정 생애 경험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도출해 내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동성(2015)에 의하면 생애사 연구는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 인간화라는 방법적 특징을 가진다. 맥락성이란 사회적 제약, 삶의 기회와 전환점 등의 사건에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선택과 의사결정, 사회구조 내의 각 개인의 위치와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연관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한경혜, 2005: 13). 내러티브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서사 구조로서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이해방식, 의미부여의 방식이 강조된다. 이때 연구자의 이론적 렌즈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속에 침전된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성찰적 민감성이 요구되며(이동성, 2015),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력적 연구로 간주관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이 중요하다. 또한 생애사 연구는 주변화된 삶의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역동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투쟁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적인 연구 방법이며, 대항문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생애사 연구 방법은 사회구성원들의 미시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맥락을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사회현상의 주체인 개인을 사회적 조건이나 구조에 일방적으로 함몰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해방적인 존재로 상정한다(이동성, 2015: 31). 따라서 한 난민 개인이 한국 시민사회의 주체 세력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는 삶의 궤적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 방법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그동안 지역 활동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Chakma R이다. 그는 1994년에 난민 신분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2백여 명의 재한쑤머인들이 정착하기까지 쑤머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는 그와 함께 쑤머 민족의 명절 행사인 '보이사비 축제'를 기획한 경험이 있으며, 쑤머 2세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어로 시를 쓰고, 난민 인권운동가로서 토론회, 강연에서 한국어로 대담을 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합리적인 쓴소리를 할 만큼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의 삶의 궤적에서 중요한 몇 지점을 의미 있게 탐구하고자 그를 이 소논문의 연구참여자로 초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 자료로 면대면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와 연구참

여자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회당 2-3시간씩 5회 진행하였으며(1차: 6월 17일 16시-18시, 2차: 7월 8일 10시-13시, 3차: 7월 29일 10시-13시, 4차: 9월 30일 13시-16시, 5차: 11월 14일 19시-21시), 몇 차례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면담은 삶의 전환점이 되었거나 전이가 일어난 사건과 경험, 그때의 감정과 기억들을 소환해낼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방식을 취했다. 심층면담 내용을 보완하고 내러티브 의미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 연구참여자가 직접 쓴 글들, 선행연구의 심층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10년까지의 R의 생애 경험에 대해서는 R이 영어로 직접 쓴 글과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번역,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오경석(2011a), 로넬 차크마 나니·오경석(2014)의 글을 참고하였다.

자료분석은 Mandelbaum(1973)의 생애사 연구의 분석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단위인 “시간성의 ”세 가지 개념인 ‘차원(dimensions)’, 전환(turnings), 적응(adaptation)을 텍스트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차원이란 연구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주된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이고, 전환이란 한 개인의 삶의 궤적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한경혜, 2005: 15). 적응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타임라인으로 만든 후 변화를 가져온 사건 중심으로 개인적, 혹은 사회적·역사적 요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 사건별변화의 시점에 연구참여자의 선택, 고민, 적응, 관계 등의 태도를 기존 선행연구 및 사회이론을 연결하여 교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추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에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연구참여자 R의 생애 경험을 개인 영역, 공동체 영역, 사회 영역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3개 주제(선주민으로서 탈예속의 삶, 난민으로서 전략적 삶, 정치적 주체로서 비판적 삶), 6개 소주제(자유, 사랑, 꿈의 원천 회복하기, 자치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기, 난민되기와 소속되기, 전업활동가로 살아가기, 상호작용하기, 지역구성원으로 함께 하기)로 재구성하였다.

〈표1〉 심층면담 분석 결과 영역과 주제

영역	주제	소주제
개인 영역	1. 선주민으로서 탈예속적 삶	1) 자유·사랑·꿈의 원천 회복하기
		2) 자치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기
공동체 영역	2. 난민으로서 전략적 삶	1) 난민되기와 소속되기
		2) 전업활동가로 살아가기
사회 영역	3.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삶	1) 상호작용하기
		2) 지역구성원으로 함께 하기

1. 선주민으로서 탈예속의 삶

1) 자유·사랑·꿈의 원천 회복하기

R은 줌머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방글라데시 CHT 중부 랑가마티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차크마(Chakma, 이하 차크마) 사람이다. 그가 1994년 처음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그의 국적은 방글라데시였다. 하지만 그는 방글라데시의 주류인 벵골인

(Bengalian)과 민족, 종교, 언어, 외모가 완전히 다른 차크마 사람이며, 지금은 김포 이씨로 창성 창본을 한 한국인이다. 그의 주민등록증에는 1972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1968년, 혹은 1969년쯤이다. R이 자신의 생일을 그쯤일 거라고 짐작하는 건 캅타이댐 건설로 인해 랑가마티(Rangamati)가 완전 수몰되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던 사건 때문이고, 그의 가족이 판차리(Panchari)로 이주를 한 다음 해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시에 랑가마티에 살던 사람들은 캅타이댐 이후 대부분 북쪽 카그라차리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인도 국경지대인 카그라차리 지역은 남으로 흐르는 마이니강, 쟁기강, 카자롱강이 이룬 거대한 협곡이 정글을 이루고 있었다. CHT의 협곡과 울창한 숲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웠다.

“그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이때의 기억이 아주 평화로운데 쟁기강은 그냥 자연 수영장이고, 숲에는 야생 과일이 아주 흔했어요. 우리는 학교 갔다 집으로 오는 길에(그의 말소리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가 으레히 거기로 가요. 숲으로 가는 거지. 바로 산길을 타고 숲으로 가서 자연 수영장에 들어가 놀고, 거대한 블랙베리 나무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열매를 배부르게 따 먹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배가 고팠는데, 과일이 아주 아주 좋은 간식이었어요”(1차 심층면담).

1975년 전후로 방글라데시 전 지역은 대기근으로 아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마을에 나눠주는 통밀을 빵아 로띠(빵)를 만들어 먹었지만, 빵이 주식이 아니었기에 늘 허기졌다. “산에 가면 산마를 캐서 생긴 흙구멍 밖에 없다.”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귀했던 때라 숲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야생 과일은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간식이었던 셈이다. 집집마다 잭푸르트, 망고, 리치 등 과일나무가 많았는데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다. 학교에 가려면 광활한 논을 가로질러 한 시간여를 걸어야만 했는데, 학교로 오고 가는 숲과 논밭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놀이터이자 학습장이었다. 그의 깊은 내면의 자유와 사랑과 꿈의 원천이었던 CHT의 자연은 그가 어린 나이에 게릴라에 가담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초록색 산들, 작은 강들, 새소리와 온갖 동물들의 노랫소리는 어린시절부터 내 생활의 일부였고, 자유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벵갈리 족들에 의해 유린당한 그러한 자연에 근거한 자유를 나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되찾고 싶었다.”(오경석, 2011: 244)고 회고하였다.

서파키스탄(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인 1971년 12월 5일, 벵갈리 무크티 바히니 부대(벵골 부대)가 마을을 점령하고, 줌머인들에 대한 살인과 방화 등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였다.

“4살 때쯤 인 거 같아요 전투기들이 매일같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전투기 뒤를 다른 전투기가 따라가는 걸 봤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방글라데시 전쟁 때였는데, 벵갈리 부대인 무크티 바히니(Mukti Bahinee)가 마을에 오면 사람들이 미리 도망가기 위해서 낮은 구릉 언덕 위로 생활용품들을 미리 던져두는 거죠. 무크티 바히니가 오면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르면서 이리 저리 막 뛰면서 소리치르고, 도망가고 했어요.”

“무크티 바히니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벵갈리 사람들이 파키스탄 민족주의자로부터 당했던 박해가 줌머인들에게 그대로 전이된 것에 불과했다”(오경석, 2011: 241). 9개월의 전쟁이 끝나고 같은 해 12월 16일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제부터 방글라데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벵갈리 사람이다.”라고 공표함으로써 방글라데시에 사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도 “종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벵골인이 되라”고 강요하였다. 많은 줌머인들이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으로 이에 대응하였고, ‘줌머’라는 정치공동체로 결집해 나갔다. 앞서 서술하였듯 줌머는 내부적으로 언어, 종교, 문화, 풍습이 다른 11개 소수민족의 정치공동체로서 벵갈리인들의 무력에 대응하고 CHT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개념이다.

당시 마을에서 벵갈리 군인들이 때때로 게릴라 수색 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티 바히니 혁명군들은 항상 정글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산티 바히니 소속 활동가였기 때문에 집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서 집에서 3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대나무로 임시거처를 짓고 혼자 지냈다. 엄마를 따라 아버지에게 가는 날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서 길라(Ghila) 꽃을 보려고 항상 두리번 거렸다. 우산만큼 큰 그 꽃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그 꽃을 보고 차크마 민족의 서민이었던 칼린디가 왕비가 되었다는 전설 때문에 R은 늘 길라 나무 쪽을 바라보고 걸었다. 그의 상상 속에는 늘 가족, 민족, 산티 바히니가 있었다.

“진짜 꽃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항상 바라봤어요. (중략)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왕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힘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한 거지. 산티 바히니도 일반 사람들도 평화롭게 살고, 이런 꿈들이 진짜...우리 엄마가 왕의 엄마가 돼서 엄마도 아빠도 행복하고 그런 상상할 때 되게 행복해”(3차 심층면담).

2) 자치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기

1980년 3월 25일, 벵갈리인들에 의해 3백 명의 줌머인들이 대량학살 되던 날을 R은 또렷이 기억한다. 벵갈리 군인들이 불교사원 재건을 논의하자며 줌머인들을 칼람파티(Kalampati) 카우칼리(Kaukhali) 시장에 모이게 해서 아이와 여성 가릴 것 없이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하였다. 이후 벵갈리 군대가 CHT의 요지에 주둔하게 되었고, 40여만 명이 넘는 벵갈리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부터 CHT의 자연환경이 망가져 갔다. 그리고 이주해 온 벵갈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선주민들의 일상생활 모두가 피해를졌다. CHT의 자연과 선주민들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 R은 19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열일곱 나이로 산티 바히니(줌머 혁명군)에 가담했다.

“그때는 이제 학생들도 대부분의 학생들도 다 이제 게릴라 운동에 참여하는 시기였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보면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한 정도예요. 나랑 나이가 비슷하고, 또 나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도 많이 가담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잡담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찢어진 옷을 이렇게 다시, 뭐지요? 네, 꿰매 입고 그러면서 정신무장을 한 거지.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그니까 통제도 심하니까, 처음에 애국심으로 갔지만 적응 안 돼서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3차 심층면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은 쉽지 않았지만 R은 “우리 민족의 인권을 지키고 나 스스로도 변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전쟁을 없애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신무장을 했다. 훈련을 마치고 그는 조직과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되었고, 주요 임무는 지역주민의 모임을 조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직론, 정치 이론, 대중연설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줌머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철학과 이념학습도 하였다. 그때의 활동 경험은 이후 한국으로 이주 후 재한줌머인연대(JPNK)를 조직하고 줌머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응전략을 세우고,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싸우는 모든 비밀 무장 조직이 게릴라 단체이며, 그 조직원들이 게릴라이다.’ 수많은 일본군이 사살된 보우동(봉오동)전투 영화가 기억납니다”(9월 30일 4차 심층면담 후 문자로 보내온 글).

재한 줌머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활동가로부터 듣게 된 “게릴라였던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R이 문자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였을까 하는 점이다. 봉오동 전투가 생각난다는 그의 말은 사람들이 줌머인들이 왜 그렇게 무장투쟁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항의 방식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다. ‘폭력적인 투사’, ‘반정부 활동가’, ‘게릴라 부대원’, ‘전사’ 등으로 묘사되는 줌머의 이미지가 “박해의 경험이 그들을 불가피하게 전사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단순화되는 데 그치고, “자연과 자유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은 결코 드러낼 수 없을 것”(오경석, 2011b)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주민으로서 자유의 원천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하는 예측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선택한 삶인 것이다.

“CHT 게릴라 혁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조직적인 혁명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4차 심층면담).

그는 줌머인들의 게릴라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가 불편한 것은 자신의 게릴라 활동 이력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치판단과 보는 방식의 문제가 따른다. 그는 투철한 이념과 활동력으로 산티 바히니의 리더들과 줌머 시민사회로부터 ‘CHT의 자치와 평화를 위해 정의롭게 싸우는 활동가’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중활동으로 그는 방글라데시 군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1986년 10월 23일에 체포되었다. 1년 6개월 동안 게릴라 활동을 한 댓가로 그는 생지옥 같은 고문을 견뎌야 했고, 만 3년을 카가리차리와 치타공 감옥에서 복역한 후 출소하였다.

석방된 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문대학에 들어가 1993년에 졸업했지만 군대와 정보요원의 감시로 그의 가족은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그는 큰형, 작은형과 어려서부터 정치적인 이념이 달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각자의 처지가 달라서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늘 조심스럽고 힘들었다. 그의 큰형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대를 나와 국립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늘 조심스러워했다. 작은형 역시 공부를 마치고 바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해해야만 하였다. 그의 형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아마 내가 산티 바히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등교육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세상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2022년 12월 15일 문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예측되지 않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그를 해외로 피신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는 태국으로 건너가 1년 정도를 지내다가 1994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2. 난민으로서의 전략적 삶

1) 난민되기와 소속되기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낯설었고, 관광비자였기 때문에 미등록체류자로 직업과 거처가 늘 불안정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쯤머의 존재와 CHT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1997년에 “재한 방글라데시 토착 선주민 불교협회(Bangladesh Indigenous Buddhist Association in Korea, BIBAK, 이하 불교협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불교협회는 R과 동료, 일곱 명이 친목을 다지는 정도의 자조모임이었다. R은 1998년에 CHT로 귀환했다. 1997년 12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쯤머 정당 PCJSS간에 CHT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쯤머인 활동가들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일상적인 토지강탈과 인권유린이 반복되었다. 쯤머 내부적으로는 책임 문제를 두고 평화협정을 주도한 세력과 CHT의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며 반대한 세력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⁴⁾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때 서너 명만 남고 다 CHT로 귀국했었는데, 현지 상황은 많이 위험했어요. PCJSS하고 UPDF하고 내부 갈등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2000년에 다시 한국에 왔어요. CHT 상황을 알리고, 그렇게 방글라데시에 압력을 넣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때 우리 일곱 명이 신분이 불법체류자였는데, 불법체류여서 숨어서 지냈어요. 우리가 같이 대곶면에 정말 너무 안 좋은, 화장실도 없고 열악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았어요”(2차 심층면담).

방글라데시 정부의 평화협정 불이행으로 현지 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2000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R과 동료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미등록 체류자, 불법 취업자 신분으로 살았다. 하지만 한국으로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했기에 쯤머 일곱 명은 대곶면의 집을 사무실로 하고 재한쯤머인연대를 결성하였다. 허름한 사무실이었지만 책을 읽고,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다가 2002년 4월 14일, 보이사비(Boi-Sa-Bi)⁵⁾ 명절에 맞춰 축제와 함께 재한쯤머인연대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한국에서의 자발적인 쯤머운동을 전개하였다.

4) 1997년 12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쯤머 정당인 PCJSS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PCJSS는 무기를 반납하고 무장투쟁을 끝낼 것, 방글라데시 정부는 CHT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철수하고 비무장화할 것, 트리푸라로 피난간 난민 귀환 조치, CHT 지역위원회(Chittagong Hill tract Regional Council)의 동의없이 CHT로의 이주, 토지의 양도·임대·강제수용 금지, 이전의 불법적 소유권 무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쯤머정당은 PCJSS의 무장조직이었던 산티 바히니를 해체했으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일부 군부대만 철수하고 오히려 경찰 병력을 늘렸으며 PCJSS 소속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협정을 이행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협정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관여가 전혀 없이 진행된 것이었고,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CHT의 자치를 위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CHT의 완전자치를 원하며 평화협정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은 1998년 12월에 UPDF(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UPDF)라는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켰다. (재한쯤머인연대·김종철·최원근·이영백, 2009 CHT 쯤머인 인권 조사보고서 참조). R은 당시 평화협정을 맺을 때의 PCJSS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걸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완전 자치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인민연합민주전선(UPDF) 당원이 됐다”(재한쯤머인연대, 2012:130).

5) 보이사비(Boi-Sa-Bi)는 트리푸라 민족의 말인 BOISUK의 BOI, 마르마 민족의 말인 SANGRAI의 SA, 차크마 민족의 말인 BIZHU의 BI의 합성어로서 한 해의 마지막 2일과 새로운 첫날(매년 4월 둘째주)에 걸친 쯤머의 새해 명절이다.

“초창기엔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 슬픈 얘기,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의 존재부터 알리려고 단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절에도 가고, 이주노동자상담소도 가고, 인권단체, 종교단체들에도 무작정 찾아갔죠”(R 인터뷰, 재한줌머인연대, 2012:133).

방글라데시에서도, 한국에서도 안정되게 소속된 경험이 없는 줌머인들로서는 재한줌머인연대 결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재한줌머인연대는 “한국 사회에서 점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정착을 모색했던 난민공동체”(최영일, 2019: 12)이며, “난민의 목소리를 내고 난민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줌머의 문화 종교, 언어, 전통을 누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들 예컨대, 취업이나 교육, 친목 등에 유연하게 대응”(박상희, 2022)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재한줌머인연대의 적응전략은 다른 이주민들과는 다르게 중첩될 수 밖에 없었다. CHT 토착 선주민으로서의 자치권 확보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적응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다중적인 전략이 필요하였다. 먼저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난민되기”를 선택하였다. R과 동료들은 2002년 10월 17일에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유엔난민기구(UHCR)와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박해를 받았으며’,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박해가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난민 심사를 받아야 했다. “나는 두려웠다. 내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오경석, 2011a:258). 난민신청자에게는 합법적인 노동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은 난민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 취업으로 공장을 옮겨다녀야 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이면 공장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줌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을 찾아다녔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지 2년이 지난 2004년 12월 13일에 R과 동료 10명은 한국의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난민되기’는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재한줌머인연대에 관한 중앙 언론 매체의 기사는 줌머 10명이 난민 인정을 받은 직후였다. 또한 ‘난민되기’ 전략은 줌머운동과 한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기폭제가 되었고, 한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일이었다. R과 동료들은 거리 사진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 CHT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자료 번역 및 배포, 문화행사 개최, 시민단체 교류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보이사비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 6년 동안은 서울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보이사비를 진행하였고, 2008년부터는 줌머공동체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김포에서 매해 4월에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교류해나갔다. 이런 측면에서 보이사비는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소속되기”를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2017년 보이사비는 문화행사와 함께 프랑스,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줌머 활동가, 예술가가 참여한 ‘국제줌머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줌머들의 활동을 공

6) 2003년, 이주민인권단체 ‘피난처’를 통해 “Life Is Not Ours”를 번역해서 “줌머인들의 빼앗긴 삶”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다.

유하면서 초국적 국제연대를 펼쳤다. “국제줌머네트워크와의 연대 및 소통은 재한줌머인에게 줌머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유승무 외, 2013)이기도 하였다. 2019년 보이사비 축제 때에는 소수민족별로 전통옷을 입고 소수민족의 깃발을 들고 지역의 풍물패와 함께 양촌 거리에서 평화행진을 하였다. 이렇듯 보이사비는 “내부적으로는 줌머인들이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CHT의 실상을 알리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는 의미가 있으며, 초국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최영일, 2019:212-216).

2) 전업 활동가로 살아가기

당시 재한줌머인연대의 사무국장이었던 R의 경우 2003년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줌머 난민 자녀로는 처음으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황이라 가족이 한국에 적응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다. R은 실무적인 대표활동가로 일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해 공장일을 해야 했기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시민단체 활동가의 도움으로 2006년에 ‘아름다운 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R은 2007년부터 전업활동가가 되었다.

R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CHT의 상황을 알렸다. 당시 2007년부터 2년 동안 CHT에서는 성폭력, 줌머활동가들에 대한 구금, 살해 등 인권침해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재한줌머인연대, 2012:29-30)였기 때문에 CHT의 인권상황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은 중요하였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2008년과 2009년 세미나와 포럼으로 재한줌머인연대 활동은 전환기를 맞았다. 2008년 7월 30일 재한줌머인연대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 인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CHT 줌머인의 인권을 위해 토론회에 함께 했던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⁷⁾과 줌머운동이 민주운동 차원에서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토론회를 통해 CHT 현지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CHT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였다. 2009년 12월 16일엔 법, 인권,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CHT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잃어버린 땅, 빼앗긴 인권’ 조사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소수자로서 줌머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방식이자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재한줌머인연대는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도 필요하였다. 한국어와 컴퓨터교육, 줌머언어 교육프로그램은 줌머공동체의 일상에 활력을 가져다 주었고, 줌머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되었다. 줌머인들이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재한줌머인연대의 활동은 공동체의 결속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전략가로서의 R의 역할이 있었다. 그의 역할은 “실무를 처리하고 기획하고 섭외하고 국내 혹은 국외 디아스포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직화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총괄”(최영일, 2019: 230)하는 것이었다. 그의 역할에 대한 재한줌머인연대 내부의 평가는 2019년 보이사비 축제 당일 재한줌머인연대 회장의 말에서도 확인

7) 2008년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함께 했던 단체들은 ‘경계를 너머’, ‘국경없는 마을’, ‘국제민주연대’, ‘나와 우리’, ‘난센’, ‘피난처’, ‘참여불교재가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개인 활동가들이었다.

할 수 있었다.

“PNK는 바로 이 사람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JPNK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JPNK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략) 우리 줌머인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줌머인연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R씨는 이 축제를 시작했고 그동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R씨의 수고에 대한 우리는 놀라움과 감사입니다”(라트나 키리티, 줌머인연대 회장, 2019. 4. 14.; 최영일, 2019:231).

3.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삶

1) 상호작용하기

통합 개념들을 연구했던 에이거와 스트랭은 사회통합을 “난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다른 거주민들과 공유하는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력화할 때 일어나는 과정”(Home Office 2005; Ager and Strang, 2008:175, 박상희, 2022:118 재인용)으로 설명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난민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참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일상적인 관계맺기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양방향의 변화가 없으면 온전한 사회통합은 어렵다.

김포지역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3.8% 거주하고, 특히 북부 5개 면·읍은 적게는 10%에서 대곶면의 경우 전체 주민의 34%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김포시청, 2022. 11월 통계 자료 활용), 그중에 재한줌머인연대 200여 명, 미얀마, 아프간, 이란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재정착 난민 82명⁸⁾,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8가구가 있다. 하지만 이주민들 스스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 지역 내 이주민 관련 단체나 기관 내에서의 교류가 있을 뿐이고,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타자화된 난민 이미지는 상호작용을 어렵게 한다.

“한국 언론. 단체는 본인들이 미리 생각하는 거만 봐요. 난민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난민을 만든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런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니까 줌머는 난민이다, 이 사실만 중요하고, 인터뷰할 때 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말해요”(4차 심층 면담).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특별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다 보니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 R이 보여주고 싶은 줌머의 모습은 ‘한국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얼마나 적응을 하는지’가 아니라 ‘줌머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CHT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인식시키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잦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일방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은 태도 역시 한몫한다.

8) 한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매년 30명 안팎의 재정착 난민을 7기까지 수용해 왔고, 이 중 2015~2017년(1-3기)에 들어온 93명은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인천 부평에, 2018~2020년(4-7기)에 입국한 재정착난민 82명은 미얀마, 아프간, 이란 등 다양한 민족으로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다.

“지역단체들은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디에 소속됐어? 어디랑 같이 될 해? 그런 거죠. 캄보디아 공동체가 우리랑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야. 이건 그냥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줌머가 내부 갈등을 겪은 것도 그런 원인이 있어요”(4차 심층면담).

R이 말하는 갈등 문제는 지역 종교단체가 줌머인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종교’라는 특성만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의 문제이다. 예컨대 자신들을 벵갈리 불교인이라고 소개하는 ‘바루와 민족’과 줌머 민족은 종교(불교) 외에는 인종, 역사, 정치, 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달랐지만 지역 종교단체가 불교라는 공통점 때문에 두 민족을 하나의 범주로 본 것이 “이념적, 사회문화, 민족의 다름과 갈등의 역사를 은폐하였다”(최영일, 2019:203). R은 이에 대해 종교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관계 방식의 문제라고 보았다. 불교는 줌머인으로서 방글라데시로부터 배제, 탄압받아온 이유이기도 하고, 재한줌머인연대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의 지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제이기도 하다.

“불교가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차크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특히 차크마는 종교 개념과 민족의 개념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차크마는 꼭 불교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기독교여야 트리푸라라고 하는 것은 말도안 되는 건죠. 종교는 중요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줌머의 통합을 위해서 종교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죠”(4차 심층면담).

로넬 할머니는 차크마였지만 힌두교였다. R이 어릴 때 기억으로 마을에 힌두 사원이 있었고, R이 어릴 때 이름이었던 GOPAL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뿌리 깊은 힌두 문화식 이름이다. 할아버지 때 학교 책에는 MAHABHARAT 같은 힌두교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한 차크마들도 있다. 그의 말처럼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종교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순기능이 있지만 종교적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 줌머인들처럼 불교라는 이유로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로부터 배제당하고, 로힝야처럼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부터 탄압당하기도 한다. R은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난민의 경우는 한국의 종교단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라는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등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줌머가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냥 경제적인 자립도 하고, 공동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건 100중에 10 정도?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아요. 사람들은 10을 100으로 보고 있는 거지. (중략)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아, 성공이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5차 심층면담).

대리되지 않고 전유되지 않는 목소리, 의도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목소리여야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목소리 뒤에 가려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필요한 이야기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이호택·조명숙, 2010: 159).

2) 지역구성원으로 함께 하기

“한국의 현실은 달랐다. 한국은 줌머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의 기대만큼 관심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오경석, 2011a:256). R의 말처럼 한국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조차 재한줌머인연대의 연대 활동은 한계가 있었다. 한국 진보단체와 줌머 연대운동은 시위, 사진전 같은 일회성 행사가 있을 때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단순 참여하는 정도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한 활동가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JPNK와 연대한다고 이야기하려면 전자(난민지위 인정을 지원하는 활동)보다는 후자(CHT의 자치권 획득을 위한 연대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했다”(재한줌머인연대, 2008:46)고 성찰하였다. 즉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운동은 재한줌머인들을 “활동가 대 활동가의 동등한 관계로 만나기 어려웠고”, “인권운동가보다는 외국에서 온 도움이 필요한 활동가”(재한줌머인연대, 2008:46)로 보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 활동가의 이런 성찰은 재한줌머인연대가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전환기가 되었던 때였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5년이 더 지났다. 사람들은 재한줌머인연대를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난민공동체라고 한다. 하지만 R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이 다르다. 하나는 ‘도외주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교는 난민과 지역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관계로 예컨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친근감 또는 비우호적 태도, 다른 사람들과 편견 없이 동등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Ager and Strang 2008: 179-180, 박상희, 2022:134 재인용).

“함께 한다는 건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고, 함께 밥도 먹고, 축제도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5차 심층면담).

R은 현재는 지역의 외국인주민원센터에서 통역사이자 노동상담 일을 하고 있다. 영어, 벵골어,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귀화자이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주노동자로서 경험했던 노동문제, 인권문제이기에 R에게 적합한 직업일 수도 있다. 때로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는 난감한 질문에 피로감이 쌓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자신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 자신이 방글라데시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최대 희생자인 줌머인이고, 난민이면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여전히 타자화의 대상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권활동가이자 진보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R은 자기성찰에 게으르지 않다.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나는 얼마나 진보적인가, 나는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진보적인가”(한겨레신문, 2021). 이런 자기 성찰은 재한줌머인연대의 활동에 대한 고민에서도 나타났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한국에 살면서 요즘은 1년 내내 우리는 페스티벌이에요. 한국에서 송년회, 설날, 또 뭐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있고, 보이사비는 원래는 1개월 정도 하는데 보통 여흥이 3개월 정도 가요. 여름에는 우리가 더운 날씨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저씨되고, 아저씨가 총각이 될 만큼 즐겁게 살아요. 이렇게 즐기다보니까 CHT 현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많아요”(5차 심층면담).

현재 김포 양촌면, 대곶면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줌머인들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R은 일상에 안주할수록 CHT 현지를 생각하게 되고, 재한줌머인연대의 역할이 “여기서 이렇게 자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다양한 이주민들이 많은데 이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해요. 재한줌머인연대는 아직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공동체 성격이죠,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중략) 보통 이주민들이 자율성이나 적극성이 없이 어느 어느 단체에 의존하거나 해요.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단계가 왔는데도 목표에 한계가 있어요. 재한줌머인연대도 좀 더 높은 단계의 활동을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사회 분위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많은데 (중략) 개방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해요”(5차 심층면담).

그는 개방적인 역할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줌머 공동체 내에 그리고 한국 원주민 공동체와 줌머 공동체 간에 사회문화적 교류가 더 늘어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건강한 시민단체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난민의 능동성, 역동성, 그리고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미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한 난민의 생애경험에 나타난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는 난민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인 주체로서 재구성하고,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보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타자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난민이 인권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김포지역에 정착한 난민공동체 재한줌머인연대의 전략가이자 인권활동가인 차크마 R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 한 난민의 생애경험에 나타난 저항은 자연·사랑·꿈의 원천을 회복하고 배타적 민족주의에 예속·통치되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이었고, 2)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난민되기’와 ‘소속되기’ 전략은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외부적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확장하였으며, 3) 상호작용을 위해 외부자의 시선으로 지역 시민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함께 하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R의 생애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시각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편견일 수 있고, 다분히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 다만 난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주체로 인식될 때 기존의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존재라는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2018년에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를 채택하고, 난민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난민이 모든 이주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체로서 온전히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⁹⁾ 비록 난민 글로벌 컴팩트가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국은 상당한 책임을 가진다(조영희 외, 2021: 81).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기에 앞으로 난민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 한국은 올해로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인권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 10년이 되었고, 난민협약이 발효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199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사회의 난민 인정률은 1.57%에 불과하다.¹⁰⁾ 또한 그동안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한국 사회의 필요가 반영된 대상에 집중되어 왔고, 난민 수용이나 난민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왔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인권 부분에서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사회통합정책 적용 수준에 대한 세밀한 정책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그 효과는 미미하다(조영희, 2021). 특히 시민사회의 난민에 대한 공감과 인식의 결여는 난민수용과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심나리, 2020), 실효성 있는 난민제도를 통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난민제도의 궁극적인 성공은 사회통합에 있으며, 사회통합은 기존 정주민과 이주 난민 사이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일방적인 시혜적 태도나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지 않고, 지역 시민사회에 주체로 참여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난민을 수용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난민에 대한 체감온도가 다르다. 난민 정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사회통합을 높여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난민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난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주체를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 의해서 대리되거나 전유되지 않고, 난민 스스로 시민사회의 정치적 주체로서 지위를 획득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

9) 난민글로벌컴팩트(https://www.unhcr.org/gcr/GCR_English.pdf) 참조.

10) 1992년~2022년 누적된 난민 신청은 총 73,383건이며, 이중 난민 인정자는 1,156명, 인도적체류자 2,412명으로 난민인정률만 보면 1.57%에 불과하다(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의 2022.01.26.회신). 각 국의 난민인정률은 캐나다 46.2%, 영국 28.7%, 인도 52.8%(UNHCR, 2021)

참고문헌

- 김병곤, 김민수(2015). 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벤 하비브의 시민권 정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3(1), 295-328.
- 김종철·최원근·이영백(2009). 잃어버린 땅, 빼앗긴 인권: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CHT) 줌머인 인권 조사보고서.
- 김철효(2019). 비국민과 이주 배경 국민은 한국 사회운동의 wnc[rk 될 수 있는가?-이주민 운동의 성찰과 전망. *경제와 사회* 2021 여름호, 130, 121-158
-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의 2022년 01월 회신
- 로넬 차크마 나니(2017). 한국의 줌머 디아스포라 공동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줌머족디아스포라포럼*.
- 로넬 차크마 나니·오경석(2014). 로넬 차크마 나니의 인권 여정-Ronel Chakma Nani' s Journey to Human Rights.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윤수종 엮음, 33-60, 광주: 문학들.
- 로넬 차크마·이영민·이현욱·박현서(2017). 줌머족 난민의 삶과 희망 :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김포까지.
- 류수경(2017).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난민 삶이와 귀환: NLD-LA 한국 지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3(2), 53-104
- 박상희(2019). 한국 거주 난민의 구술사: 타자화 경험과 인종문제. *대구사학*, 137, 163-208.
- (2022). 한국의 난민통합과 정책적 함의: 에이저와 스트랭(Ager & Strang)의 통합 분석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3), 1052-148.
- 악셀호네트(1992).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 사월의 책
- 오경석(2011a). 로넬 차크마 나니의 인권 여정. *문학들*, 24, 238-265.
- (2011b). 제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 s Network in Korea)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4(2), 71-101.
- 유승무·신종화·박종일·이태정·박수호(2013). 제한줌머공동체의 '실금' 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력. *아세아연구*, 56(1), 36-72.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2018). 한 대안학교 교장의 정체성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하얀 사람”. *교육혁신연구*, 28(1),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119-145.
- 이창호·김지희·정수남·박민현·오경석(2021). 난민의 '문화적 사별' 경험과 건강위기: 경기도 A지역 줌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3), 123-160.
- 이희영(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207-241
- 이유재(2022). [기획] 한국 민주주의와 국제적 연대 - 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독일). *기억과 전망*, 46, 151-170.
- 이유혁(2007). 정치적 주체로서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생명정치와 트랜스로컬 정치지형학 그리기. *다문화와 평화*, 11(1), 194-224.
- 이호택·조명숙(2010).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이호택 조명숙 부부의 한국의

- 난민 이야기」. 과주: 창비.
- 제한줍머인연대(2008).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 인권상황에 관한 토론회.
 ———(2012), 「줍머 민족의 억눌린 목소리」
- 조영희 외(202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진태원(2015).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뉴 래디컬 리뷰, 63, 뉴래디컬 리뷰, 185-227.
- 피난처(2003). 줍머인들의 빼앗긴 삶(원제 : Life Is Not Ours). 제4개정판,
- 최영일(2019). 줍머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0.
- 한겨레, 차크마족 김포 이씨, 나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이주민입니다. 2021년 03월 06일.
- Dr. Mrinal Kanti Chakma(2017). CHT Diaspora : Struggle for Identity and Existence.
- Foucault, Michel(1975), Surveiller, Galimard.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2004)
- Frederique Chakma(2017). The Jumma Diaspra in France. International Forum on the Jumma Diaspora.
- Md Golam Hafiz(2019). Transnational Belonging of Bangladeshi Migrant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9(2), 다문화사회학회, 118-146.
- Mandelbaum, D, G(1973). The study of life 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 177-207.
- Eva Gerharz and Corinna Land(2018). Uprooted belonging: the formation of a 'Jumma Diaspora' in New York C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4(11), 1881-1896.
- Johnson(2016). To Make Live: Representing and Protesting Refugee Agency. Localities, 6, 59-92.
- Willem van Schendel, Wolfgang Mey and Aditya Kumar Dewan(2001).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ving in a Borderland. The University Press Limited.
- UNHCR(2021) 연례보고서.
 ———(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연구.

I. 서론

심리치료 분야에서 음악·미술·사진·영화와 같은 예술매체를 활용한 기법들이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중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내담자의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예술치료의 일종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미국음악치료 협회(American Therapy Association)에 의하면,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영화의 선정에 있어서 많은 음악 영화들을 살펴보았다. 영화보다는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영화를 찾고 싶었고, 음악에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가장 잘 녹아들어있는 영화를 찾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주 전공인 클래식(Classic) 음악이 포함되어있는 영화를 찾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영화 [August Rush]를 탐구해보려 한다.

본 글은 영화 [August Rush]에 담긴 음악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영화 속 음악들의 치료적 활용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영화를 분석하기 전 ‘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다음엔 음악을 이용한 ‘음악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본격적인 영화 속 음악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음악

음악이란 소리를 매체로 하는 시간 예술이며, 치유적이고 인간의 내면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예술장르이다. 통상적으로는 음, 리듬, 멜로디, 하모니 등 음악적인 요소에 따른 활동을 의미한다. 음악은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 용이하며, 감정의 전달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음악도 언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의 음악은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지만, 음악이 먼 옛날부터 존재했다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에 여러 형태의 음악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고, 인류학자들도 대부분의 원시 부족의 문화에서 음악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발견했다. 음악이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기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양이나 서양 문화권 모두 음악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고대인들에게 음악은 주술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음악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다고 믿었다. 고대인들은 정신병이나 간질병 같은 병은 타악기의 반복되는 타주 소리에 맞춰 심한 흥분으로 이끌려지고, 그 다음에는 깊은 수면에 빠져들면서 병든 정신이 빠져나간다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여러 시인들이 음악을 신들의 발

명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대신(大神)인 제우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노래하거나 시로 남기고자 했으나, 이를 담당할 신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인간의 얼굴과 용의 몸을 가진 거인족인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승전가를 만들고 싶었던 제우스는 이 전쟁에 대해 낱알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와 아홉밤을 동침한 끝에 아홉 명의 딸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아홉 자매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의 특정 영역을 관장하는 여신들로, 그리스 어로는 무사(Mouse), 영어로는 뮤즈(Muse)라고 부른다. 이들 뮤즈가 관장하는 행위, 예술 또는 기술(Tecne)을 의미하는 무지케(Musike)에서 뮤직(Music)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신화적 기원이 아닌 음악의 실제적 기원에 대해서는, 원시 종족이 이웃과 멀리 소통하기 위해서 성악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원시 형태의 타악기와 동물 뿔을 사용하면서, 그 소리들이 귀를 즐겁게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것이 음악의 기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이론이 있다. 또는 두려움, 노여움, 고통, 기쁨들을 표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에서 성악적 표현으로 발전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또 다른 이론은 힘든 일을 하거나 춤을 추는 데 어떤 리듬적 소리로 반주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받았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음악을 만들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현존하는 음악으로 가장 고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기원전 1400년 극동지역의 우가리트¹⁾의 고대 문명지에서 발굴된 노래이다. 후르리 언어로 되어 있는 이 노래는 달의 신의 부인인 니칼(Nikal)에 대한 찬미가로, 점토판의 양면에 설형문자로 새겨져 있다. 점토판의 갈라진 틈 때문에 가사의 일부는 훼손되었지만, 연주에 대한 지시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2. 음악치료

미국 음악치료 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에 의하면,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유지 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치료사가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AMTA, 198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요법, 음악치료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과학적 용어인 ‘치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2-1. 음악치료의 역사

음악치료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음악치료사를 위한 교육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에 와서 임상의 현장에서 음악치료를 전문분야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회의 결성이 요구 되어지고, 이후 1950년 6월 2일 전국 음악치료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NAMT)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 뉴욕대학을 중심으로 조직된 미국의 두 번째 치료 협회인 미국 음악치료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가 설립되었다.

영국에선 1958년 음악치료 교정협회(The Society For Music Therapy and Remedial Music, RMT)가 창설되었지만 70년대에 와서야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거의 미국의 NAMT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NAMT 자격요건을 거쳐 RMT로 등록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은 행동과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그룹 역동력을 중요시하며 음악치료에

1) 우가리트(Ugarit): 현재의 Ras-Shamra 자리에 있다.

타악기 연주나 오페라를 응용해 음악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치료는 무속 신앙에서 시작됐다. 보통 무속 신앙을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할을 무당이 담당한다.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무당이 됨으로서 병에서 해방이 되며, 고통을 통한 시련과 낡은 자아의 죽음, 새로운 자아로의 신생 과정이 있다. 무당은 굿을 하며 공동체나 가정,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병귀를 쫓거나 죽은 자를 다시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선 음악치료의 시작이 1910년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오락의 역할 정도였고 1952년에 음악치료의 이론이 토론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에 음악치료의 실기를 시작했고, 1974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실시되었다. 한국임상 예술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Clinical Art)는 단독학회가 아닌 신경정신과 학회의 한 분야로서 음악치료를 포함한 광의의 예술 요법과 표현 병리학 등 3대 분야의 연구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임상예술”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1992년 9월에 한국 음악치료 협회(KAMT)가 조직되었다.

2-2. 음악치료의 원리와 방법

음악치료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는 관련적 음악치료와 경험적 음악치료가 있는데, 관련적 음악치료는 다른 활동을 도와주거나 다른 주제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련적 음악치료에 대해 Gaston(1968)은 음악치료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첫째, 음악은 비언어적 교류 수단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사회적인 상황을 묘사하거나 미래의 방향을 예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때 음악의 힘은 개인보다는 그룹을 통해 극대화된다.

둘째, 자기성찰을 위한 자긍심을 증진 시킨다. 음악은 즐거움과 자기만족의 원천으로 비경쟁적 성취를 허용한다.

셋째, 에너지나 질서의 원천으로서의 리듬이다. 음악은 구조적인 현실이며 조직자이고 에너지원이라 한다.

다음으로 경험적 음악치료는 음악 자체의 경험이 치료과정에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경험적 음악치료를 발달시킨 Sears(1968)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구조 속에서 경험을 강조해 능력에 따른 행동을 허용하고, 정서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감각과 관련된 행동을 이끌어낸다.

둘째, 자신을 조직화하는 경험으로서의 음악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자기표현의 방법을 제공하며, 그룹에서는 개인적 반응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언어와 비언어 사회교류와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 속에서 협동과 경쟁의 경험을 제공하고, 치료적 환경에 필요한 즐거움과 오락을 제공하여 현실 속에서의 사회적 기술과 개인적 행동의 패턴을 학습토록 한다.

관련적 음악치료와 경험적 음악치료는 다양한 음악치료 방법에서 한쪽이 강조되거나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면서 치료의 목적을 달성시킨다. 치료사는 내담자 개개인의 상태와 설정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이에 따른 음악치료의 접근 방법으로는 환자 중심의 치료, 치료사 중심의 치료, 역할 무제한 치료가 있다.

환자 중심의 치료는 라제리언형(Rogerian Type) 또는 비지시적 상담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환자가 치료의 중심이 되며 환자 자신이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발견하도록 유도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치료사는 이를 돕는 ‘보조자’의 역할만을 한다. 이 경우 치료사 자신의 가치관과 의도가 개입되면 안된다. 이 방법은 환자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인 영향보다 의식적인 잠재력을 중시하면서, 과거가 아닌 현재나 미래에서 찾는 이론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 방법은 즉흥연주 음악치료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된다.

치료사 중심의 치료는 환자 중심의 치료와는 반대되는 방식으로서, 치료사가 환자의 결정과 향상, 목표를 결정·책임진다. 따라서 치료사 자신의 가치관이 환자의 치료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방법은 단체, 이를테면 합주, 합창 등의 연주에 효율적이다. 환자 중심의 치료와 치료사 중심의 치료 중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자에 따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 역할 무제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자나 치료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서로를 존중·인식하며 치료를 시작한다. 즉, 환자와 치료사는 동일한 위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사 토의, 노래 쓰기 등에 적용된다.

2-3. 음악치료 방법론

음악치료의 대표적인 방법론은 행동주의적 음악치료(Behaviouristic Music Therapy), 인본주의적 음악치료(Humanism Music Therapy), 분석적 음악치료(Analytical Music Therapy)가 있다.

행동주의적 음악치료는 행동 수정에 목표를 두는 치료 방법으로서 치료사는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내담자의 음악 외적 행동에 대해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방법이다. 행동주의적 음악치료는 계단식의 위계적 활동과 절차의 특징이 있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측정 가능한 용어로서 설계된 계획에 따라 행동의 증가인본주의적 음악치료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입증해주고 개인 특유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인본주의적 음악치료의 이론적인 개념은 첫째로 건강한 욕구와 필요를 스스로 조절하여 인식의 경험을 유도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을 개발시켜주고, 둘째로 개인의 만족감과 총체성을 불러일으킨다. 셋째로 원만한 인간관계는 자아발달을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분석적 음악치료는 프레슬리(Priestley, 1994)에 의하여 임상적으로 실험되고 정리되어 정착된 이론으로서 내담자와 치료사가 내담자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말과 상징적인 음악을 즉흥 창작하여 음악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모델의 전형은 프로이트(Freud), 융(Jung), 클라인(Klein), 로웬(Lowen) 등의 정신역동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분석적 음악치료의 주된 목적이 내담자의 개인적 성격 때문에 개별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밖에도 ‘G.I.M’ 치료방법과 ‘창조적 음악치료’가 있는데, ‘G.I.M’(Guided Imagery and Music) 치료 방법은 음악의 연상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상태와 필요 등을 치료사와의 대화를 통해 유도해내는 치료법이다. G.I.M 치료는 고전음악을 활용하여 상상을 불러 일으키고 그 상상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서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을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탐구하여 치료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이 치료법에서 치료사는 안내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내담자 중심으로 해야한다.

‘창조적 음악치료’(Creative Music Therapy)는 미국의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폴 노르도프(Paul Nordoff)와 영국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클라이브 로빈스(Clive Robbins)가 발

전시킨 치료법으로서 음악에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음악창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영화에서의 음악

영화는 촬영으로 필름에 기록한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 영상과 음향을 통해 보여주는 영상물이다. 단순히 말하면 이야기를 영상으로 시각화 하는 것이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음향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음향은 영화 안에서 대사, 효과음, 폴리, 음악, 침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셸 시옹의 [오디오 비전 L'audio-vision : son et image au cinéma]에 따르면, 음악은 “영화의 유일한 청각적 요소로써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고 보이는 이미지에 믿음을 준다” 하였다. 음악은 이미지와 함께 내러티브에 큰 영향을 준다. 음악은 원래부터 독립적인 요소로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음악의 형식이나 규칙, 체계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안에서의 음악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현상은 영화에서 음악의 사용에 제약이 없어지고 영화의 어느곳에서나 위치할수 있게 되었으며, 자유롭게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비르기트 볼트의 [시네마 테라피]에 따르면, “음악은 영화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역동적인 요소를 펼쳐냄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영화에서 음악은 우리를 더욱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기만 하는 것보다 주인공들과 동일시하도록 만든다.” 하였다. 또, 한윤하(2015)는 버클리 음악대학의 영화음악과 교수인 데이비스(Davis,1999)가 설명한 영화 음악의 세 가지 기능 -물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기술적 기능- 중 심리적 기능은 영화 음악의 기능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영화의 이야기를 통한 관객들의 감정입은 결과적으로 심리적 작용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 전지현(2017)은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영화 음악은 장면에 맞게 작곡되어 장면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관객이 영화 속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일지라도 영화음악을 들으며 장면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음악이 장면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하였다. 노래를 만드는 작업은 특정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 수도 있고, 공간을 배경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특히나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영화 음악은 영화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영화 이야기의 이전과 이후, 또는 그 이야기에 파생된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작곡되기도 한다.

한상준의 [영화 음악의 이해]에서는 “영화 음악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순수 음악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영화적 측면이다. 이 중 영화적 측면은 특히 영화 음악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하였다. 음악의 영화적 차원이란 음악과 내러티브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디제시시적 영화 음악과 비디제시시적 영화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디제시시적 영화 음악이란 내러티브 내부의 소스로부터 나오는 음악을 말한다. 이는 내러티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내러티브의 인, 아웃 위치에서 등장인물, 영화의 도구, 요소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내러티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비디제시시적 영화 음악이란 내러티브 내부의 요소로서 나오는 음악을 제외한 음악을 말한다. 이는 영상과 내러티브에서 관객의 이해를 위 설명과 감정 고조, 심리적 변화, 영화의 속도, 상징 등 영화의 연출에서 다양하게 사용 되어진다.

4-1. 영화의 즐거움

영화 [August Rush]는 눈을 감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는 아이 ‘에반’이 음악을 이용해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에반의 아버지인 ‘루

이스'는 밴드의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였지만 첫눈에 반한 그녀를 놓친 후 음악의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고, 어머니 '라일리'는 촉망받는 첼리스트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떠나 보내고 11년을 그리움 속에 살았다. 이 영화는 11년만에 서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음악과 함께 그려냈다.

다음은 한재욱(2010)의 <어거스트 러쉬>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자세하게 전개한 영화의 줄거리를 참고해 영화의 자세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해보았다.

발단: 고아원에 사는 에반이 고아원에 살게 된 이유를 부모인 루이스와 라일라의 이야기로 보여주며 에반은 부모를 찾아 고아원을 떠나 뉴욕에 도착한다. 뉴욕에 도착한 에반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길을 잃는다. 그렇게 떠돌던 중 음악에 이끌려 공원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더를 만나게 되고, 아더를 통해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라는 이름을 받아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된다.

전개: 에반을 찾는 입양 상담사 제프리의 신고로 인해 워저드의 극장에 경찰이 들이닥친다. 경찰에 잡히면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하는 에반은 그길로 도망을 치게 되고, 다시 떠돌던 중 음악에 이끌려 교회에 숨어들게 된다. 그곳에서 에반은 음악적 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의 추천으로 줄리어드 음악대학에 입학할 해 본격적으로 음악적 언어를 배운다. 한편, 루이스는 라일라를, 라일라는 에반을 찾기 위해 그만둔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절정: 줄리어드 음대에서 추천한 자신의 공연을 앞두고 어거스트(에반)은 워저드에게 끌려와 길거리 연주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서로를 모른 채 우연히 아버지인 루이스를 만나게 되고, 갈등하는 어거스트에게 “무슨일이 있더라도 진정한 뮤지션은 포기 안해.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걸 음악에 담으면 이겨낼 수 있어.”라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어거스트는 워저드에게서 달아나 공연장으로 가게 된다.

결말: 센트럴파크에서 지휘자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부모인 라일라와 루이스 그리고 어거스트, 세 가족은 만나게 된다.

4-2. [August Rush]의 음악 분석

마찬가지로 한재욱(2010)의 <어거스트 러쉬>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참고해 영화에 사용된 음악들을 분석해 보았다.

1) 오프닝: 주인공인 에반의 소개와 그의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본인의 심리를 말해준다. “들려요? 음악이에요. 전 어디서든 들려요. 바람 속에서, 공기 속에서, 빛 속에서. 음악은 우리의 곁에 있어요. 마음을 열면 다 들려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요.” 나레이션과 함께 음악이 함께 들리는데, 이 음악은 처음엔 바람에 부딪히는 풀잎의 소리로 시작한다. 에반이 풀잎을 지휘하듯 손을 휘저으며 풀잎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영화의 타이틀곡이 시작되는데, 이 노래는 영화가 진행되면서 에반 자신의 내면의 음악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어지는 나레이션에서는, “악기를 배워 연주하면 부모님이 들을지도 몰라요. 그럼 나란 걸 알곤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제가 듣는 음악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제가 듣는 이 음악에 끌려 만나셨을 거예요. 음악으로 서로를 찾았듯, 음악으로 절 찾을 거예요.” 라 한다. 이 나레이션에서는 에반이 음악을 자신과 부모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며,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2) 휘파람: 입양상당사인 제프리와 의 만남에서 에반은 제프리가 창밖으로 들리는 차임벨 소리를 휘파람 소리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 한다. 이 휘파람은 음악이라기보단 ‘소리’인데, 이 소리를 주의 깊게 본 이유는 에반이 그저 음악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자신을 소리로서 표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뉴욕에서의 소리: 에반은 뉴욕에 처음 도착해 제프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길을 걷다가 자신의 발 밑에서 들리는 지하철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그 지하철 소리가 주된 리듬이 되고, 이어서 들리는 도시의 여러 소리들이 합쳐져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진다. 에반은 그 음악을 지휘하다가, 곡이 완성되기 전 제프리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놓치면서 음악은 다시 소음으로 돌아간다. 이 곡은 처음 에반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의 설레임과 기대, 그리고 부모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종이를 잃어버리면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음악이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4) La Bamba(라 밤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정처없이 떠돌던 에반은,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한다. 그 음악소리의 주인공인 ‘아더’는 에반에게 실제 음악을 처음 들려준 아이이다. 그동안 에반에게는 모든 소리 자체가 음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에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극히 개인적인 음악이었다. 그 개인적인 음악에서 일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음악, 그러니까 선율이 있고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멜로디가 되는 음악을 듣게 해준 아더는, 에반에게는 음악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자 구원자인 셈이다.

이 시점부터 에반은 자신이 부모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부모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려 한다. 이런 에반의 역할에 대한 암시는 아더가 에반에게 불러주는 노래에 숨겨져 있다.

“Father hear me. when I call your name I need you answer me now. Father here I am.”

아버지 들어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대답해주길 바라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5) Ritual Dance(리튬얼 댄스): 아더를 따라 워저드의 극장에 들어간 에반은, 그곳에서 악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아더를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다. 이 표현을 시작으로 에반의 표현력은 빠르게 발전한다. 이는 곧 에반과 부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제 겨우 표현이 가능할 뿐이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에반은 기타를 연주하며 기타 바디를 때리는, 현악기와 타악기를 함께 구사한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악기의 편성이 늘어남으로 인해 음악으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Raise it up(레이즈 잇 업)과 오르간: 입양상당사 제프리의 신고로 극장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경찰을 피해 도망간 에반은 연주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잃으면서 연주를 하던 입장에서 듣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잠깐 떠돌다 음악소리를 듣고 홀린 듯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곳이 교회다. 교회에서 들은 음악은 여태까지 들었던 음악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 제목과 가사, 장소, 사람들에게 의해 나타나듯이 이 음악은 신의 구원, 삶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 이 곡은 또다시 목적지를 잃은 에반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저앉을 순 없어요. 아이가 자라는데는 또다른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삶이 힘들지라도 미소를 간직하려면 또 다른 꿈이 필요하답니다. 목소리 높여요. 전능한 손이 길을 안내할 테니 포기하지 말아요. 불가능은 없어요. 기도로 이겨내요.”, “내 영혼을 잡아먹는 고통스러운 삶, 하지만 알죠, 헤쳐나가야 하는 걸. 두렵지 않아, 아무리 높

은 벽이라도 날 가로막진 못해.” 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반이 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헛된 일이 아니며, 그 노력으로 인해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에반이 부모를 만나는 것은 노력에 의한 필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에반은 여기서 피아노와 목소리라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곡으로 인해 합창단에 있던 어린 소녀를 알게 되고, 교회에서 드디어 음악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앞서 극장에 있던 위저드는 음악적 언어를 모르던 사람이었다. 위저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고만 가르치는 바람에 그곳에서는 음악적 언어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에반이 음악적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주위에 들리는 소리들을 오선지에 옮겨적어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연주를 통해 에반은 단순히 연주만 하던 입장에서 형식화된 악보에 자신의 음악을 적는 창작자로 또 한번 발전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에반은 음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거리가 더 좁혀지게 된다.

7) Dueling Guitars(듀얼링 기타스): 교회의 목사의 소개로 줄리어드 음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에반은 <August Rhapsody's C Major> 라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경찰에서 풀린 위저드가 나타남으로 인해 에반은 다시 길거리의 연주자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 나타난 에반의 아버지 루이스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타를 함께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주곡이 듀얼링 기타스다. 여기에서 에반은 처음으로 합주를 하게 된다.

여태 에반은 혼자 연주를 하며 다른 사람과의 호흡을 맞춰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멜로디도 하나밖에 없고 악기도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하나 이상의 악기로 합주를 하게 되며 화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에반은 또 한번 음악적 발전을 하게 된다. 또 에반은 각각의 독립적인 악기가 만나는 것을 통해 자립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합주 후에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에반은 용기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정한 뮤지션은 포기 안 해.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걸 음악에 담으면 이겨낼 수 있어. 아저씨 그걸 힘들게 배웠지. 날 보렴. 아무 일 없을 거야. 믿음을 가져.”

8) August Rhapsody's C Major: 마지막 이 곡은 스케일이 큰 교향곡이며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담은 곡이다. 오프닝에서 설명한 타이틀이 발전하여 완성된 곡으로 바람소리, 차임벨, 뉴욕 길거리에서 들었던 다양한 소리,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의 소리, 성가대 소리,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가 전부 담겨있는 곡이다.

에반은 이 곡에 스스로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살아왔던 이야기, 뉴욕 길거리를 떠돌다 극장으로 들어갔던 이야기, 교회에 들어갔던 이야기, 줄리어드 음대에서 음악을 배웠던 이야기까지 모두 다 들어간 이 곡은, 에반의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반은 이 곡을 통해 부모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부모의 소리를 포함시키면서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 곡을 통해 가족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에서 에반과 라일라, 루이스는 음악을 통해 서로를 한 눈에 알아본다. 이것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얼굴도 모르고 서로 흩어진 가족이 오로지 음악만 듣고 서로를 찾고, 한눈에 알아본다는 것이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던 처음 오프닝에 전제를 깔아두었고, 음악을 통해 세상으로 나온 에반과 음악으로 인해 에반을 낳은 부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담고 있는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시키고 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왜 가족이 모였는지를 알게 되며 완성을 보게 된다. (한재욱, 2009)

4-3. [August Rush]의 음악치료 도구로서의 활용

[August Rush]는 '음악영화'로 분류된 영화들 중에서도 영화 내에 음악이 제일 잘 녹아 든 영화이자, 음악 자체에 주인공들의 내러티브가 잘 드러나는 영화이다. 또 클래식과 록(Rock)이라는 두가지의 장르가 하나의 음악으로 혼합되어있어 다른 음악영화들보다 음악에 대해 더 폭넓은 견해들을 나눌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장르가 합쳐진 퓨전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며, 악기 역시 같은 현악기지만 음악의 장르가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음악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들을 토대로 [August Rush]를 음악치료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몇 가지 세워보고자 한다.

1) 가족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활용할 수 있다.

이혼이나 별가족의 증가, 빈곤 가족의 증가. 가장의 사고나 질병,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 보호조치 되는 가정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시설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종국에는 아동이 가족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동이 가족에 복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족 재결합에 대한 방안들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각각의 음악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기 이전에 영화 전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영화 속 주인공인 에반 역시 모종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보육시설에 맡겨진 채 11년을 보내다가 영화의 마지막엔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영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 가족과 떨어졌다는 슬픔의 감소, 같은 맥락으로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동안의 불안이나 가정에서 벗어나 낯선 장소에서 지내면서 느낄 긴장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Bach/Break: 청소년기 우울증

이 음악에서 쓰인 장르는 클래식(Classic)과 록(Rock) 두 장르이다. 처음 시작은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3번 1악장 프렐류드(J.S. Bach- Violin Partita No.3 in E major, BWV 1006: I. Preludio)의 도입부로 시작해, 극 중 에반의 아버지인 루이스로 나오는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Jonathan Rhys Meyers)의 Break 로 음악이 진행되고, 앞서 연주됐던 파르티타 3번의 마지막 부분으로 음악의 끝을 맺는다.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3번은 원래 바이올린 곡인데, 이 영화에서는 첼로 연주를 위해 편곡한 것으로 보인다. 원곡의 초반부는 음이 높고 연주의 속도도 빨라 밝은 느낌을 주고, 편곡된 곡은 첼로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연주되어 밝은 느낌과 더불어 편안한 느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연주된 Break 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난 망가지고, 빛지고, 패배자로 살아가지. 기도해, 난 공허해. 난 죽었어, 혼란스러워. 널 찾을래. 다신 못 떠나게 할래. 차가운 밤공기에 내 가슴이 찢어져. 널 미치도록 사랑해.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무너지는 날 잡아줘.” 이 곡은 앞서 연주된 바흐의 파르티타와 분위기를 맞춰서 작곡되었으며, 락 음악의 특징인 강렬한 리듬감과 주된 멜로디의 반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 음악을 분석하면서 Break의 '가사'에 집중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우울을 함께 생각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진학,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등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

안정해지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청소년기에도 ‘우울’이라는 감정은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은 짜증스러운 기분, 즐거움의 결여, 에너지의 저하, 미래에 대한 절망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비관적 생각들이다. 또한 불안,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과다행동 장애, 그리고 섭식장애와 흔히 연관되어 나타난다.

Break의 가사를 살펴보면 “망가졌다”, “패배자”, “공허해”, “죽었어”, “혼란스러워” 같은 비관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는 우울의 감정,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다. 하여 필자는 이 음악을 들려주며 청소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해주고, -락 음악의 시끄러운 분위기와 강렬한 리듬감이 이것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했다.- Break의 가사를 개사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의 우울을 표출함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어거스트의 즉흥연주(뉴욕에서의 지휘, 극장에서의 기타 연주, 교회에서의 오르간 연주): ADHD 아동

본 영화에선 주인공인 에반이 음악적 성장을 거치며 총 세 번의 즉흥연주를 한다. 뉴욕에 처음 도착해 주변의 소음을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 그것을 지휘하는 것,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던 ‘아더’를 따라 들어간 극장에서 처음 기타를 연주하는 것, 교회에 들어가 처음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흥연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ADHD 아동을 떠올렸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음악치료는 ADHD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중 즉흥연주는 ADHD 아동의 내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며, 아동의 긴장이완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악기연주 방법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재창조 연주 및 드럼연주와 같은 타악기 연주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하여 ADHD 아동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즉흥연주를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4) Raise it up(레이즈 잇 업): 양육 스트레스

극중 에반이 교회로 들어서며 들리는 Raise it up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모르죠, 나를 짓누르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하지만 도와주는 이 없으니 견뎌야 하죠. 주저앉을 순 없어요. 아이가 자라는 데는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삶이 힘들더라도 미소를 간직하려면 또 다른 꿈이 필요하답니다. 목소리 높여요. 주저앉을 순 없어요. 전능하신 손이 길을 안내 할테니.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불가능은 없어요. 기도로 이겨내요. (중략)

가사를 보면 ‘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전능하신 손이 길을 안내할테니.“, “기도로 이겨내요.“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신’을 ‘부모’와 동일시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부모에게 이 노래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양육 스트레스란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구체적 상황하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부모역할 수행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이는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현재 상황 및 장래, 혹은 자녀 양육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축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정순, 2003)

이 노래를 활용한 활동들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이로 인한 심신 안정, 자녀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August Rhapsody's C Major: 대학생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마지막은 어거스트가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해 작곡한 August Rhapsody's C Major 이다. 이 곡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반해 어거스트 자신을 표현했다. 이 음악을 대학생의 자기표현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Erikson(1963)에 따르면, 대학생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이룩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다. 그는 친밀감을 자신의 정체감과 다른 사람의 정체감을 융합시키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이같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고립되고 자기 몰두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Drikson(1982)는 자기표현행동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존중받는 것이 보장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문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lberti와 Emmons(2001)은 자기표현은 타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나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기표현의 향상은 부정적인 자기개념, 우울감, 무력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에서의 소극성이나 부적응,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내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자아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III. 결론

본 글은 영화 [August Rush]의 음악치료적 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치료'의 개념과 원리, 방법과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 영화에 쓰인 음악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각 음악에 대한 치료적 도구로서의 활용방법에 대한 다섯 개의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 영화 자체로는 가족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연주되는 Bach/Break 는 음악의 한 장르인 락(Rock)에 집중해 청소년기의 우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화의 주인공인 어거스트(에반)가 즉흥연주를 하는 세 장면을 통해서 ADHD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넷째, 어거스트가 교회에서 들은 Raise it up이란 노래로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음악인 August Rhapsody's C Major은 어거스트가 음악을 통해 자기표현을 했다는 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수 and 안수환. (2022).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의 기능분석:영화 <체실비치에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3), 152-164.
- 김수지, 이흥표 and 권기준. (2008).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대인관계 향상 효과 연구 -일반상담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7(2), 547-567.
- 김정석. (2005). 「영화치료를 적용한 가족복지프로그램 사례연구 대상: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보호 된 가족」 아동복지 연구, 3(2), 93-123.
- 김준형, 이장희 and 윤경희. (2012).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1), 97-116.
- 박정미. (2004). 「음악치료 이론 및 실제」 음악연구, 33(0): 385-409
- 송소원 (2008). 「자기표현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101-184)
- 오선화, 김희경 and 고은진. (2008). 「ADHD 아동의 음악치료방법 및 음악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ADHD 인식도와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0(2), 57-82.
- 이정선, 이형실.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권, 4호, 2012, 77-89.
-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23(3), 5-19.
- 최윤영. (2020). 「통합예술치료를 위한 예술의 매체별 특성 연구」 한국예술연구, 28, 305-326.
- 한재욱. (2010). 「<어거스트 러쉬>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한화성. (2018). 「영화 서사 내러티브와 OST 내러티브의 상관성 연구-영화'가을우체국' 메인 타이틀곡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연구, 11, 159-192.

08

section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예술치료 탐구-

고민경(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심리학전공)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예술치료 탐구

강원대학교 심리학전공 학부생 고민경

목차

- 001 프로그램 소개
- 002 팀 ‘인에치즈’ 소개
- 003 활동 내용 설명
- 004 활동 성찰 결과 공유

KNU
강원대학교



Part 1

프로그램 소개

Part 1

프로그램 소개

‘미래융합가상학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란?

=> 미래융합가상학과 부·복수전공 학생에 대한 학습공동체 및 멘토링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융합가상학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Part 1

프로그램 소개

주요 활동 내용 :

“미래융합가상학과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 학기별 최소 6회 이상의 공동체 활동 진행 후, 활동일지 작성
- 활동 중 지도교수가 1회기 이상 참여 (최소 참여 시간 기준 없음)
- 중간·최종 활동보고서 제출 (지도교수 확인 必)

Part 2

팀 ‘인예치즈’ 소개

팀 '인예치즈' 소개

팀 '인예치즈'는?

팀명처럼 인문예술치료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학생들이 모여
인문·예술치료를
마치 '치즈'처럼 깊고 진하게
탐구해보고자 모인 팀



팀 '인예치즈' 소개

• 지원 동기



팀 '인예치즈' 소개

- **프로그램 참여 목적 및 목표**

첫째 전공 심화 이해 & 자기 이해

둘째 직접 실습 활동 기획 및 진행

셋째 지속적인 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내용 설명

활동 내용 설명

· 주요 활동 방법

이론 학습

- 8차시 중 1, 2, 3차시
- 영화치료 / 이야기치료
 - 기억과서사 / 자료분석론
 - 미술치료개론 / 미술치료표현기법 / 미술심리진단평가



실습 활동

- 8차시 중 4, 5, 6, 7, 8차시
- 영화치료
 - 기억과서사
 - 자료분석론
 - 미술치료 (2회)

활동 내용 설명

· 주요 활동 방법

이론 학습



- 스터디 장소 : KNU미래도서관의 그룹 스터디룸
- 전공 도서와 수강했던 수업의 수업 자료를 활용
-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을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
- 각 분야별 주요 이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 함께 정리

활동 내용 설명

• 주요 활동 방법

실습 활동



- 차시별 '오늘의 리더' 선정, 해당 차시의 실습 프로그램 직접 기획
- '오늘의 리더' 란?
- : 일일 치료사의 역할로, 해당 차시 실습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역할
-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실습 활동을 선정
- 오늘의 리더가 상담사 역할을, 나머지 팀원이 내담자 or 집단원의 역할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1차시 (이론 학습)

- 지도교수님과의 비대면 미팅
- 영화치료 이론 학습
 - 1) 멜라니 클라인과 대상 관계 이론
 - 2) 중간 대상의 의미
- 이야기치료 이론 학습
 - 1) 문학치료 세 종류의 차이점
 - 2) 스토리, 내러티브, 담화의 관계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2차시 (이론 학습)

- 기억과서사 이론 학습
 - 1) 푸르스트 효과, 라쇼몬 이펙트 등의 여러 개념
 - 2) 개인치료, 집단치료, 사회치료의 차이
- 자료분석론 이론 학습
 - 1) 인문 상담 프로그램 구성시 자료 선택
 - 2) 사진 이미지, 상담 텍스트, 민담 자료 해석 방법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3차시 (이론 학습)

- 미술치료개론 이론 학습
 - 1) 미술치료 방법 선택 과정
 - 2) 표현치료 연속선 (ECT)
- 미술치료표현기법 이론 학습
 - 1) 매체의 특성, 내담자별 활용 방법 등
- 미술심리진단평가 이론 학습
 - 1) 빛속의 사람 그림검사, HTP, KFD, FCCD-PSCD 등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4차시 (실습 활동)

- 미술치료표현기법 실습
- 미술치료 집단상담 (가족치료) 장면 시연
- 내담자 : 한부모 가정,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치료가 필요한 가정
- 회기 : 4회기(중기), 9회기(종결)로 설정
- 1) 가족 나무 만들기
- 2) 10년 후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나에게
편지쓰기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5차시 (실습 활동)

- 미술심리진단평가 실습
- 검사 개관 설명 후, 검사 진행
- 검사 진행 후,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등 해석 방법을 설명
- 그림에서 나타난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더 깊이 해석을 진행
- 1) PPT
- 2) LMT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6차시 (실습 활동)

- 영화치료 실습
치료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감상한 후 분석
- 1) 영화 ‘동감’을 함께 관람
- 2) 그룹 스터디룸에 모여 영화 속 상징 해석,
어떤 내담자에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분석
- 지도교수님과의 비대면 미팅
- 1) 현재까지의 활동 진행 상황 공유, 피드백 받기
- 2) 활동의 깊이를 심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논의
- 3) Q&A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7차시 (실습 활동)

- 자료분석론 실습
- 1) 동화 ‘헨젤과 그레텔’ 분석
동화를 함께 읽은 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상징을 중심으로 분석
- 2) 도서관 내의 사물 중 자신과 닮은 사물 찍기
왜 그 사물을 고르게 되었는지, 사진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지, 사진 속 사물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지 등을 함께 이야기



활동 내용 설명

• 차시별 활동 내용 소개

8차시 (실습 활동)

- 기억과서사 실습
- 1) 메모리퀵트 살펴보기
- 각자 작성한 메모리퀵트 글을 팀원들과 공유 후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돌아가면서 팀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해주기
- 지도교수님과의 비대면 미팅
- 1) 메모리퀵트 함께 살펴보기
- 2) 전체적인 활동 피드백, 활동 마무리



활동 성찰 결과 공유

활동 성찰 결과 공유

• 활동 성과



활동 성찰 결과 공유

#치료적 관점

#자기 이해, 타인 이해

#함께 성장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감사합니다 :)

